



11

주체 96 (2007)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6(2007)년 제11호

(루계 제721호)

## 차 례

이해의 여름은 뜨거웠다 .....	3
승리의 노래를 선창하리라 .....	4
우리 중대 화선오락회 좋아 .....	4
하늘에서 내려온 백마 .....	5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7
밤노을 .....	8
주체문학의 대강 .....	9
파발리의 충성을 가슴에 안고 .....	9
혁명소설창작의 새 력사와 함께 성장한 세계적인 작가 (1) .....	10
아 해산역이여 .....	12
시인의 뜨거운 인사 .....	13
노을은 아름답다 .....	14
인생의 재부 .....	24
선군시대 장엄한 진군가에 비낀 시대의 숨결 .....	25
안해에게 .....	27
편집배낭을 메고 8일밤 9일낮 .....	28
나에게 조국이 없다면 .....	31
거울 .....	32
나는 제자의 강의를 받는다 .....	39
어머니에 대한 추억 .....	40

봄소나기 .....	41
태양의 노래와 너가수의 삶 .....	42
94시간 .....	47
꿈 .....	54
내가 만난 비전향장기수 .....	55
내 고향 이야기 .....	56
주체사상탑아래서 .....	57
대돌우의 꽃다발 .....	57
특색있는 생활분야개척을 위한 지향과 참신한 형상을 보고 .....	58
병사와 아이들 .....	59
손도끼 .....	60
저 멀리 락동강 붉은 모래불 .....	70
삼국시기 주택생활풍습 .....	70
전선소식 좋다! .....	71
분대장의 어깨 .....	71
《용서에 대한 생각》 .....	72
눈뜬 장님들 .....	73
스스로 들썩 불행 .....	73
《아름다운 나라》 .....	74
막걸리 .....	74
풀판치녀들 .....	75
삶과 보람 .....	76
모빠쌍의 수염 .....	76
민족정통무도의 발상지는 평양 .....	77
권력보다 강한 시의 힘 .....	78
리명수 .....	79

# 이해의 여름은 뜨거웠다

김송남

이해의 여름은 뜨거웠다  
선군장정의 빛나는 길우에  
《삼복철강행군》길 새로 이어진  
못 잊을 이 여름  
력사의 이 여름

폭양이 숨을 막고  
폭우가 앞을 막는 길  
몇백몇천리더나  
고난과 시련의 앞장을  
또다시 헤쳐가신 아버지장군님

눈굽을 적시며 적시며  
그이를 우러러 우리는 따라섰다  
뜨겁게 달아오른  
홍남과 룡성의 구내길을  
폭우 쏟아지던 비날론공장과  
수지일용품공장 영예군인들의 일터를

영예군인들이야  
내가 부족해야지  
손수 퍼드신 우산아래  
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직장과 직장들을 다 돌아보신 그 걸음

이제는 우리 노동자들이  
현대화된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공장구내의 맑은 공기를  
친히 가늠해보시며  
견고걸으신 사랑의 길 믿음의 길

이미 낯익힌 노동자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며  
나라의 공업발전에 선구자가 되라고  
경제강국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며  
가고가신 그 길에  
공장들이 뿔었다  
동해의 기슭도 뿔었다

그것은  
강계의 《눈보라강행군》길  
앞장서 걸으시며  
온 나라를 비약으로 불러주신  
그날의 그 자욱자욱 이어  
계속되는 사랑의 장정

그것은  
태천의 기상을 펼치시며  
위대한 변혁을 안아오신  
그 걸음에 이어  
새로운 기적으로 인민을 부르신  
고귀한 헌신의 발걸음이거니

폭양속에 폭우속에 새겨진  
성스러운 발자욱따라  
우리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를 안고  
강성대국의 령마루로 더 빨리 치달아오르며  
선구자의 꽃들이 여기에 피어났다

뜨거운 여름이었다  
불별속에 폭우속에  
우리 장군님 찍어가신 헌신의 발자욱  
위대한 그 발자욱따라  
선군승리의 만세소리가  
강산을 흔들며 울려 퍼지리라

# 승리의 노래를 선창하리라

리광선

우리 노래를 불렀으면  
얼마나 잘 불렀으며  
우리 나팔을 불었으면  
얼마나 잘 불었다고  
소박한 우리들의 공연을 보시고  
그토록 기뻐하신것인가

다만 우리의 노래엔 담겨져있었어라  
장군님 오셨던 그날을 안고사는  
다시 모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  
홍남의 마음들이 떠올린  
불꽃튀는 창조의 낮과 밤들이

우리의 선률엔 넘쳐있었어라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속에  
새로운 공구와 지구들을  
수없이 창안하여  
조립기일을 훨씬 앞당긴  
결사관철, 자력갱생의 그 정신이

정녕 가슴 설레여라  
친히 현지에서 협의회까지 소집하시고  
공장이 나아갈 지름길을 열어주신  
장군님의 그 은정에 목메이는 마음들이  
저도 몰래 터친 우리의 노래

초가을에 오신 걸음  
해를 넘어 마가울에로 이으시고

가사

삼복철에 또 오시여 주신 믿음이  
가락가락이 되고  
힘찬 선률이 된 우리의 노래

아 《삼복철강행군》을 하시며  
겪으시는 고생은 아랑곳 많으시고  
정말 잘한다고  
정신이 번쩍 드는 공연이라고  
선군시대 로동계급문화의 본보기로  
높이 내세워주신 우리 장군님

진정 제대군인부부가 부른 2중창도  
로동계급치녀들이 울린 복장단도  
경제강국건설의 맨 앞장에  
온 홍남땅을 불러세우는 힘찬 나팔소리도  
오로지 인민을 위해  
헌신의 강행군, 사랑의 강행군을 하시는  
아버이 우리 장군님 주신 노래 아니던가

부르고 또 부르리라 홍남은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리는 비료산으로  
위대한 장군님만을 받들어갈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  
그 마음으로 부르고부르리라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선구자의 노래를  
강성대국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제끼며  
승리의 노래를 홍남은 선창하리라

# 우리 중대 화선오락회 좋아

전수철

병사들의 노래소리 하늘가에 올라가니  
고지의 산발들도 춤을 추며 설레이네  
장군님 모시고 한식술로 둘러앉은  
에헤야 우리 중대 화선오락회 좋아

관병일치 꽃핀 자랑 시랑송에 올라가고  
만능병사 그 자랑 복장단에 올라가네

장군님 보시며 제일 기뻐하시던  
에헤야 우리 중대 화선오락회 좋아

전투훈련 휴식참에 펼쳐진 오락회  
싸움의 그날에는 용맹으로 이어지리  
장군님병사된 궁지로 새힘 솟는  
에헤야 우리 중대 화선오락회 좋아

## 하늘에서 내려온 백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전의 나날에 자신의 곁에 두셨던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웠던 백마를 두고두고 잊지 못해하시며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시금 회고하시였다.

눈보라치는 장백과 만주벌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우리 수령님의 안광에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떠오르고 힘찬 말울음소리가 귀전에 들려오는 사랑스러운 백마!

우리 수령님께서는 늘 위험이 뒤따르고 총탄이 비발치는 전장을 자신과 함께 달려온 믿음스럽고 충직스러운 그 백마를 두고 자신께서는 《충견애마》라는 성구를 《충마애견》으로 고쳐부르고싶다고 하시였다.

당시 유격근거지와 장백지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고 다니시던 그 백마에 대한 기이한 출생담이 여러가지로 돌았다고 한다. 그 백마가 위인을 알아보았고 위인에게 충직스러웠던 영리한 짐승이었기때문이었다.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도 그때에 사람들속에 널리 전해졌던 하많은 이야기들중의 한토막이다.

신화에 의하면 예로부터 조물주는 하늘나라의 모든것을 흰빛으로 만들었다 한다. 그 리유를 지금에 와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세상리치는 본시 밝음과 어둠으로 나뉘었는바 하늘나라에 밝음을 주는 해, 달, 별, 새벽, 노을 등이 있는 까닭이라고 한다.

아무튼 흰구름, 흰눈, 흰안개, 흰서리, 흰이슬... 하늘나라에서 떠가고 움직이며 내리는 모든것은 다 흰빛같이다. 일설에는 무지개 타고 땅우에 내리는 아름다운 선녀들이 살고있는 하늘궁전도 흰옥을 다듬어 기둥을 세웠다 하여 백옥경이라 부른다는것이다.

《리조실록》에는 500여년전 전라도 곡성현에 흰까치가 나타났는데 그때 사람들은 흰까치는 천조(하늘나라새)가 분명하며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큰 경사가 난듯 법석 끓었다고 써여있다.

옛 문호들도 백학이 나타나면 하늘나라의 신선을 태우고 다니는 선학이 왔다고 축시를 읊었다고 한다.

아마도 흰새처럼 깨끗하고 햇숨같이 부드러우며 옥같은 눈부심이 태초에 세상만물을 창조한 하늘의 아버지인 조물주의 바람이었으리라. ...

그때로부터 퍼그나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날의 이야기라 한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백옥경의 밤이었다.

춘추가 어지간히 높아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고 이마엔 장미가 수북한 조물주가 무엇때문

인지 극성을 부리며 며칠낮 며칠밤을 밝히고있었다.

여러 선관들이 물각유주라고 세상만물이 다 제자리에 차있는데 무엇을 그리 만드시는가고 물었다.

조물주는 싱글벙글할뿐 구려여 내막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

《내 오랜 생각끝에 뜻을 세워 하는 일이니 그리들 알지어다.》

그후 백날이 지나 조물주는 드디어 일을 마치고 선관들을 모두 궁전앞뜰로 불러들였다.

《조물주께서 일을 끝내셨다는군... 우리들에게도 대주지 않고 백날동안 품을 들여 만드신것이니 아마 굉장할게요!》

《그게 어떤걸가요?!...》

《글쎄...도무지 가늠이 가지 않는구려.》

선관들은 세상만물을 한순간에 척척 능사로 만들어내던 조물주가 귀한 보석재료들을 가지고 정성껏 만든것이 어떤것일까 하는 호기심을 풀지 못해했다.

드디어 조물주가 말했다.

《저길 보아라!》

조물주가 가리키는 자그마한 단우에 백옥을 깎아 다듬은 귀엽고도 사랑스러운 어린 말이 있었다. 가벼운 탄성이 일었다.

《저건 백마가 아니오이까?!》

《정말 볼수록 희한한 말이읍니다!》

선관들은 한결같이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껏 조물주가 창조한 세상만물을 수없이 보아오는 그들이였지만 이렇듯 절로 눈부심이 나고 령험이 깃들어보이기는 어린 백마가 처음이었다. 그만큼 조물주가 뜻을 세우고 고심끝에 빛은 창조물이였다.

조물주는 선관들이 보는 앞에서 령험스럽고 귀엽기는 하나 아직은 까딱 움직이지 못하는 어린 백마에게 입김을 불어 생명을 주었다.

그러자 백마는 머리를 주억거리고나서 네다리를 움직이며 걸음을 땀다.

조물주는 첫걸음을 떼는 어린 백마에게 넌지시 말했다.

《네 이름은 말이다.》

《말이란 무슨 뜻이옵니까?》

어린 말은 제 이름에 담긴 뜻을 알고저 했다.

조물주는 가슴노리까지 드리운 흰수염발을 쓰다듬으며 가벼운 웃음속에 대답을 주었다.

《허허허...말이란 무엇이겠니. 말이란 주인을 태우고 다녀야 하며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먼길

을 가야 하는 길짐승이다.》

어린 백마는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는듯 눈만 크게 떴다.

《너는 장차 커서 이 세상의 모든 말과 수레들을 관리하는 별자리에 가게 된다. 저 하계의 땅세상에서는 그 별을 가리켜 방성이라고 부른다.》

조물주는 어린 말에게 땅세상에서 전해오는 말과 관련한 모든 미풍양속들에 대하여 차근차근 말해주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사람들은 마조단을 설치하고 너에게 제사를 지내게 된다. 왜냐하면 방성은 곧 말들의 수호신이기때문이란단다. 또한 인간에게는 오일은 길일이라고 하여 이날에 장을 담그면 맛이 잘 든다 하며 혼인날 신랑은 반드시 백마를 타야 하는데 그 말이 신부집에 이르러 크게 울면 첫 아들을 낳는다고 기뻐한다.》

아무튼 말은 주인에 따라 장수를 태우면 전장을 달리는 군마가 되고 농부의 손에 들면 역마가 되며 초동에게 고삐를 잡히면 무거운 나무짐을 져야 한다.

그러니 이 모든것은 하계의 못말들에게 차례지는 운명이거늘 너는 하늘나라에서 태어났으니 마음껏 옥계수 흐르는 물가에서 향기론 풀을 뜯으며 생을 즐기여라.》

이날에 조물주는 특별히 어린 백마를 정히 쓰다듬어주며 너는 장차 세상의 가장 큰 위인을 태우고저 자기가 원심을 써서 만든 말이니 부디 인사범절을 바로 하고 섭생에 절제하며 문과 무를 닦기 위해 힘쓰라고 일러주었다.

그때부터 어린 백마는 들판을 자유로이 다니며 향기론 풀을 뜯고 흰까치와 흰노루들과 함께 어울려 노니었다.

몇해가 지난 어느날 그 백마는 불쑥 조물주를 찾아왔다.

조물주가 보니 백마는 어느새 다 자라서 깨끗하고 역세이며 립름한 기상이었다.

《저를 땅세상으로 내려보내주십시오.》

《뭐라고?》

조물주는 놀란 눈길을 들어 한동안 대견하게 변모한 백마를 주시해보았다.

백마는 조물주에게 자기가 땅세상으로 가고저 하는 이유를 이야기했다.

백마가 하늘땅사이를 오가는 선녀들의 말을 들으니 땅세상에 《맑은 아침의 나라》로 부르는 아름다운 나라가 있는데 얼마전 흉포한 도적무리가 이 나라에 기여들어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있다는것이였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장수가 내려가 지금 그놈들을 죽치고있는데 그 장수에게 명마가 없다고 한다는것이였다.

《조물주께서는 저에게 생명을 주실 때 무어라

고 하셨소이까. 장차 큰 위인을 태우라고 하지 않았나이까. 지금 하늘이 낸 장수가 명마가 없이 전장을 달리는데 저는 옥계수가에서 한가로이 지내고있사옵니다.》

조물주는 백마의 간절한 청을 듣고서도 이윽도록 말이 없다가 이렇게 타일렀다.

《아서라. 땅세상이란 네가 생각하듯 그렇게 쉬이 내려가는 곳이 아니란다.》

그리고는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것이였다. 그러나 백마는 이미 결심이 굳어진듯 물러가지 않았다.

저녁때까지 움직임이 없는 백마를 보고서야 조물주는 이렇게 말했다.

《네 결심이 정 그러하다면 막고싶지는 않다. 하지만 너는 이제 내 말을 듣고나면 생각이 달라질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오이까?》

《들어보아라. … 언제인가 나에게는 내가 특별히 사랑해온 말이 있었지. 천리마라고… 그 말도 크더니 너처럼 땅세상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졸랐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서 자란 네가 어떻게 땅세상에 내려가 살겠는가고, 그리고 지금은 네가 하늘나라에서는 말을 하지만 땅에 내려가면 말뜻도 몰라 말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네가 다른 말들과는 다른 천리마라는것을 누가 알겠느냐? 하였다. 그래도 천리마는 고집을 부리더구나 하도 그의 부탁이 간절하여 금안장밑에 이 말이 어떠한지 하다는것을 적어 내려보내주었다.》

그런데 마침 그 말의 첫 주인이 무던한 농부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말의 뜻을 알고 그대로 키웠더라. 하지만 천리마는 언제나 살아있지만 농부의 생은 끝이 있는지라 그 농부가 죽고 말은 다른 주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였다.

그 말이 천리마라는것을 알리없는 새 주인은 말을 아무렇게나 대하여 늘 굶주려있었고 언제한번 속 시원히 울어볼수도, 네굽을 치며 날아볼수도 없었다.

그러니 어느 못말보다도 못하게 여위였다. 그러자 주인이 채찍을 들고와서 하는 말이 〈천하에 말이 없도다.〉 하질 않았겠니. 참말로 슬픈 일이다. 천하에 말이 없는가, 말을 아는 사람이 없는것인가.》

여기까지 말하고난 조물주는 백마의 의향을 다시 물었다.

《그래도 너는 땅세상으로 갈수 있느냐?》

백마는 한발을 성큼 내짚으며 대답했다.

《그 말은 참으로 교훈이로소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우가 그때와는 다르오이다.》

하늘이 낸 위인이 그곳에 내려가 싸우고있는데 어찌 그 위인의 눈이 저를 몰라보겠나이까. 내려가게 해주옵소서!》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계승본, 7권)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1937년 겨울에는 몽강현 마당거우밀영에서 부대안의 전체 장병들이 군정학습에 주력하였습니다. 아마 한 너덧달쯤 품을 들여 학습한것 같습니다.》

《우리는 군정학습기간에 대원들의 문화적소양을 높여주는 사업도 활발히 벌리였습니다.

혁명가요보급과 오락회도 자주 조직하고 혁명적인 소설작품이나 전기실화작품들을 소개선전하는 읽은책발표모임 같은것도 자주 열어 대원들로 하여금 락전적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체험에 의하면 노래는 혁명적락관주의의 상징이고 혁명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숙영지에서도 울리고 가설무대들에서도 울리고 전장에서도 울리였습니다. 노래소리가 높다는것은 사기가 높다는것을 의미하며 사기가 높은 군대는 싸움에서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노래소리가 높아야 혁명대오가 흥하고 강해집니다. 노래소리가 높은 곳에 반드시 혁명승리가 있습니다.》

조물주는 백마의 간곡한 청을 이기지 못해 그가 땅세상으로 내려가는것을 승낙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보내기 안심잖아 한것은 그런 훌륭한 위인을 과연 잘 모시겠는가 하는 우려감이 앞섰기때문이니라.

자고로 명인이 있어 명마라 일렀거늘 너는 위인을 모시고 받드는 일에 만의 하나라도 실수가 없게 하며 위인의 뜻을 티끌만치라도 흘리거나 가벼이 대하지 말라. 자, 그럼 어서 떠나거라.》

백마가 처음 내린 곳은 사시장철 머리에 흰눈을 띠이고있는 백두산이요, 백두산은 이 나라의 조종이라 이곳에서 천지의 맑은 물로 목을 추기고 다시 한걸음 내짚으니 판모봉과 칠보산의 그 중간이였다.

백마는 산천을 두루 살피며 하늘에서 내리신 위인을 찾아다니던중 함경북도 경원군 근처에서 이른새벽 한 농부를 만나게 되었다.

농부는 백설같이 희고 눈부신 백마를 보는 순간 자기가 꿈속에 있는가싶어 슬며시 제 살을 꼬집어보았다.

꿈은 아니였다. 농부는 속으로 환성을 올렸다.

(이 말은 분명 하늘이 내린 말이거니. 내 기꺼이 이 말을 이끌고 백두산대장수님을 찾아가리다.)

농부는 백마를 정한 햇풀밭에서 풀을 뜯게 하고는 얼마 안되는 귀밀자루를 털어 존귀한 손님 대하듯 정성을 다했다.

그런데 이 외진 산골에도 왜놈들이 나타났다. 백마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달려들었다고 간파한 농부는 사생결단하고 백마를 구원하리라 결심했다.

그는 백마의 고삐를 단단히 잡고 으쓱한 골짜기와 험한 벼랑을 뚫아올랐다.

그때 자기가 떠나온 마을에서는 왜놈들의 로략질과 행패질이 시작되고 농부의 집이 불타고있었

다.

그렇게 풀을 빠지고 막아서는 가파로운 벼랑도 뚫아 드디어 백두산을 마주한 농부는 조종의 산을 향해 깊이깊이 머리숙여 《장군님, 이 백마를 받아주소서.》하고 축수를 올리고는 다정히 백마의 등을 떠밀어 백두산으로 보냈다.

령리한 백마는 그의 간절한 소원을 안듯 손살같이 내달려 자취를 감추었다.

왜놈들은 그 농부를 잡아다 백마를 내놓으라고 차고 때리며 며칠간을 가두어놓고 행패를 부렸다.

그 어혈로 농부는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된 그 순간에 백마를 생각하며 백두산을 보고 또 보았다.

백마는 이렇듯 한 농부가 목숨을 내건 길안내를 받아 곧장 백두산대장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던것이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는 대변에 이 백마가 세상에 둘도 없는 명마임을 알아보시였다.

항일전의 그 나날 백두산대장수님께서는 백마를 친혈육처럼 사랑하시고 극진히 보살펴주시였으며 백마 또한 나라찾는 성전을 승리로 이끄시는 조선인민의 태양이신 백두산위인을 모시고 전장속을 누빌 땀 온몸에 저도 모를 백배의 힘이 솟아 인간세상에 다시없을 준마로, 사랑받는 충마로 자랑떨치게 되었다.

일설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백마를 자신의 곁에 두시고 축지법을 쓰실 때는 말도 함께 지맥을 주름잡아 달리도록 다정히 이끌어주시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위인의 손길에서 충마로 그 이름 세상에 알려질수 있어 백마에 대한 이야기가 더 보태여지고 가지를 쳐 더욱 풍부한 전설로 전해지고있는것이다.

김종석



## 밤노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우에는 신기한 자연현상들도 수많은 펼쳐지곤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러한 자연현상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절감하고 가지가지 전설적이야기들을 전해가면서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끝없는 환희와 민족적경지를 더욱 가슴 깊이 간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령도력과 품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주체88(1999)년 6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강도를 찾으시여 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날 만포시 고산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영농실태를 알아보시고 농업생산을 늘일 과업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고산협동농장을 찾으신 그날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기슭에 펼쳐진 포전을 돌아보실 때였다. 놀랍게도 안개가 강가에 성벽처럼 피어올라 병풍마냥 주변을 가리우며 강변풍치를 뜻깊게 그리고 아름답게 단장하였다. 해가 중천에 솟아있을 때 것처럼 안개가 뽕양게 낀적은 이 고장에서 처음보는 기이한 현상이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여름철의 해벌이 뜨겁게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넓은 포전에는 그늘을 던질 만 한 나무 한그루 없었다. 일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늘 밑에 모셔야겠는데 방도가 나서지 않아 안타까움을 안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생겨났는지 하늘에 한송이 흰구름이 떠서 땅위에 둥그렇게 그늘을 펼치기 시작하는것이였다. 놀랍고 희한한것은 그 그늘이 유독 우리 장군님을 모신 장소에만 펼쳐졌던것이

다.

그날 저녁 마을사람들은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 있는 마을길에 나와 이야기꽃을 피웠다.

어쩌면 우리 장군님을 옹위하듯 때아니게 안개가 성벽처럼 솟구쳐올랐을까?!

어쩌면 우리 장군님을 위하듯 갑자기 한송이 구름이 떠서 그늘을 펼쳤을까?!

그리고보니 그 전날 밤에 있던 사실도 더욱 범상치 않게 생각되였다.

그 전날 저녁 하늘에 노을이 곱게 피어났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레사롭게 보았다. 그런데 어느날과 달리 그 노을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전같았으면 장난세찬 아이들이 벌써 이부자리속에 들어가 꿈나라에 간지 오렸을 때까지도 불타는 노을은 황홀하게 비껴있었다. 이 고장에 태를 묻고 살아온 로인들도 난생처음보는 밤노을이였다.

노을이란 하늘의 태양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그런데 해가 서산에 넘어간지도 오래 되었는데 어떻게 밤노을이 그렇게도 화려하게 피어 질줄을 모를수 있었는가?! 태양의 빛발은 밤에도 내 나라, 내 조국의 하늘만은 비치고있었다는것이 아닐까?!

생각할수록 놀랍고 희한하기 그지없었다.

《어제밤에 신기하게 노을이 펼쳐지더니 오늘 이처럼 큰 경사를 맞이한게 아니요?!》

《정말 우리 장군님은 절세의 위인이시고 21세기의 태양이시니 하늘도 어찌 가만 있을수 있겠소!...》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였던 그날의 밤은 이 고장사람들속에서 끝없는 경탄과 충정이 넘치는 위인칭송의 전설이 환희롭게 꽃피는 경사스러운 밤이였다.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통신원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우수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문학통신원들이 약동하는 오늘의 현실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성격을 탐구하고 깊이 체험하자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문학통신원들이 현실속에 살면서 오늘의 벅찬 생활의 창조자로 되고있는것은 문학창작에 유리한 조건으로 됩니다.》

《문학통신원들은 높은 정치적식견과 함께 높은 예술적기량을 소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문학통신원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완강한 의지를 가지고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며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파발리의 총성을 가슴에 안고

곽명철

오늘도 귀전에 메아리쳐온다  
피문은 침략의 발톱을 이 땅에 깊숙이 박고  
조선사람의 등뼈를 갈며  
세상 못된짓만 골라하던  
왜놈순사부장 《오빠시》를 단호히 처단하시던  
김형권선생님의 그날의 파발리 총소리가

보여주셨더라 선생님은  
침략자에 대한 조선민족의 복수심이  
얼마나 드높고 가차없는가를  
철천지원췌 일제와는 우리 인민이  
어떻게 피의 결산을 하려 하는가를

온 강토를  
날강도의 무시무시한 폭압망으로 뒤덮고  
숨소리만 조금 높아도  
야마도의 칼날이 번뜩이던 숨막히던 그 시기  
죽지 않은 조선사람의 기개를  
당당히 시위하시며  
일제의 면상에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기신  
강인담대하신 선생님

죽어자빠진것은  
한 산골지방의 보잘것없는

왜놈의 순사부장이였어도  
놈의 염통을 뚫은 그 시원한 복수탄은  
일제의 심장부에까지 깊숙이 박히였거늘

《오빠시》의 처단소식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삼시에 온 나라에 퍼져  
사람들은 가슴을 들먹였더라  
인민들은 놈의 주검에서  
래일에 반드시 멸망하고야말  
일본제국주의 처참한 몰골을  
확신성있게 그려보았나니

세월은 흘렀어도  
바다건너 사무라이들은  
그날의 피의 교훈을 망각하고  
오늘도 재침의 칼을 버리며  
피눈이 되어 미쳐날뛰거니

김형권선생님 높이 올리신  
그날의 파발리총성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는 우리 인민  
왜놈순사부장 《오빠시》의 주검을 눌러딘고  
섬멸의 총검높이  
일본군국주의와 결산하리라

## 혁명소설창작의 새 력사와 함께 성장한 세계적인 작가 (1)

박춘택

작가 석운기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새로운 혁명문학,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형상세계를 개척하는데서 특출한 공헌을 한 재능있는 소설가였다.

그는 작가로서 영예의 《**김일성훈장**》과 《**김일성상**》을 수여받았고 로력영웅이 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상설회의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작가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게 되고 그 길우에서 최상의 영예와 영광을 누린 석운기의 한생은 그대로 우리 나라에서 얼마나 위대한 손길에 의하여 당적인 작가의 미더운 대오가 마련되고 주체적인 혁명문학예술의 대화원이 만발하고있는가를 보여준다.

작가 석운기는 주체18(1929)년 10월 대구시 동구 불로동(경상북도 달성군 동촌면 불로동)에서 빈농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열살때 락동강이 범람하는 바람에 폐농이 되어 부모를 따라 중국 동북 목단강성으로 갔다가 3년후에 다시 조선으로 나왔다. 떠살이하느 부모를 따라다니다보니 어디 정착된 곳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속있게 받지 못하고 여기에서 한 학년, 저기에서 한 학년 하는 식으로 소학과정을 마치었다.

주체31(1942)년 3월에 가족친척들이 협력을 해서 그를 대구대륜중학교에 넣어주었다.

해방후에 그는 희망에 불타서 공부를 하려고 하였으나 미제가 강점한 남조선에서는 가정형편도 학교생활도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그는 반미감정에 불타서 대구학생동맹에 가맹하였고 10월 인민항쟁당시 항쟁대렬에 뛰어들어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였으나 미제의 야수적탄압으로 인민항쟁은 실패되고 하여 그는 대구에 배겨있을수 없었다. 그는 몇명의 학우들과 함께 대구를 떠났다.

서울로 올라온 그는 성균관대학교 국문과에 들어갔다. 허나 여기서도 그를 실망케 하였다. 결연히 대학문을 나선 그는 《예술평론사》에서 펜을 잡았다. 그런데 미국놈들에 의해 얼마 못되어서 폐간당하였다. 당초에 진리와 정의란 있을 곳이 없는 암흑의 남녘땅이였다.

광명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꿈과 나의 리상을 실현할 곳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곳은 저 멀리 북쪽에 있었다. 반만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이 땅우에 진정한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다. 하여 그는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반대하여 투쟁의 길에 나섰다. 그러다 경찰에 체포된 그는 진리와 정의, 량심을 꾀기지 지켜낸 대가로 값비싸 석대가 부러졌고 청춘의 나이에 병자가 되었다.

문학에 대한 지향은 버릴수 없어 인천항의 화

물선에서 일하면서 책을 읽고 또 읽으며 그리고 쓰고 또 쓰면서 진정한 문학을 하리라 모지름을 썼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고 인민군대가 서울을 해방하였다. 무엇을 서슴으랴.

그는 허무한 인생의 기슭을 떠나 값높은 삶의 지점으로 《출항》의 고동소리를 높이 울리며 의용군대렬에 들어섰다. 자동차운전사양성소를 나온 그는 수송구분대에서 운전사로 복무하였다.

3년간 군사복무기간에 희곡 《밤을 헤쳐가는 사람들》을 전선신문에 발표하였고 그후 첫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을 창작하여 《청년문학》 잡지에 냈다.

고급중학교시절에 석운기의 첫 단편소설을 읽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젊은 작가가 처음으로 소설을 썼는데 재간이 있다고 높은 치하를 하여주시었다.

진정 작가의 앞길에 밝은 빛이 비쳐진것이었다.

사랑의 품속에서 석운기는 단편소설 《미완성력사화》, 《특수차 37호》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을 련이어 발표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석운기의 창작 첫 시기부터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었다. 그의 중편소설 《전사들》이 나왔을 때 그이께서는 몸소 읽으시고 잘 쓴 소설이라고 평가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서해안의 한 지방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친히 작가들을 부르시여 혁명적인 작품창작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감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던 주체55(1966)년 2월, 그무렵 석운기는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 제2부의 추고작업을 다그치고 있었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로 하여 펼쳐진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력사, 장편소설의 이 주제는 조국해방전쟁에 병사로 참가하였던 첫날부터 석운기를 흥분시키고 깊은 사색으로 이끌어왔었다.

남조선에 고향을 둔 그는 일제와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당하는 민족의 고통과 설움을 뼈저리게 체험하다가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의 해방과 함께 의용군으로 인민군대에 입대한 그때로부터 참으로 존엄높고 위대한 군대와 인민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나라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인 새 모습이었다.

그와 한전호에서 싸운 평범한 로동자, 농민출신의 인민군병사들속에서 피어나던 해방후 인민정

권하에서 누린 보람차고 행복했던 생활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 결전을 앞두고 채택되었던 최고 사령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는 편지의 가슴 치는 구절구절들이며 그 맹세를 지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영웅전사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앞에 만신창이 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

이 모든 사실은 석운기를 무한히 격동시켰으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게 했다.

그후 석운기는 미제를 때려눕힌 기세로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모습과 이 성과에 고무되어 자주적인 새 생활 창조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장엄한 진군을 목격하면서 더욱 강렬한 창작적 욕구를 느꼈다.

그는 장편소설을 오랜 역사적시기를 포괄하는 대서사시적화풍으로 구성하고 그에 필요한 방대한 사료와 생활자료들을 연구하였으며 각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취재하였다.

이런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그는 주체53(1964)년 마침내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의 첫부를 세상에 내놓았으며 그것이 독자들속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자신의 성공에 자부도 느끼었다. 하지만 그는 장편소설 2부를 탈고하는 이 몇해여간엔 자신이 시대의 탄생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명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를 옳게 반영했는가 하는 생각에 때없이 잠기게 되었다.

그가 이런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된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작가들을 만나주시고 하신 아버지 수령님의 교시에 접하면서부터였다.

그 뜻깊은 기회들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시는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작가의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 거듭 일깨워주시면서 오늘의 벅찬 현실을 반영한 좋은 작품들을 창작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시는 또다시 작가들을 부르시여 인민들의 혁명적세계관확립에 이바지하는 대작을 많이 써내며 문학부문의 사업을 새롭게 혁명적으로 개선해나갈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신하신것이다.

석운기는 이날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되새기며 자신이 창작사업에서 당의 요구를 옳게 관철하고있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모대기였다.

당시 이것은 석운기 한사람의 고충이 아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당이 해결하자고 하는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여야 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으며 당사상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이 마련되었던 1960년대 중엽 당시의 현실은 문학부문 사업에서도 새로운 변혁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는데 이바지할것을 절박한 과제로 내세우고있었다.

하지만 주체문학건설에 대한 명확한 견해가 서있지 못했던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그처럼 시급히 해결을

바라는 이 문제를 옳게 풀어나갈수가 없었던것이 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문학은 과연 어떤 문학으로 되여야 하는가.

석운기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제를 안고 고심하며 모대기고있던 시기 당중앙위원회 청사의 소박한 집무실에서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끝없이 이어지는 현지지도의 길들과 창작사업에 대한 지도의 나날들에서 새로운 문학을 건설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색과 탐구의 심오한 세계가 펼쳐지고있었다. 그것은 당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이 자기 사명을 다하는데서 근본적인 고리를 놓치고있는것은 없는가, 만일 놓친것이 있다면 우리의 새로운 혁명문학에서 그것을 찾고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숭고한 뜻과 의지로 이어진 탐구와 사색이었다. 그리고 심오한 과학적통찰력과 비범한 예지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이 걸어온 전 역사적로정과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의 전반실태를 환히 헤아리며 우리 문학이 주체적인 혁명문학으로서의 완벽성을 갖추도록 그 근본문제를 밝혀나갔던 과정이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석운기를 비롯한 작가들은 새로운 구체적인 혁명문학건설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받아안게 되었다.

로동계급의 수령형상문제를 새로운 혁명문학건설의 근본적인 고리로 제시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우리 작가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의 전로정을 포괄하는 혁명소설들을 창작할데 대한 책임적이고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신 그 숭고한 뜻.

석운기도 그때 심장에서 솟구쳐흐르는 격렬하고 뜨거운 감정을 느끼며 감격을 견잡지 못하였다.

돌이켜보면 로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혁명적문학이 출현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날에 수많은 작가들과 문학리론가들이 자기에게 지워진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를 이어왔다. 그리하여 많은 주체령역이 개척되고 로동계급을 각성시키고 투쟁으로 고무하는 긍정적주인공들, 혁명가들의 형상이 적지 않게 창조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흘러온 기나긴 세월의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도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창조문제를 혁명문학건설의 근본문제로 전면에 제기하지 못하였었다.

그런데 시대와 혁명이 절박하게 해답을 요구하는 바로 이 문제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결정적역할, 문학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을 심오하게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처음으로 미룰수 없는 역사적과제로 내세우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시는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조선혁명은 한마디로 말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빛나게 개척되

고 승리하여온 혁명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이 수령의 형상창조문제를 근본과제로 제기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옹가로 형상할 때 이것은 우리 현실과 혁명투쟁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하는것으로 될것이였다. 그리고 인민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해야 하는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는것으로 될것이였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해나갈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나날에 그 한 고리로서 이 문제를 주체적인 우리 문학건설의 근본문제, 중심과제로 내세우신것이다.

이 위대한 사상리론의 정당성에 대하여 심장으로 깊이 느끼는 석윤키에게는 지난 시기 작가로서의 임무를 다하느라 하면서도 창작사업에서 무엇인가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있는것과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사실과 그 해답을 못찾아 모대기던 사실들이 돌이켜지며 《바로 이것이였구나!》하는 환성을 올리게 되는것이였다.

문단은 끝없는 감격과 혁명적열정을 안고 설레었다.

석윤키는 그무렵 우리 당의 령도밑에 개화만발할 주체적인 우리 문학의 새 모습을 내다보며 벽찬 환희에 잠겨있었다.

자신도 인생의 새뜻을 달고 것처럼 책임적이고 영예로운 창작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치고싶은 열망으로 가슴 설레었다.

이러했던 그는 얼마후 바라마지않던 소원을 성취하여 마침내 우리 당의 위대한 구상에 의하여 새로 무어진 창작집단의 한 작가로 사업하게 되었다.

주체적인 혁명문학건설의 전초선에 서서 시대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관철해나가는 창작집단의 작가!

참으로 이것은 당적작가가 지닐수 있는 최상의 영광이고 행복이였다.

그날 자신의 생활과 창작사업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내다보며 석윤키는 이처럼 위대한 령도의 빛발아래 혁명문학건설에 참가하게 된 조선의 작가된 무한한 긍지와 행복감으로 하여 온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다음호에 계속)

## 아 계산역이여

박희구

크나큰 환희에 설레던  
계산땅의 그밤  
조국의 눈빛인양  
밝은 별들도 다 모여와  
기쁨속에 지켜보던  
환영의 역두

참으로 뵈고싶은 친애하는 그이  
깊은 밤 꿈같이 오셨다고  
꽃을 안고 달려온 학생들과 시민들  
우러러 매혹된 눈빛들이 설레고  
경모의 정 한데 얹혀  
우러러 터치던 격정의 환호

인민이 드리는 축원의 인사에  
그이는 뜨겁게 말씀하셨네  
우리는 환영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배우러 왔다고...

아, 영명하신 장군님  
환영의 역두를  
배움의 역두로  
가슴가슴 뜨거이 새겨주신  
그 숭고한 뜻 어이 다 헤아릴수 있었으랴

그이 펼쳐주신 혁명교양의  
새 과정안이 조국땅에 시작되던  
6월의 그밤부터 긴긴 50여성상  
그이 열어주신 백두의 행군길우에  
오 백두산3대장군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도도히 굽이쳐흐르나니  
진정 그이는 위대한 스승!

성스런 백두의 그 길 따라  
배우러 오는 온 나라 답사행렬  
언제나 반겨맞아  
영광의 그밤의 감격속에 세워주는  
백두성지의 계산역이여

평범하던 계산역의 그밤을  
그처럼 빛내주시던 그이는  
낮을 이어 깊은 밤에도  
해빛을 주며 누리에 불타는 태양  
우러러 가장 가까이 솟아 빛나는  
백두산혁명전적지  
그 정문은 바로 네가 아니냐  
아 계산역이여!

## 시인의 뜨거운 인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 어버이수령님을 더 높이 모시려는 인민들의 의사와 념원을 실현시켜주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여기에 이런 감동깊은 이야기가 있다.

주체35(1946)년 5월 어느날, 항일혁명투사 김책동지가 김정숙동지를 찾아와 들고온 가방속에서 두툼한 편지묶음을 내놓았다. 그것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지어달라는 각지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편지들이였다.

이날 김책동지는 김정숙동지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노래를 짓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혁명송가창작문제를 당중앙조직위원회 결정으로 채택해서라도 기어이 노래를 빠른 시일안에 완성시켜야 하겠다고 절절하게 말씀드리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책동지의 말을 긍정해주시며 인민의 념원답아 우리 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어서빨리 짓자고 말씀하시였다.

잠시후 김책동지는 김정숙동지께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문제만은 승인하지 않으신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물론 그러실거라고, 그러나 이것은 산에서 싸울 때부터 우리가 힘써온 문제가 아닌가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도 힘껏 돕겠으니 어서 장군님의 노래를 잘 짓도록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책동지는 노래창작을 위해 4월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흥시를 찾으시였을 때 수령님을 환영하는 소박한 연회석상에서 즉흥시를 읊은바 있는 시인(리찬)에게 과업을 주었다.

어느날 시인을 도와주고있던 김책동지로부터 창작실태를 료해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시인의 창작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노래들을 비롯하여 100여편의 혁명가요들이 들어있는 자신이 애용하시던 수첩도 보내주시였다.

정녕 그 수첩에 들어있는 노래들은 백두산의 험한 줄기들과 압록강, 두만강의 수많은 굽이들에 거룩한 자욱을 남기며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알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것이였다. 시인은 귀중한 수첩을 김정숙동지로부터 받아안고 깊이 연구하고 지도를 받는 과정에 드디어 혁명송가의 가사들을 창작해낼수 있었다.

가사를 완성해놓고 시인은 김정숙동지의 가르침을 다시 받고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시인을 만나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시인이 쓴 가사를 여러번 주의깊게 읽어보시였다. 이때 시인은 김정숙동지께 가사에 대한 의견을 주시였으면 하였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사가 잘되였는데 의견이야 무슨 의견이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다만 자신께서는 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짓게 되니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험난한 혁명의 길을 다시한번 가슴깊이 되새기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시인에게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을 감명깊게 들려주시였다. 시인이 받아안은 충격은 또다시 컸다.

이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는 우리 나라 그 어디에나 다 깃들어있다고, 우리는 만주광야의 찬바람을 헤치면서도 그리고 밀영의 우등불가에서 긴긴 밤을 그대로 지새우면서도 조국과 인민앞에 바치시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을 꼭 옛말삼아 이야기할 때가 올것이라고 굳게 믿고있었다고, 정말 장군님의 존귀하신 성함은 영원히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서 빛을 뿌릴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시인은 새로운 창작적열정에 불타올라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하였다.

《알았습니다. 이제야 완전한 시상이 머리에 확 떠오릅니다. 정말 너사를 만나뵈지 못했더라면 제가 이 노래를 완성할수 없었을번 했습니다.》

시인은 김정숙동지께 몇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드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시인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며 자신의 이야기가 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더 완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이상 기쁜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우리 인민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언제 어디서나 부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천명길



정영종

## 1. 《줄콩3호》

과학기록영화촬영소의 연출실장이 붙여주겠다고 약속한 《재기있는 연출가》는 의외에도 새파랗게 젊은 처녀였다. 맵시있는 연남빛달린옷을 시원히 차려입은 처녀는 대기실에서 초조히 기다리고있는 윤웅만을 띠여보자 깍듯이 인사했다.

《인녕하세요? 새 품종 콩의 촬영을 의뢰한 윤 선생님이지지요?!》

《예!》

싱아대처럼 유별나게 길고 가느다란 처녀의 몸매가 우선 윤웅만의 시선을 끌었다. 하여 그는 반가움속에서도 처녀가 웬간한 바람에조차 휘친거릴거라는 위태로운 편상이 떠올라 소리없이 웃었다. 한때 자기들이 연구재배하는 대짜배기줄콩이 바로 그랬었다.

《송편아라고 불러주세요.》 처녀쪽에서도 숨김없는 호기심으로 눈을 깜박이며 속살거렸다. 《선생님이 제출한 〈줄콩3호〉 자료를 보았어요. 세상에 그런 희한한 콩도 다 있다니 참...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군요.》

《허허... 가보면 알게 되지요.》

《그럼요, 그럼요. 어서 가지자요!》

처녀는 제먼저 덤벼치며 문밖으로 나섰다. 야심작이 될만 한 대상에 맞다들렀다는 흥분과 의욕 때문일것이다.

그 흥분은 윤웅만에게도 옮겨와 가슴을 몽클하게 만들었다. 바야흐로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것이었다. 이제 과학영화의 화면에 옮겨져 온 나라가 다 알고 경탄과 환성속에 널리 재배될 줄콩... 그때엔 자기가 울지도 모른다!

갑자기 앞서걸던 처녀가 멈춰 서버렸다. 처녀는 5월의 호듯호듯한 해빛이 넘치는 넓은 촬영소앞 마당을 한동안 두리번거리더니 미심쩍게 윤웅만을 돌아보았다.

《저...》

윤웅만은 처녀가 무엇을 물으려 했는지 대뜸 깨달았다. 오랜 기자생활전적을 가지고있는 그였다. 그 시절 취재를 부탁해오는 대방들에서는 흔히 호의를 보이려고 승용차쯤은 내는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지금 마당은 텅 비어있었다.

윤웅만은 지그시 혀를 깨물었다.

《이거 사죄를 미쳐 못해서. 실은 내 년로보장자이다보니 그만...》

《그럼 농업과학원 연구사가 아닌란 말씀이세

요?》 처녀의 가느스름한 두눈이 순진한 놀라움으로 한껏 흠뻑졌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었다. 처녀는 곧 활짝 웃으며 윤웅만의 손을 담썩 부여잡았다.

《됐어요! 제가 그만 우리 차들이 모두 현지촬영 나갔다는걸 깜박 잊었지요 뭐. 일없어요. 뺄스를 타면 되지요. 걸어가도 좋구요. 그렇지요?!》

무척 민감하고 사려도 깊은 처녀였다. 그것이 윤웅만은 눈물나리만큼 고맙고 기뻐했다.

《먼데는 아니니 그런대로 수고해주우. 모란봉구역 민홍동까지 가면 되니까.》

윤웅만은 주저되는것이 있어 그이상 말을 잊지 않았다. 민홍동에는 바로 줄콩의 기본육종가인 리재준이라는, 역시 전문연구사가 아닌 평범한 년로보장자로인이 살고있는것이다. 모름지기 그것까지 발설하면 이 처녀연출가가 또다시 미심쩍어할는지 모른다. 그런 허술한 령감들이 만들었다는 줄콩이 과연 신빙성있는 과학영화감이 될수 있겠느냐고! 자기 역시 한때 그런 의혹을 품지 않았던가.

... 3년전 가을 어느날 윤웅만은 세상에 없던 《줄콩3호》라는 희귀한 작물을 한 전쟁로병이 육종해냈다는 소문을 귀동냥해듣고 한달음에 그를 찾아나섰다. 일단 호기심에 불이 달리면 하던 일도 다 집어던지고 거기에 뛰어들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스스로도 화날 때가 많은 피이쩍은 감질이 그때에도 발작한것이였다.

그런데 저녁녘에 집을 나선데다가 민홍동이라는 어정쩡한 지명뿐 정확한 주소도 이름도 모르는 전쟁로병을 찾아해매는 사이 그만 밤이 깊었다.

윤웅만은 자신에게 또 화가 났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리해관계도 절박성도 없는 왕청같은 일에 코를 들이밀어 고생을 사서하지 않는가. 그 콩을 구경한 후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건가?

다행히 그때 지나가던 한 녀인이 길가에서 어정거리는 윤웅만을 도와주었다.

《예- 〈줄콩할아버지〉 말씀이군요. 저기 새로 짓는 아파트밑 단층집이랍니다.》

절로 허거픈 웃음이 나갔다. 전쟁로병이라는 계산으로부터 근 반세기는 과학에 종사했을테니 박사쯤은 되고도 남으리라 치부하고 좋은 다층살림집들만 찾아 다닌게 실수였다. 그러자 불쑥 의혹이 머리를 쳐들었다. 저런 단층집에서 사는 위인이 무슨 박사이겠고 거기서 또 무슨 쓸만 한 물건잔이 생겨났겠는가, 십분 허풍쟁이들의 입에서



과장윤색된 뜬소문이렷다! 내키지 않아 뜨적뜨적 걸음을 옮기던 윤웅만은 갑자기 우뚝 굳어졌다. 다충살림집진설장에서 평곳 뿔어나온 용접선팅이 바로 그 단충집담장으로 키를 쑥 솟군 어방없이 큰 땀싸리비슷한 식물형체를 확 드러낸 것이었다.

그 줄콩?! ... 윤웅만은 심장이 후둑 뛰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거기에 손을 뻗었다. 그러자 다랑다랑 소리가 나는 잘 익은 콩꼬투리들이 줄이 벌게 잡혔다. 윤웅만은 너무 놀라와 숨마저 딱 멈추었다. 모든 가지마다에 이런 식으로 콩이 달렸다면 3미터는 실히 되어보이는 이 요란스러운 거물콩대 한포기에서만도 얼마나 굉장한 수확이 날 것인가.

그는 저도 모르게 발돋움하며 두팔로 콩줄기를 더듬어안았다. 그 순간 《어떤 녀석이냐?》하는 천둥같은 호령이 머리위에 떨어졌다. 윤웅만은 기겁하여 쟁충 한발 뒤로 물러섰으나 집게같은 손에 팔목이 틀어잡혀 중심을 잃은채 담장을 어깨로 들이받았다. 눈부신 전지불빛이 그에게 쏟아졌다.

《허- 이것 봐라!》 담장우에서 기막힌듯 한 탄식이 터졌다. 《조무래기들이나 아나네들이 한두 줄씩 따라간 해두 나살이나 건사한 명감은 처음 인걸. 손주영치나 두드려줄게지 밤도적질이라니 부끄럽지두 않나, 영?》

《아, 아니 전 사실... 줄콩 구경은 손님...》

《잔말말구 따라오게, 신분을 확인해야겠네.》

어처구니없었으나 윤웅만은 완력에 못이겨 대문안으로 끌려들어갔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창조물에 손상이 갈까봐 밤잠도 못 자며 지키는 주인의 애바른 심정이 마쳐와 속이 뭉클했다.

방안의 불빛이 흘러나오는 흰한 정지마루에 걸터앉았을 때에야 윤웅만은 주인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크지 않은 키에 어깨가 짙 버그러진 다부진 체격의 로인이었다. 바투 휘올린 허연 상고머리만 아니었다면 힘풀이나 씩씩한 장년사나 이로 여겨졌을 것이다.

로인은 어느 사이 신분확인 같은것은 까맣게 잊고 담배를 피워물며 시름겹게 중얼거렸다.

《사람들두 참, 아무리 말려두 그냥 따가니 야단 일세. 이따월 자꾸 사방에 퍼쳐놓으면 내 꼴은 뭐가 되구 나라의 콩농산 또 뭐가 되겠는지...》

윤웅만은 한순간 어리둥절해졌다. 육종가에게 있어서 자기의 창조물이 세상에 널리 퍼지는것처럼 반갑고 행복한 일이 어데 있겠는가, 하물며 밥눈에도 대뜸 작물학계의 한 기적이라는데 알리는 줄콩임에랴.

《모르겠는데요?》 윤웅만은 한층 얼퍼름해져서 고개를 기웃거렸다. 《저런 보배같은 진귀한 작물이 널리 재배되는걸 바라지 않는다면 아바인 뭇 때문에 육종했다는겁니까? 혹시...줄콩이 람발되면 지적소유권같은게 침해당할가봐...》

꽤 고개를 튼 로인의 불달린듯 한 눈길이 그의

입을 열어볼게 했다. 윤웅만은 실수했음을 깨달았다. 자기는 로인을 줄콩종자를 독점하여 횡재해보려는 어떤 장사군비슷이 표현해버린 것이었다.

아닐세라 로인의 숨소리가 대뜸 거칠어졌다.

《대개. 임자 어디서 뭘해먹는 사람이랴구?》

《용서하십시오. 그만 생각없이... 실은 제 년초에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서 쉬는...》

《흥, 그럴테지. 갈데 있나!》

로인이 요란스레 코그루를 울렸다. 그다음 움쭉 일어섰다.

《그러니 이젠 구속없는 년로보장자가 됐겠다. 허리띠를 풀어놓구 돈벌이를 해보겠다?!》

《아니, 무슨 말씀을...》

《듣기 싫네. 그런 식으로 날 얼러먹은 작자가 어디 한둘인줄 아나? 이 줄콩은 아직두 허물이 많은 종이야. 그런데두 몰래 터밭에 심어선 콩소나기가 쏟아질것처럼 광고하면서 제 주머니를 채우려 하는자들이 있단 말이네. 임자속두 뻘해. 가계, 냉큼 사라지란 말야!》

미처 어쩔사이도 없이 윤웅만을 대문밖으로 몰아낸 로인은 절걱 하고 빗장을 질러버렸다.

《허허허...》

윤웅만은 컴컴한 행길가에 혼자 남아 허파 빈웃음을 터뜨렸다. 난데없는 도적으로, 돈벌이군으로 치부된 자신이 기막히고 민망스러워서였다.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 전쟁로병에 대한 존경심과 어우러진 의혹이 더더욱 끓어올랐다. 사회와 집단의 떠받들림속에 편한 말년을 즐길 권리가 있는 로병이 왜 굳이 뼈를 깎는 과정이라고든 하는 어려운 육종사업에 뛰어들었는지, 도대체 학력이나 가지고 시작했는지, 더구나 한사코 재배를 거부하도록 방해하는 그 《허물》이란 어떤 것인지?...

마지막지하전동차마져 놓치고 보통강구역에 있는 집까지 먼 밤길을 터벌터벌 걸어오는 사이 윤웅만은 이상하게도 자신과 줄콩이 어떤 뉘수 없는 인연으로 얽혀질듯 한 피이적은 예감이 드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윤웅만의 우려와는 달리 처녀연출가 송련아는 사뭇 공경하는 기색으로 리재준의 집에 들어섰으며 방안 벽체에 길게 가로 걸려있는 줄콩표본앞에서는 격정에 넘쳐 소녀같은 탄성을 내뿜었다.

《어마! - 저게 정말 콩이 맞긴 맞아요, 예?》

바람같이 달려가 콩대를 어루스르는 처녀의 눈이 불꽃처럼 반짝였다. 이어 약간 무안쩍어하며 집주인을 돌아보았다.

《이걸 하나... 까봐도 될가요?》

아무래도 그속에 정상적인 콩알이 들어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리재준이 너그럽게 고개를 끄덕이자 송련아는 덤벼치며 콩꼬투리를 찢다. 순간 알이 좀 굵을뿐 어느 콩과 꼭같이 생긴 노린 콩알들이 좌르륵 튀어나와 장판바닥에

굴렀다.

《아이!-》

송련아는 급히 그것들을 주어 이쪽저쪽 돌려보고 살근히 깨물어보기까지 한 다음 입술을 뽀조름히 내밀고 콩대에 달린 꼬투리수를 열심히 세어보기 시작했다.

윤웅만과 리재준은 눈길이 마주쳤다. 그들로서는 너무도 잘 아는 꼬투리수였다. 그러나 마침내 송련아의 입에서 《천삼백칠십구!》하는 부르짖음이 터졌을 때에는 둘 다 가슴이 쿵 울려 호흡마저 가빠졌다. 남의 입으로 확인된 그 수자야말로 세상에 대고 웨칠 그들의 금지, 그들의 자부심인 것이었다.

송련아는 그들쪽으로 발짓하게 상기된 얼굴을 돌리고 부르짖었다.

《이건 하나의 기적이예요. 기적!... 전 결심했어요!》

송련아는 그날 종일 리재준에게 딱 붙어 줄콩 육종과정을 미주알고주알 깨물었고 그 모든것을 수첩에 적어넣었다. 나중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집울타리둘레의 콩구멍이에 거름묻는 일까지 거들어나섰다. 극력 만류했으나 처녀는 오히려 노여움을 썼다. 연출가가 아니라 보통국민으로서도 줄콩에 땀 한방울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터밭에서는 시종 그의 랑랑한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황혼무렵 윤웅만과 함께 퇴근길에 올랐을 때 송련아는 무언가 골똘한 생각을 더듬는듯 입을 꼭 다물고 걸음만 옮겼다. 윤웅만은 저으기 걱정스러워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줄콩에 무슨 결함이라도 있어서 난감해진 건 아니요?》

《아니, 안예요!》

처녀는 황황히 도리질했다. 그다음 결심한듯 윤웅만을 곧바로 쳐다보았다.

《솔직히 말씀해주시겠어요?》 마침내 처녀가 속삭였다. 《여태 전...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인생의 성공을 꿈꾼다고 믿어왔어요.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왔다는 어떤 금지높은 자취랄까... 저만 봐도 연출가로서의 뚜렷한 성공을 위해 제나름으로 몸부림쳐보거던요. 그런 의미에서 재준선생님은 행복한분이에요. 줄콩이라는 희귀한 창조물로 인생을 장식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의 이름을 빛내이는데 공헌한 선생님 자신의 몫은요?》

윤웅만은 흠칠 몸을 떨었다. 3년세월 리재준을 도와 사심없이 뛰여다니면서도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못한, 아니 한사코 생각지 않으려 했던 문제를 처녀연출가가 꼬집어 물은 것이었다. 당혹감으로 그의 걸음은 절로 멈춰졌다. 나의 몫!... 정말 년로보장자로서 이제는 한생을 마무리했다고도 볼수 있는 자기의 삶을 과연 성공적이라고 자부할수 있겠는가?

## 2. 나의 로병들

...년로보장으로 집에 들어앉았을 때 윤웅만은 좀 어리둥절했었다. 직장생활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들볶기 시작한 것이었다.

첫 방문객들은 장기며 낚시질의 세계에서 여생을 흥겹게 보내는 로인들이었다.

《운동무, 공지를 가지오.》하고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함께 모시고 찍은 윤웅만의 기념사진과 수령님의 표창장을 경건히 더듬으며 말했다. 《저렇게 한생을 부끄럼없이 살아왔겠다, 세 자식 모두를 끝까지 키워 사회앞에 내세웠겠다, 이젠 편히 머리심, 팔다리쉽할수 있지.》

그리고는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덧붙이곤 하는 것이었다.

《그게 바로 우리 세대가 아니겠소!》

《금지》의 첫 조항은 물론 윤웅만의 자부심이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둘째 조항은 아직 미래와의 약속일따름이었다. 대학을 나온 두 자식은 각기 자기 초소를 차지했으나 나라앞에 해놓은 일이 별로 없고 막내는 아직도 대학재학중이니... 약속만을 두고 공지를 느낄수야 없지 않는가.

다음방문객들은 보다 실천적인 사람들로서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부 지구물리탐사과(당시)를 졸업한 윤웅만의 머리심을 결코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즉 그자신이 오래전부터 연구해오면서 별러왔으나 기회를 못 만나 실현할수 없었던 새로운 지구물리탐사법으로 금이며 보석류의 매장지를 정확히 탐측하는데 손건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끈덕진 성화에 한번은 황해도쪽의 한 광산에 끌려가서 보석의 광상위치며 질, 함유량 등을 시추나 탐사굴진과정도 거치지 않고 제격 모형화 해주었더니 그곳 지배인은 윤웅만의 손을 잡고 뉘주려 하지 않았다.

특별대우를 해줄테니 놀러앉아 함께 일해보자는 것이었다.

유혹적인 제의가 아닐수 없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년로보장은 일생동안 꼭 해보고싶었던 개인적소원을 풀 기회》인셈이니 자기야말로 금탐사가 오랜 꿈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때 윤웅만에게는 보다 현실적인 다른 일감이 주어져있었다. 평양음악무용학원 무용연구사인 안해가 자기 한생의 체합에 기초하여 쓰려고 하는, 조선현대무용발전에 바쳐진 백두산3대 장군들의 령도업적과 그 손길아래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긴 무용대가에 대한 장편실화집필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무용배우출신으로서 부교수에 학사학위까지 받은 안해였지만 기자정력을 가진 남편의 필력에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처음으로 리재준을 만나고 쫓겨온 날 밤 윤웅만의 눈에 제일먼저 띄인 것이 바로 책상 가득 널려있는 그 원고지들이었다. 먼길을 걸어와 몸이 피곤했지만 그는 거의 기계적으로 책상앞에 마주앉아 펜을 들었다. 그러나 눈앞에 대짜배기 줄콩이 자꾸 얼른거려 도무지 글이 나가지 않았다. 한포기에서 1키로그램은 수확할듯싶은 놀라운 줄콩의

경제적효과성이 어떤 《허물》때문에 도입못된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상태를 남의 것이라는 리유로 그냥 용납해야 하는가?...

그때 따뜻한 손이 어깨에 얹혀졌다. 잠을 깬 안해가 소리없이 등뒤로 다가온것이였다.

《그 줄공인지 뭔지를 구경하셨수?》

윤웅만은 우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끝에 안해가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이번엔 농사군이 되겠구려.》

윤웅만은 어깨를 떨었다. 안해가 자기의 마음속 파문을 어느사이 뻥히 읽어낸것이였다. 그것이 윤웅만의 화를 돋구었다.

《아니, 안될 말이요. 젊어 한때라면 몰라라 후회할 여유도 없는 늙마에 또 좌왕우왕하겠소? 안그러겠소. 정말이요! ...하물며 이 원고집필이야 우리 부부가 세상에 남길 유일한 흔적으로 될것인데!》

《모르겠어요. 당신이야... 시장할텐데 식사나 하시우.》

《무슨 소릴, 후하게 대접받고 왔소!》

그러나 침대에 누우니 배가 고파 잠잘수가 없었다. 설사 밥을 먹는대도 자기가 자지 못하리라는것을 윤웅만은 알았다. 번거로운 생각들에 회오리쳐와 그의 두눈은 갈수록 초롱초롱해졌다. 《안그러겠소. 정말이요!》 하고 자기는 잠전에 다짐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맹세를 버리지 않겠는지...

다년간의 군사복무를 마치고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윤웅만은 3대혁명소조원으로서 무산광산에 파견되였었다. 70년대초였다. 거기서 그는 참을수 없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무산에서 김철까지의 250리 철도수송과정에 술한 정광이 불비한 화차잡으로 홀러떨어져 철길자갈과 뒤범벅이 되고있었던것이다. 그 류실량을 집계해본 1년간의 총합이 상상을 초월하는 통에 심장이 멎는듯 했다.

광산일꾼들은 의분에 몸을 떠는 젊은 소조원앞에 딱한듯 두팔을 벌려보였다.

《우린들 어찌겠소. 아무리 항의해도 화차주인인 철도사람들이 영 절벽인걸!》

철도에서는 오히려 분개하여 맞받아소리쳤다.

《김철차차장의 전복장치를 가렸소? 하루에도 몇량의 화차는 노상 망가뜨리오 그걸 수리할내기 우린 밀천을 다 놓치는 판이요. 그런데도 김철에선 류실된 정광만큼 벌금을 내라고 제편에서 절고드오, 제편에서!》

지구물리탐사라는 매혹적인 세계에 심취되어 인생을 깡그리 기울이리라 포부도 컸던 윤웅만이였지만 승부가 나지 않는 이 무책임성과 본위주의의 술래잡이에 맞다들자 분노를 금할수 없어 자기 한몸을 철도를 향해 도화선처럼 태우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철도부와 금속공업부(당시)에 항의통보서를 냈고 책임일꾼들의 사무실들에도 주저없이 뛰어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드디어 윤웅만은 한 공민으로서, 당원으로서 자기가 가장 책임적인 시각을 맞이했다는것을 절감하고 책상앞에 정중히 마주앉았다. 그앞에는 당중앙위원회앞으로 쓸 깨끗하고 하얀 편지지가 놓여있었다.

그리하여 윤웅만의 운명은 첫 급전을 하게 되었다.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으로 6월4일차량공장에 파견된 그는 오랜 로동자들의 방조를 받으며 《정광보온난방화차》라는 전혀 새로운 전용정광화차를 설계하였고 단 두달만에 36량전부를 제작하여 철도에 넘겨주었다. 지질전문가가 철도설계가로 된셈이였다.

이 사건은 윤웅만의 다음번 운명급전도 조건지어주었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그의 편지의 예리함과 담대한 론조에 주목하여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였다.

윤웅만은 별로 망설이지 않았다. 정광화차사건을 통하여 아직 우리의 일부 일꾼들에게 적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출관물이라는 위력한 수단으로 거기에 불을 걸지 않으면 안되리라는것을 절감하고있던 참이였기때문이었다.

썩 후 나이가 지긋해서야 어느 한 지도국 기술준비소 소장 즉 지질학가까이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그것도 따져보면 자기의 꿈에 대한 미련이라기보다 어떤 사회적절박성에 직면하여 거기에 뛰어들지 않고는 못배기군 하는 타고난 감질의 충동때문이라고 할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은 절대로 안돼! ... 어둠속에 누운채 윤웅만은 여전히 눈앞에 얼찔거리는 줄공의 불가사의한 형체를 지워버리려고 애쓰며 거듭 속다짐했다.

이튿날 그는 종일 책상에 마주앉아 원고집필에 몰두했다. 아니, 필사적으로 거기에 매달렸다.

저녁에 퇴근한 안해는 무뚝히 쌓인 원고지를 보고 감동되었는지 국수를 받아온다, 닭알부침을 한다 수선을 피웠다.

《쉬엄쉬엄 하시우. 하루새 불이 훌쩍해졌수다.》

그때 안해는 남편의 의지가 그 하루로 동이 났다는것을 몰랐다. 다음날 안해가 출근하기 바쁘게 윤웅만은 끝내 펜을 집어던지고말았다. 리재준을 만났던 그 숙명적인 밤에 줄공은 이미 그의 뇌리속에 깊이 뿌리박고 시간마다 왕성하게 자라기 시작한것이였다. 이제는 더이상 자신을 그만할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는것을 그는 알았다.

한시간후에 윤웅만은 이미 리재준의 집마당에 들어서고있었다. 공교롭게도 리재준은 집에 없었다. 전날에 순안쪽의 개인시험포전으로 나갔다는 것이였다. 그의 체소한 부인은 밤중에라도 돌아온다던 령감이 중무소식이라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전쟁때 부상자리가 또 도지지 않았는지... 그후자로 하반신마비까지 왔던 령감이라우...》

부인의 이야기로 윤웅만은 리재준이 해방후의 첫 보안서원중의 한사람이였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정찰소대장으로서 유명한 팔공산전투보장을 위한 적구정찰과정에 중상을 당했었다는것을 알았다.

그 상처의 여독이 70년대에 들어와 하반신마비로 번져졌는데 그것은 오히려 리재준으로 하여금 육종학에 대한 호기심과 애착을 자래운 계기로 되었다고 한다. 적십자병원의 같은 호실에 식물학자가 입원해있었던것이다. 그 학자를 통하여 리재준은 육종학의 오묘하면서도 신비스러운 힘을 알

게 되었으며 변변치 못한 자기 육체에는 그 세계가 사회를 위해 가장 착실히 공헌할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퇴원후 그에게 모란봉구역인민보안서의 비교적 편한 직무가 차례졌다. 옛 보안서원이며 정찰군관이었던 그의 경력도 고려한, 그러되 몸을 돌보라는 일종의 배려였다. 하지만 리재준은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작물육종에 대한 어떤 사명비슷한것을 수행하는 기회로 효과있게 리용하지 않는다면 최악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처음엔 호박을 주물기 시작하더니 저 지붕의 기와장만 잔뜩 깨먹구 췌던집이다. 진짜 해볼만 한건 콩이라면서... 우리 수령님교시에 그렇게 가르쳐져있다는거였수. 그때 보안서에서 덩실한 새 다충살림집을 배정해줬는데 령감이 어디 갈 궁리를 합디까. 콩교잡을 하자면 꼭 리발달린 단충집이어야 한다는거였수. 늬마에 무슨 도깨비한테 흘렸수 하구 앙탈두 부러봤소만 몇년간 역사질끝에 줄기잡 한대가 그래두 덜컥 불습디다. 그날 령감이 몹시 울던걸 생각하면... 그제 벌써 10년전이라우.》

10년! ... 윤웅만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아픈 같은것이 심장을 옥죄었다. 온 나라를 줄콩술으로 뒤덮게 되었다는 환희에 목매여 흐느꼈을 재준아바이, 그럼에도 어이하려 10년세월이 흐르도록 자기의 창조물을 세상에 내놓지 않고 어떤 《완성》을 위해 계속 모지름쓰는것인가. 향차 총상으로 인한 육체적피로움에 로쇠까지 겹친 몸을 이끌고?!...

리재준은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불편하게 다리를 끌며 나타났다. 윤웅만은 그의 두 눈확이 똑 끼치고 어떻게 별에 탄 얼굴에는 소금버께가 한 벌 돌아오른것을 보았다. 무엇보다 침울하게 흐려진 그의 안색이 나들이결과가 신통치 못했음을 짐작케 했다.

세면을 하고 점심을 받을 때까지 리재준은 입을 꼭 다문채 윤웅만을 쳐다보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윤웅만이 미리 준비해온 술을 부어주어서야 허연 상고머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동문... 돈벌이나 하자는 놈쟁인 아니라는거겠소?!》

《예, 예!》리재준이 이틀전날밤의 《불청객》을 톡 톡히 기억하고있는것이 무등 반가와 윤웅만은 한 무릎 다가앉으며 성급히 말했다. 《제 아바이를 도와 줄콩보급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실현하자는겁니다!》

《요란하군!》

리재준은 진짜 요란하게 코바람을 내불었다. 그러면서도 술깃한데는 있는지 눈섭을 종긋 들어올렸다.

《그래 어떻게?》

《예, 그런 문제는 제 좀 아는데 우선 이 줄콩을 <품비> (국가농작물품종비교시험위원회)에 등록하는게 기본입니다. 그다음엔 농업성의 해당 부서들을 차례로 납득시키는 방법으로 생산포전들에... 물론 까다로운 공정이지만 제게 줄이 좀 있어서 능히...》

처음 성수나서 시작한 말이었으나 윤웅만은 차츰 자신없어져 나중에는 톡 끊고말았다. 리재준의

입귀가 점점 실그러지면서 거기에 로골적인 비웃음이 떠오르는것을 발견한것이였다.

《줄이 있다!》아닐세라 리재준이 픽 웃으며 내뱉었다.

《이것 보게, 난 줄이 없어두 너무 찾아와서 성화일세!》

《예?》

리재준은 등뒤의 장식장서랍을 뿔고 그속에서 한묶음의 서류를 꺼내여 쑥 내밀었다.

《자, 어서 보게!》

그것은 몇해전에 발급받은 《품비》의 《새품종 및 선진영농기술등록》증서와 발명권, 안주시의 어느 한 농장에서 3년간의 시험재배끝에 정보당 열톤이 훨씬 넘는 평균수확고를 담보해온 확인서 그리고 한덕수경공업대학 종합분석소가 보내온 일반콩에 비한 《줄콩3호》의 우월한 영양성분분석표 등등이였다.

윤웅만은 낫이 뜨거워졌다. 이미 농업성에서는 구태여 자기의 《도움》이 없어도 줄콩의 가치를 포착하고 그에 대한 과학적검토와 대대적인 재배방도를 모색해온셈이였다. 그러니 희떠운 소리를 탕탕 한 자기를 리재준이 어찌 비웃지 않으랴.

다음순간 윤웅만은 반발심이 욱 치밀어올랐다. 그렇다면 육종가당자인 리재준은 어찌하여 나라의 그 조치에 응하지 않았는가. 왜? ... 그는 저도 모르게 저고리앞섶을 잡아챘히며 격하게 소리쳤다.

《이거야... 최악이 아닙니까? 우리 장군님께서 콩농사를 얼마나 중시하시길래...》

《최악?!-》

리재준이 핵 머리를 돌렸다. 그의 눈에서 평갯불찌같은것이 튀었다. 그는 주먹을 부르르 떨더니 ... 불시에 고개를 맏없이 떨구었다.

《그래, 최악이지...》한참만에 그가 신음처럼 웅얼거렸다. 《어제... 순간에 갔더니 줄콩들이 죄다 자빠졌더군. 겨우 너덧톤이나 날런지... 키가 너무 커서 매 콩대마다 받침목을 세우고 비끄러매주지 않으면 안되는걸... 그렇게 술한 자재와 품이 드는 부실한걸 장군님께 보여드린다면... 최악이구 말구요!》

그랬었구나! ... 윤웅만은 아프게 혀를 깨물었다. 이렇듯 놀라운 수확을 내는 줄콩을 육종한것으로 하여 리재준은 영웅으로 떠받들리울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는 손쉽게 가꾸면서도 가장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는 작물이야말로 우리 장군님의 참다운 기쁨이 될수 있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그 모든 명예를 한사코 뿌리쳐온것이다!

기실 포기마다 받침대를 세운다면 정보당 수만대의 받침목이 들것은 자명한데 그것은 대포로 참새를 잡는것과 다를바 없다. 리재준의 고민과 몸부림은 바로 여기에 있을것이다. 하다면 우리 인민이 민족적향취가 넘치는 풍성한 식탁에 매일 같이 마주앉을 행복의 순간은 언제 오겠는가?

참을수 없는 안타까움에 윤웅만은 리재준의 팔목을 부여잡았다.

《재준아바이, 무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줄콩을 떨기나무처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건데... 방도가 영 없진 않겠지요?》

리재준은 후- 한숨을 내쉬었다.

《떨기나무같이! … 그렇게, 내 몇해째 시약처리법으로 종자를 개량해보자고 애써오네만 그 방면엔 지식도 받고… 몸도 자꾸 무거워져 힘겹구만.》

《시약처리요?!》

느닷없는 흥분이 윤웅만의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다.

머리속으로 언뜻 회토류원소로 종자를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착상이 스친 것이었다. 회토류원소란 란탄, 세리움, 스칸디움 등 그 화학적성질이 비슷한 희유금속류로서 특이한 활성때문에 농학에서도 널리 쓰이는터였다.

《이것이다!》 하고 무엇인가가 그의 귀에 대고 열심히 속삭였다. 《해보라. 줄콩은 바로 지질학전문가인 너를 찾아 운명적으로 결합되려하고있는 것이다!》

윤웅만은 지어 두렵게까지 여겨지는 성공의 예감에 몸을 떨며 떠듬떠듬 부르짖었다.

《절…절 믿어주십시오. 제 아바이의 조수가 돼서… 손발이 돼서 힘껏 뛰렵니다. 힘껏!》

… 얼마후 대어섯키로는 실히 될 줄콩종자를 둘러멘 윤웅만은 부리나케 광복거리로 가는 지하전동차에 뛰어올랐다. 조선로동당출판사시절의 옛상급이었던 려인봉로인을 찾아가 그와 함께 자기의 새 계획을 내밀어보자는 것이었다.

려인봉 역시 70대의 전쟁로병으로서 당의 기초축성시기 당과 국가의 중요직책에서 일한 경력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후 조선로동당출판사 기자생활을 거쳐 년로보장을 받은지 10년이 넘었으나 려인봉은 지금도 일손을 놓지 않고있었다. 윤웅만이 도착했을 때 려인봉은 방안가득 각종 잡지며 도서들을 벌려놓고 뒤적거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소일삼아 국제문제연구소에서 부탁해온 자료를 뽑아보는 중이라 는 것이었다.

그는 미처 숨도 돌리지 않고 쏟아놓는 윤웅만의 토설에 묵묵히 귀를 기울이더니 줄콩종자를 한줌 집어내어 창문의 해빛에 비쳐보고 흠흠 냄새도 맡아보기 시작했다. 그의 두눈이 능청스럽게 쏘르졌다.

《함께 농사군으로 둔갑해보자?! 역시 윤웅만다운 제의인데…흠, 나도 줄콩소린 좀 얻어들었네만 확실히 알이 굵군.》

《그래 어찌겠습니까?》

《이사람, 뭘 자꾸 따지나?》 려인봉은 장대한 몸집을 흔들며 쫓 혀를 찼다. 《내가 이젠 다 늙었다구 귀머거리에 장님까지 된줄 아나? 우리 장군님께서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기초식품공장들을 수없이 일떠세워주시는거랑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적마다 콩농사를 잘하는데 대해서 특별히 기뻐하시는거랑 나두 다 보고듣고있네. 지금껏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생해온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운택하게 하시려고 말이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장군님의 기쁨이지. 그것이 바로!》려인봉의 주름도 얹힌 눈가에 그렇하니 눈물이 고여올랐다. 모름지기 장군님을 가까이 모시고 일하던 때의 감격이 되살아올랐으리라.

《아마 그 재준이라는 량반두 그래서 이 줄콩을 애써 육종해내게 아니겠나!》

《그러니 찬성이란 말이지요?!》

윤웅만은 려인봉의 손을 덥석 움켜잡았다. 눈굽이 시큰해났다. 아, 나의 장한 로병동지들!

《이거 손은 왜 비트나? 놓으라구, 와! 그렇게 덤비는걸 보니 장권실화집필인지는 또 뒤전에 밀어놓을 잡도리군, 웅?!》

불쑥 저으기 우쭐한 생각이 윤웅만의 머리에 떠올랐다. 거의 일생동안 때없이 화를 돋구곤 해온 자기의 감질이 단순히 무모한 호기심의 충동만은 아니었다는, 바로 이런 전쟁로병들의 훌륭한 마음갖춤새에 자신을 따라세우려는 웅당한 지향이었다는 기분좋은 발견에서였다.

《허- 부장동지도 이 소일거리를 젖혀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젖혀놓겠나, 늙은이에게 일감이 자꾸 덧쌓이는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다구. 늙재두 더 늙을사이가 없게 될게거든.》

둘은 허리를 젖히고 개운하고 후련하게 웃었다. … 그것이 벌써 거의 3년전 일이었다.

### 3. 갑작변이에 대한 연구

만경대구역당위원회에서는 이미 두해전 봄에 윤웅만네들에게 칠골농장 남새반의 한 비경지를 시험포전으로 리용하도록 해주었다.

윤웅만이 려인봉과 함께 종일 그 포전을 갈아엎고 파종까지 하느라고 어두워야 집에 들어서니 전화기가 자지러지게 울어대고있었다.

《아이, 윤선생님이세요?! 제 송편아입니다!》

몹시 지쳐있던 윤웅만은 대뜸 정신이 벼쩍 들었다.

수화구에서 흘러나오는 처녀의 목소리가 그토록 샘물처럼 맑았던 것이다.

《몹시 기다리셨지요? 그동안 없는 재간에 영화대본까지 완성하느라고 어디 결눈팔새가 있더라구요. 오늘 상급기관에서 〈생산성이 높은 줄콩3호〉라는 과학영화촬영을 정식 비준받았어요!》

윤웅만은 심장이 쿵 들뛰었다. 줄콩이 드디어 세상빛을 보게 된 것이었다. 송편아가 그 모든 일을 단 닻새만에 해제친 것이다. 연출실장의 《재기 있는 연출가》라는 평정이 이제야 실감되었다.

《고맙소!》 윤웅만은 목이 메어 말이 잘되지 않았다.

《정말… 고맙소. 연출가선생!》

《호, 아직 치하받긴 일러요. 농업성이 동의해야 촬영을 시작할수 있으니까요.》

《그건 걱정마오. 아무렴 〈품비〉가 공식 국가품종으로 등록하고 일반화하려던 작물인데!》

《그럼 래일 아침 농업성에 나와주시겠어요? 바쁜 일이 없다면 말예요.》

《나가구말구 꼭 나가겠소!》

물론 래일도 계획된 일은 많았다. 오전엔 려인봉과 함께 평천오수정화장의 놓고있는 침전지채독을 일쿠기로 약속했고 오후에는 만경대유희장관리소의 초청에 따라 줄콩재배강의를 해주어야 했다. 그뿐이라, 전화나 편지로 종자를 부탁해오거나 직접 차로 《모셔》가겠노라 생역지를 쓰는

단위만도 수십여곳이 되는데 미처 몸뻔 여유가 없어 일일이 들어주지 못하고있느터였다. 하지만 영화는 그 모두를 미루고 사절해치워도 될만 한 가치가 있는것이다!

그날밤 윤웅만은 오래간만에 원고지와 마주앉았다.

과종계절을 맞아 최근에는 거의 손을 못 대본 원고였다.

무용으로 세상에 이름날리고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아온, 그래서 더더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잊지 못하여 자주 회고하시는 행운아, 실화의 주인공은 분명 성공한 인간이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 한 인생을 산것이었다. 하다면 인생의 성공기준은 무엇으로 볼것인가?

불쑥 두해전 봄 처음으로 거름짐을 지고 나섰을 때 아들며느리들이 간청하던 말이 생각키웠다.

《제발 빌어요. 남들이 우릴 뭘로 보겠어요? 이만큼 키워주고 살림까지 펴주었는데도 부모님을 돌보지 않아 터발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고, 불효막심하다고 욕할텐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다녀요?》

그래도 제대군인 막내만은 씨먹은 소리를 했었다.

《형님들, 형수님들, 아버지가 남의 연구를 성공시켜준다고 더 속상해하는게 아니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들의 식탁에 콩음식이 푸짐히 오르면 제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바로 그 기쁨을 더 크게 해드리려고 나선거예요!》

그랬다. 단지 그뿐이었다. 하지만... 이밤 윤웅만은 지금껏 가져보지 못한 야릇한 서글픔, 즉 자기 인생이 실화의 주인공처럼 만사람에게 찬탄과 부러움을 자아내지 못하리라는 새삼스러운 비교가 가슴을 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스스로도 창피하게 여겨지는 리기심이었다.

기실 그사이 윤웅만은 여러 회로류금속들로 시약처리한 종자를 시험재배하는 복잡하고 정교한 공정을 거침으로써 마침내 한해만에 회로류금속의 활성작용에 의하여 변이된 대가 실한 줄콩개체를 얻어내는데 성공하고야말았다.

그때 그는 낮으로 땀수 없어 도끼를 들고나선 러인봉을 부둥켜안고 울먹울먹 부르짖었었다.

《우리가 끝내... 해냈지요? 이젠 재준아바이도 이 줄콩을 장군님께 보여드리는걸 마다하지 않겠지요, 예!!》

장군님께 보여드린다!... 바로 그 아름다운 행복을 위해 온 한해 아글타글 뛰여다닌 그였다. 무엇인들 안했으랴. 회로류금속들의 각이한 특성과 생체에 주는 영향을 해명하기 위해 뒤져본 문헌자료는 얼마며 시약주입량을 확정하려고 벌려놓은 십여개소의 시험포전들을 두지고 가꾸며 흘린 땀은 또 얼마... 한번은 회로류금속이 특별히 많이 함유된 어느 광산의 버럭들을 지고오다가 광물질취자로 몰려 그곳 보안서에 단속되었던적도 있었다.

그래도 억울하기는커녕 자랑스럽기만 했던 자기, 헌데 이밤엔 왜 마음속에서 줄콩의 완성은 리재준의 영예일뿐이라는 속물같은 저울질이 시작된것인가? ... 이튿날 농업성을 찾아가셨을 때 윤웅만은 전혀 뜻밖의 또 새로운 타격을 받았다.

담당부상이 부재중이어서 대신 나타난 담당국장은 그들의 소개를 듣자 금시 낮을 흐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공교롭게 되었군요, 공교롭게! ... 어쨌든 들어갑시다.》

자기 사무실에 들어서는 길로 국장은 서류함을 열고 《품비》가 작성한 지난해 황주군 어느 한 농장에서의 정밀시험자료를 꺼냈다. 지난해 봄 윤웅만이 《떨기나무화》된 새 종자를 검토해줄것을 의뢰한 후 농업성에서 적극 나서서 포치한 시험재배결과보고서였다.

그것을 읽어내려가는 사이 윤웅만은 지기의 피가 온통 얼굴로 쏠리는것을 의식했다. 서류를 든 손이 푸들푸들 떨렸다. 줄콩이 《황주10호》라는 콩보다 대당 꼬투리수며 꼬투리당 알수, 정보당수 확량 등이 켜 낮은것으로 평가되어있었던것이다. 대충 심고 가꾸어도 어느 콩들의 배이상은 쉽게 거두는 줄콩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했길래?

《이건... 날조요!》 윤웅만은 숨이 막혀 킁킁 개키며 소리질렀다. 《터무니 없는 조작이란 말이요. 그래 국장동문 이걸 직접... 직접 확인해봤습니까?》

《진정하십시오. 우리 뭐 이 자료때문에 속이 타지 않은줄 압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던거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농장에 재삼 알아보고 이 자료를 작성한 동무도 불러 따져물었는데... 그는 퇴화속도가 대단히 빠른 실용성없는 종자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외부의 자극으로 우연히 갑작변이된 특이개체가 하나 얻어지긴 했지만 유전자수준의 완전변이는 못된다는거지요.》

《우연한... 갑작변이?!...》

윤웅만은 머리가 휘 내둘러졌다. 그는 비칠거리다가 책상모서리에 옆구리를 짓쫓고 신음소리를 내었다. 그렇다. 단 1년만에 너무도 순조롭게 이루어진 줄콩의 《떨기나무화》, 그것이 정말로 우연한 갑작변이의 산물일수도 있지 않겠는가.

다음순간 윤웅만은 소스라치며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그럴수 없소. 난 못 믿겠소.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엔 못 믿겠단 말이요!》

어떻게 그 방을 뛰쳐나왔는지... 윤웅만은 반반한 포장도로에서도 자꾸 발을 걸터이며 경황없이 걸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토록 부실한 줄콩을 우리 장군님께 보여드리려고 과학영화까지 만들려는 자기는 얼마나 경솔하고 비렬한 인간이라!

《아유- 절 떼버리고 혼자 갈 작정이세요?》

등뒤에서 울리는 송련아의 숨찬 목소리를 듣고 서야 윤웅만은 놀래여 사위를 둘러보았다. 김일성광장복판이었다.

《이자... 어디로 간다구?》

윤웅만이 좀 어리둥절하여 되묻자 송련아는 호

호 웃음을 터뜨렸다.

《참, 선생님도 능청스러우시네. 제가 모르는줄 아세요? 지금 당장 황주의 그 농장으로 달려갈 결심을 하겠지요?! 하지만...》 처녀가 위협하듯 손가락을 끝추 세워들었다. 《절 때버릴 생각은 마세요. 아시겠어요?》 송련아의 가늘게 조프려뜯 두 눈에서 사뭇 흥겨운듯 한 미소가 해빛과 더불어 자글자글 끓고있었다.

《허허허...》

윤웅만은 비로소 시름없이 후련히 웃었다. 당장 황주행을 해야 하리라는 결심은 다름아닌 이 처녀가 세워준것이다.

...그들이 차를 타고 농장에 도착한것은 한낮도 펴기운 때였다. 농장사무실에는 애된 통계원처녀 한명이 방을 지키고있었다. 농번기라 모두 포전에 나간 모양이었다. 처녀가 간부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을 윤웅만이 놀려앉혔다.

《지난해에 줄콩을 어디에 심었겠는지 그거나 대달라구.》

《에- 그것 말이지요. 저기 뒤산 파수원속에...》 무심히 대꾸하던 통계원처녀는 흠칫 몸을 움츠렸다.

윤웅만의 험악해지는 얼굴을 띠어본듯 했다. 윤웅만은 이를 악물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송련아가 뒤쫓아왔다.

《선생님!》

《연출가선생은 쉬면서 땀이나 들이시오!》

마을뒤산 파수원길을 뚫는 윤웅만의 가슴은 걸음마다 부각부각 괴여올랐다. 줄지어 늘어선 사과나무들 사이에 드문드문 보이는 배여낸 줄콩그루터기들, 대의 굵기가 손가락두께를 넘는것이 몇대 안보였다. 나무그늘에 가리워 그이상 실해질수 없었으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했다. 게다가 이랑들에는 거름기도 거의 없었다. 애초에 주인다운 태도가 없는, 오히려 어떤 의식적인 태만이 엿보이는 것이 윤웅만을 분노케 했다. 여느 콩보다 비교할수 없이 크고 아지도 평장히 치는 줄콩에게 해가 잘 드는 비옥한 토양이 필요하리라는것쯤도 타산 못했던 말인가?

그를 더욱 아연실색케 만든것은 매마침 만년중년의 파수반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다. 지난해 봄 《품비》에서 비교시험을 하려고 내려온 부원이 이곳 일꾼들에게 줄콩보다 《황주10호》가 외국에서나 국내에서 더 파악이 있는 작물이므로 포전선택이며 비배관리에서 우선적인 관심을 돌려라고 했다는것이였다.

농장사무실로 되돌아온 윤웅만은 가슴을 두드리며 송련아에게 부르짖었다.

《우리 인민이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것처럼 훌륭하고 귀한게 어디 있다고 그따위짓을... 못 참겠소. 못참겠소!》

송련아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슬프게 속삭였다.

《정말... 연출가가 된게 한스럽군요. 기자였다면... 그랬다면 이런 너절한 행위를 때리는 맏잔 글을 쓰련만!》

그러더니 불시에 고개를 흔들며 방긋 웃었다.

《아니, 아니예요. 전 믿어요. 농업성에서도 이런 실태를 알면 꼭 불을 걸거예요!》

새벽이 다 되어서야 그들은 개성-평양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사이 윤웅만이 이웃군지경의 한 광산까지 가서 회토류금속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버력을 한배낭 지고왔기때문이였다. 종자처리시약을 값죽게 다량 생산하자면 함유량을 정확히 계산해보고 그 수송대책이며 추출방법 등을 미리 연구해뒀야 했던것이다. 그런 사연을 알아 송련아는 이번에도 부득부득 그를 따라나섰었다.

윤웅만은 차창턱에 엎드려 혼곤히 잠든 처녀의 얼굴을 점도록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련아야, 믿어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우리 인민의 땀과 지혜로 이루어진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것일지라도 소중히 내세우고 자랑해주신다는것을, 그 후더운 민족애의 넓은 품이 있어 우리 내외가 쓰는 장편실화의 주인공도 인생의 참성공을 이룰수 있었고 오늘은 《줄콩3호》가 역시 세상에 통장훈 부를 철두철미 우리의것으로 태어난것이 아니겠느냐!)

늦은 아침에 집에 들어서니 밥상우에 안해의 편지가 없혀있었다.

《어제 저녁 농업성부상동지와 국장동지 그리고 농업과학원 책임부원이 찾아왔었어요. 황주에서 웬 처녀가 성에 전화를 해서 경악할만 한 그 실태를 알게 되었다더군요. 리재준아바이랑은 먼저 만나봤대요. 당신이 돌아오면 과학영화촬영에 동의했다는것과 성적인 사업으로 내밀어주겠다는것을 꼭 전하랬어요!》

윤웅만은 급히 천정을 향해 고개를 한껏 젖혔다. 누구도 보논이 없건만 고개를 펴구면 부끄러운 눈물이 쏟아질것 같아서였다. 송련아가 어느 째에 전화를 했는지 전혀 알수 없었다. 줄콩처럼 길어 웬간한 바람에조차 휘친거릴거라고 저으기 애처롭게까지 보았던 처녀, 허나 따져보면 자기는 그라는 《지시대》에 더 많이 의지해오는셈이였다. 고마운 처녀!...

## 4. 노을비긴 들길에서

그해 8월말, 윤웅만은 유리창을 후려갈기는 소란한 비방울소리에 어설픈 잠을 깼다. 밖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무섭게 노호하고있었다. 평곳 번개가 일면서 새벽 3시를 가까이하고있는 벽시계의 바늘을 환히 드러냈다.

줄콩이 위험하다! ... 후닥닥 침대에서 뛰쳐일어난 윤웅만은 덤벼치며 옷을 주어입는 한편 비옷과 전지를 찾아 사방 더듬거렸다.

그찰나 방안의 불이 달각 켜지면서 안해의 근심스러운 목소리가 울렸다.

《칠월에 가보시려구요? 첫 퀘도전차가 뛰자면 아직도 멀었는데 어떻게...》

《간참말고 잠이나 자오!》

윤웅만은 덮어놓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자 즉시 태풍이 덮쳐들어 얼굴에 물벼락을 들쳐우고



찢어버릴듯 비웃자락을 나누어쳤다. 절로 헉-느끼게 되었다. 안해의 우러가 공연하지 않았다. 60을 넘긴 몸으로 이런 사나운 밤길 수십리를 헤쳐간다는것이 조런치 않은것이다. 하지만 새날엔 그곳 칠골농장 줄콩밭을 촬영하기로 되어있다.

눈앞을 무시로 캄캄하게 만드는 번개불 그리고 창살같이 쏟아지는 차거운 비발... 운옹만은 헉헉가쁜숨을 내뿜으며 천방지축 내달렸다. 불안으로 심장이 옥죄여들었다. 텔레비존에서 태풍예보를 듣기는 했으나 이렇듯 사나우리라고 짐작 못한것이 자기의 실책이었다. 과연 이 바람질에 줄콩들이 건디여낼것인가, 려인봉의 표현대로 아지만도 거의 20개나 쳐서 《피란면적》이 굉장해진 줄콩들이?...

푸릿한 새벽빛이 비길 무렵에야 운옹만은 온통 물참봉이 된채 기진맥진하며 다리를 끌며 포전에 달았다.

그때는 이미 비가 멎고 바람도 거의 숙어든 뒤였다. 그는 먼눈으로도 얼기설기 뒤엎기고 꺾어진 줄콩밭꼴을 알아보았다. 그래도 혹시 하던 한가닥 미련마저 끝내 찢어진것이였다.

운옹만은 눈앞이 아찔하여 발머리에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순간 치척에서 누군가의 감기든것 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괜히 왔군, 이 사람... 괜히 왔어!》

으스한 도랑가덕에 웅크리고앉아있는 곰처럼 시커먼 그림자, 여겨보니 려인봉이였다. 그의 옷이며 얼굴, 손발은 온통 흙탕에 게발려 말이 아니였다. 모름지기 태풍속에서 쓰러지는 줄콩들을 불안고 필사적인 몸싸움을 벌렸을것이다.

《부장동지!...》

운옹만은 그의 거울진 몸을 부여안았다. 통곡같은것이 끓어올랐다.

《이젠 어찌면 좋습니까. 예? 이렇게 허약한줄 알았으면 차라리... 차라리...》

《어찌겠나.》려인봉이 퍼렇게 질린 입술을 간신히 놀렸다. 《여긴 신통히 바람꽃이였는걸... 게다가 받침대들도 변변치 못했어.》

그것은 사실이였다. 울타리주위나 작은 터밭들에 심는 줄콩에는 받침대가 필요없었다. 하지만 넓은 면적의 주작농사에서는 우발적인 비바람에 대비하여 받침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박고 거기에 줄을 늘어 안전을 가해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그들 두 늙은이로서는 적지 않은 량의 그 받침대를 구하기가 조런치 않았다. 막부득하여 지난 5.1절에 비를 맞으며 룡산까지 걸어가서 겨우 부지깽이같은 나무단을 한집씩 짚어지고오는것으로 만족할수밖에 없었었다.

일손이 팔린데도 문제가 있었다. 첫해농사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사방에 벌려놓은 포전들을 모두 다루기 바빠 김가성의 로인 한명을 더 인입했었다. 그런데 그는 병약하여 드물게 나타났을뿐더러 그해 가을 수확한 콩을 나눠먹지 않고 전부 시험종자용으로 쓰자는 결정이 내려지자 의견이 있는듯 별로 좋지 않아하는 기색이였다.

우리는 그에게 얼마간의 콩을 내어주지 않을수

없었다. 김씨는 그날로 탈퇴를 선언하고 사라져버렸다. 결국 그들은 손포가 모자라 착실하게 줄콩관리를 할수 없었던것이다....

날이 밝자 리재준 역시 불편한 몸을 끌고 황황히 달려나왔고 해퍼진 다음에는 촬영기재를 실은 차와 함께 송련아와 촬영가, 농업과학원 책임부원도 나타났다.

엉망이 된 줄콩밭을 보고 누구보다 안타까와한것은 송련아였다.

《어쩌나, 왕성한 이 성장단계를 꼭 화면에 담아야겠는데!...》

《여기 말고 심은데가 많지 않나!》

촬영가가 위안하러 들자 처너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촬영가동진 연출대본을 어떻게 연구했어요?》

고개를 짓수그린 운옹만은 피나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도 잘 아는 송련아의 연출대본은 줄콩재배의 세가지 방식, 즉 넓은 면적에서의 완전한 주작농사,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 몇번 순을 쳐서 축산에도 리용하는 방식, 마감으로 개인집들이나 기관들의 울타리주변에 심는 터밭농사 등을 시청자들에게 정확히 주입할 목적으로 짜진것이였다. 이날의 촬영은 주작농사장면이였다. 그런데 그것이 튼것이다. 촬영가의 말처럼 만경대구역을 위시하여 평양시안의 여러 단위들이 다투어 줄콩을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대개가 기관담당들레나 크지 않은 공지들에 심은것들이여서 터밭농사범주에 속했다. ... 지방들에는 넓은 면적에 심은곳들이 여럿 되지만 거리도 멀뿐더러 이번 태풍에 건디여냈을리 만무였다.

마침내 운옹만은 리재준을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과학영화는 당분간... 포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모두의 경악한 시선이 그에게 확 쏠렸다. 운옹만은 피로움을 짓씹느라 한동안 어금이를 꼭 앓다물었다.

《재준아바이도 언젠가 말했지요. 뭔가 부실한데가 있는걸 우리 장군님께 보여드린다면 그건 죄악이라고... 그러니... 포기해야 합니다!》

리재준의 검스레한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운옹만은 그의 꼭 감겨진 눈귀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소리없이 돌아오르는것을 보았다. 리재준자신 오랜 세월 그런 립장을 지켜왔었으나 정작 완전성공이라는 환희의 절정에서 갑자기 굴러떨어지니 마음이 쓰라려난 모양이였다.

갑자기 송련아가 그들앞을 막아서며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안돼요. 전 싫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써 육종한거라고, 얼마나 굉장한 수확을 내는 품종이라고!... 뭐 포기한다구요? 너무 자신들을 학대하지 마세요. 전 보았어요. 이리로 오면서 태풍에 길나무들까지 여러대 뿌리뽑히고 꺾인걸... 보았던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찌면...》

처너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것 같았다. 다

행히 그때 농업과학원 책임부원이 모두의 앞으로 정중히 다가왔다.

《제존선생, 윤선생! 용서하십시오. 제 사실 지금껏 줄콩포전들을 여러곳 돌아다니며 그 재배방법을 과학화하고 체계화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우연이 선생들을 도왔을뿐이라고 시기했었는데 이젠... 진정으로 머리가 숙어집니다. 어떤 정신속에서 줄콩이 태어났는지를 깨달았던말입니다!》

《...》

《우리 이렇게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시교외에 있는 그 인민군중대부업밭을 찾아갑시다. 거기서도 줄콩이 쓰러졌다면 그땐... 이 선생들의 결심을 막지 맙시다!》

마지막말은 송련아에게 한것이였다. 처녀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길을 윤웅만에게 던졌다.

윤웅만은 여전히 어금이를 앙다물고있었다. 심장이 찢기는듯 한 모진 결단을 내렸었던 그였다. 그런데... 눈앞에는 역대우같이 요란한 체격에 목소리까지 결결한 그곳 중대정치지도원의 모습이 우뚝이 떠올랐다. 첫해농사를 시작했을 때 윤웅만은 몸이 불편한 리재준을 대신하여 시교외에 있는 그의 시험포전도 도맡아 다루었는데 거리가 멀어 자주 나가볼수 없었다. 그때 마침 그 정치지도원이 지나가던 길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캐묻더니 함마같은 주먹으로 팡 발고랑을 내리쳤다.

《됐습니다. 아바이! 이 포전을 우리한테 맡기십시오. 우리가 다 가꿔줄테니. 대신 다음해에 종자만 갈라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제의가 너무 급작스럽고 요란하기도 하여 윤웅만은 한순간 얼퍼름했으나 열기를 담고 빈틈이는 그의 눈을 보자 모든것을 깨달았다. 중대정치지도원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로 아끼시는 병사들의 먹는 문제가 풀릴수 있다는것이 너무 기뻐 그리도 흥분한것이였다.

중대정치지도원은 약속을 고스란히 지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콩을 거두어 윤웅만앞에 내놓았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중대부업밭에 전량 줄콩을 심기 시작했다.

그들이라면 재배기술지도서의 요구를 빈틈없이 지켰을것이고 이 래풍까지도 능히 이겨냈을것이다. 다름아닌 군인들이기에!

마침내 윤웅만은 결심을 돌려 책임부원의 손을 힘껏 잡았다.

《제때에 일깨워주어 고맙습니다!》

...촬영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농업성에서 직접 소형빠스를 내주었고 특히는 그곳 중대군인들이 단 한대도 피해를 입지 않은 무성한 줄콩숲을 그들앞에 펼쳐보인것이였다. 포기마다 거름을 듬뿍듬뿍 주어 대가 팔뚝처럼 실한데다가 발돌레를 따라 받침대를 든듯히 세우고 줄을 잘 늘어준 결과였다.

단 한가지문제에서만은 복잡성이 조성되였었다. 줄콩숲을 헤치며 환히 웃는 육종가의 모습을 화

면에 담아야 했는데 리재준이 딱 거절한것이였다. 그는 자기를 떠미는 윤웅만과 러인봉을 노력하며 무섭게 성을 냈다.

《윤동무, 날 뿔로 만들자는거요, 응? 가령...내가 로케트를 개발했다면 동무넌 그 비행거리를 연장하고 발사대까지 만든셈이요. 더 멀고 큰 목표를 정확히 때리도록! ... 싫소, 죽어두 혼자서 안 찍겠소!》

너무 요지부동이여서 윤웅만은 송련아한테 구원을 청하지 않을수 없었다. 연출대본단계에서부터 짜고든 일이라 처녀는 할수없이 밤새 비속에서 덩군 두 늑은이의 후줄근한 옷차림은 찍을수 없다고 위엄있게 선포했다.

《...이 영화를 어느분께 올리게 되는지 잘 아시지요, 예?!》

그럼에도 귀로에 오른 빠스안에서 윤웅만은 송련아의 그 마감말을 거둬 곱씹어보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 리재준은 우리 장군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될것이다. 《줄콩3호》의 육종가이니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다면 자기들은?...

저녁녘이였다. 차창밖으로 감빛노을에 물든 드넓은 벌이며 야산의 파수원들 그리고 줄지어 늘어선 아담한 문화주책마을들이 흘러가고있었다. 하루일을 마친 농장원처녀들의 청고운 노래소리도 들려왔다.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나라  
여기 내가 태어났고 자라나는 곳

무척 정성을 기울여 부르는, 하여 마음을 따듯이 휘저어주는 노래소리였다. 그럼에도 윤웅만은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무엇이 그네들의 매일같이 반복되는 농장일, 그래서 일견 단조로울수도 있는 삶에 환희를 부여해주는것일까?

불쑥 그는 차창으로 뵈 스키는 한 농가의 율타리에 눈을 주다가 차천정을 받으며 뛰쳐일어났다.

《세우시오. 차를... 잠깐만!》

미처 차가 멎기도 전에 윤웅만은 밖으로 뛰어 나갔다.

그의 시야에 농가율타리의 당콩대를 휘감아올라간 가늘고도 유별나게 긴 꼬투리들이 줄콩만큼이나 다닥다닥 매달린 처음 보는 식물이 확 안겨왔다. 그는 덤벼치며 그앞으로 달려가 주인에게 랑해를 구하는 레절조차 까맣게 잊고 성급히 꼬투리 하나를 찢다. 그러자 진붉은밤빛으로 반짝거리는 자그마한 《당콩알》들이 무려 여덟알이나 뺨꼭 들어찬것을 보았다. 생김이 팔 같았으나 팔이라기엔 알이 어방없이 컸다.

《아이, 알들이 굵기도 하네. 무어예요?》

어느사이 등뒤로 다가온 송련아가 눈이 둥그래서 물었다.

《글쎄... 혹시 이게 줄팔이라는데 아닌지...》

윤웅만은 제가 내뱉은 말에 스스로 흠칫 놀랐다. 정말 줄팔이라면 그것은 대단한 발견이 아닐

수 없었다. 언젠가 뒤적여본 《조선농작물실록》이란 책의 기록에 의하면 줄팔은 16세기경 평북도 중간지대에서 집단선발육종법으로 얻어냈는데 그 맛이 하도 감미로와 우리 나라의 특산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임금께 올리는 진상품에만 붙인다는 《대남언》이라는 요란한 이름까지 붙였겠는가. 문제는 그 줄팔이 근 백여년간 자취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점이었다.

송련아는 윤웅만의 설명을 듣자 손뼉까지 짝 올렸다.

《그럼, 이 줄팔도 온 나라에 퍼치자요. 우리 장군님께서 기뻐하시게요!》

우리 장군님께서 기뻐하시게!

뜨거운 것이 윤웅만의 가슴을 그들먹 채우기 시작했다. 아아 왜 이토록 마음 개운하고 흐뭇해지는 것인가!

빠스는 다시 살갈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또다시 올라오는 농장원처녀들의 노래소리, 윤웅만은 그곳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그네들이 단조로운듯한 삶에 시도 환희를 느끼는 리유를 알것 같았다. 이들뿐이라. 지하천적막장에 한생을 물고사는 탄부들이며 인적없는 산속에서 홀로 숲을 가꾸가는 산림감독원, 북방의 차디찬 얼음장을 까며 발전소언제를 쌓아올리는 돌격대원들... 그들모두가 궁지속에, 환희속에 즐기찬 삶을 이어가고있다. 왜냐면 인민의 재부를 늘여가는 일, 그래서 인민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일이야말로 우리 장군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것을, 그것이 자기들 인생의 참된 성공이라는것을 잘 알고있기에! ... 그러니 자기 역시 우리 장군님께서 친히 알고계시지 않아도 성공한 인생을 누린셈이 아니겠는가.

《윤선생님, 후회되지 않으세요?》

송련아가 귀전을 간지럽히며 은근히 속삭였다. 윤웅만은 처녀가 자기들이 과학영화화면에서 빠

진것을 두고 묻는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슬며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눈을 딱 감았다. 황홀한 저녁노을빛에 눈이 부셨던것이다. 이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이상하게도 자기네 로병조에서 탈퇴한 김씨로인을 우연히 만났던 일이 떠올랐다.

《날 용서해주게.》하고 그때 김씨로인은 어쭙게 말했었다. 《그날 임자들이 준 콩자루를 메구 집으로 갔더니 머느리가 콩알들을 한참 만져보구 비벼보구 하더니 말하더군. <아버님. 닭아잡술 생각은 꿈쩍 마시랴요. 이걸 몽땅 우리 공장에 내다 심어야겠어요!> 허허... 그래 지금은 머느리공장 줄콩고문으루 존대받구있네. 생각이 깊어지네. 이젠 임자들이 날 용서해줄가 하구... 헌데 그 용서 받는다는게 얼마나 마음 쓰라린 일이겠나!》

리해되는 말이였었다. 로년을 흔히 자연의 저녁에 비유한다. 더는 돌이킬수 없어 순간순간이 참으로 귀중한, 오직 아름다움으로만 채색하여야 할 타는듯한 시절이기에!

《노을이 참 곱지?》윤웅만은 대답을 기다려 말끄러미 쳐다보는 송련아의 시선을 의식하며 헛헛히 말했다.

《아름다워서 노을이라구 하지. 아름다워서!》

윤웅만은 그때 많은것을 내다볼수 없었다. 그로부터 몇달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과학영화 《생산성이 높은 줄콩3호》를 친히 보시고 텔레비죤으로 널리 방영하도록 해주시리라는것을. 그러시면서 전국의 모든 단위, 기관들에서 콩농사를 대대적으로 벌릴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까지 주시리라는것을!

그날 윤웅만은 어깨를 떨며 소리없이 울게 될것이다.

하여 마침 집필을 끝낸 장편실화의 원고지를 눈물로 적시게 만들것이다...

## 가사

# 인생의 재부

윤명수

누구나 인생의 머나먼 길을  
지식의 빛이 없인 갈수 없어라  
아 지식은 최대의 재부  
값높은 한생은 지식에 있네

배워야 혁명의 큰뜻 세우고  
알아야 조국위해 큰일을 하리

아 지식은 최대의 재부  
참다운 애국은 지식에 있네

불타는 정열로 배우고배워  
장군님구상을 꽃피워가자  
아 지식은 최대의 재부  
찬란한 미래도 지식에 있네

# 선군시대 장엄한 진군가에 비낀 시대의 숨결

-618건설돌격대 문학작품집 《백두산의 눈보라》를 읽고-

김정철

위대한 창조와 변혁으로 들끓는 선군시대에 618건설 돌격대 문학작품집 《백두산의 눈보라》가 시대의 장엄한 진군가로 울려 퍼지고 있다.

문학작품집 《백두산의 눈보라》는 그대로 선군 시대인간들의 삶과 투쟁에 대한 가장 열렬하고 진실한 역사적 반영으로서 위대한 생활과 투쟁의 창조자, 체현자들의 심장속에서 울려 퍼지는 선군 시대의 진군가이다.

우리는 시대의 장엄한 진군가를 들으며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더 억세어지고 강해진 이 땅의 위대한 숨결을 듣는다.

## 1. 선군시대의 숨결-시작품들에 관통된 서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사람들에게 대한 정치사상교양과 생활인식의 힘있는 무기로 될뿐아니라 문화정서교양의 좋은 수단으로 된다.》**

문학작품집 《백두산의 눈보라》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삶과 투쟁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높이에 올라서있는가를 예술적으로 확증하여주고 있다. 작품집을 읽으며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니고있는 사상정신세계에 뜨거운 감동을 받아안으며 열렬한 공감을 느끼게 된다.

618건설돌격대의 한 성원이 되어 혁명의 성지로 달려나온 수천수만의 심장속에 간직된 소원, 과연 무엇이 백두의 험준한 산발들을 헤치며 백두의 눈보라를 향하여 이 땅의 심장들이 달려오게 하였던가.

서정시 《간절한 마음》(송윤수 작)에 담겨진 서정적 주인공의 소박하고 절절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 한다.

오시였으면  
바람결 맑고 하늘 푸르른  
이런 날 좋은 때에  
우리 장군님 오시였으면

오시여  
우리 일떠세운 창조물을 보아주시며  
한없는 기쁨에 겨우시여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며  
선군길에 쌓인 피로 잠시라도 푸셨으면

너무나도 평범하고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솔직하고 진실한 이 소원속에 이 땅의 천만심장들의 간절하고 절절한 념원이 담겨져있는것으로 하여 서정시에서는 이러한 소원을 우리의 소원, 시대의

념원이라 부르며 더더욱 걱정을 터쳐나간다.

우리 어떻게 하면  
장군님 어깨우의 짐을 덜어드릴수 있고  
무엇을 바치고 쏟으면  
장군님 찬눈길 견지 않으실수 있으랴

아, 이 소원으로 해가 솟고 달이 뜨는  
백두전구의 날과 달이여  
천만가슴의 이 간절한 소원속에  
온 나라에 처마를 펼치며  
강성대국 새 마을이 빛뿌리며 일떠서고있어라

혁명의 성지 백두산을 빛나게 꾸려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불멸의 자욱을 아로새겨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조금이라도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그래서 장군님 어깨우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수만 있다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갈 그 일념이 618건설돌격대의 한 성원으로 이 심장들을 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오로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불타는 흠모의 마음이 강성대국건설의 거창한 사업에 산악같이 펼쳐나서게 하였으며 백두산의 눈보라속에서 백두의 아들딸로 억세게 자라나게 하였던것이다.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천만가슴의 심장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량식으로 삼으며 백두산의 아들딸들로 억세게 자라나 온 나라에 처마를 펼친 강성대국의 새마을을 일떠세웠다.

돌격대원들의 이렇듯 숭고한 정신세계를 펼쳐 보여준 여러편의 시작품들을 통하여 우리가 뜨겁게 받아안게 되는것은 다름아닌 자기의 령도자에 대한 그야말로 열렬하고 진실한 흠모의 세계이다. 자기의 령도자의 기쁨과 만족,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심장을 끓이고 기적을 창조하는 이런 열렬한 충실성이 618건설돌격대원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의 근본핵이며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달아 시대의 진군가를 높이 올리게 한 근본 힘이였다.

서정시 《백두산의 고향집》(량원삼 작)과 《눈보라 10리길》(박찬문 작), 《그날에 우리 산다》(강석필 작) 등과 같은 작품들을 통하여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렬하고 진실한 흠모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무치는 그리움의 걱정을 뜨겁게 느끼게 된다. 그러한 그리움은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과 로고에 대한 찬양으로 가슴깊이 새겨안아야 할 만년재보, 혁명의 유산으로 간직되며 더더욱 승화되어 흐르고있는것이다.

자기의 령도자에 대한 열렬한 흠모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그리움의 서정은 618건설돌격대원들의

가슴속에서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혁명정신으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 기적적인 투쟁과 그에 대한 환희와 더없는 희열의 랑만으로 격조높은 고조를 이루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렬하고 진실한 충실성. 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움을 안고 굽이치는 618건설돌격대원들의 열정과 랑만, 신심과 의지가 곧 그대로 백두산의 세찬 눈보라로 불어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우리 시대, 선군시대의 숨결이며 문학작품집 《백두산의 눈보라》의 모든 작품들에 관통되어 흐르는 서정이라고 우리는 말하게 된다.

시대의 숨결을 타고 작품집에서는 서정시 《백두산의 고향집》을 통하여 첫시작부터 장엄한 진군가의 격정을 더치고있다.

아, 통나무귀틀집은 낮아도  
21세기의 태양 예서 높이 솟아 빛나니  
내 나라의 그 하많은 고향마을  
이 집 지붕아래 다 모여있구나!  
세상 만민의 태양맞이 봄맞이  
여기 고향집뜨락에 축원의 꽃물결  
끝없이 끝없이 흘러드는구나!

이것은 그 어떤 시적대상에 대한 발견이나 예술적표현이기 전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와 칭송의 막을수 없는 분출이며 자기의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의 토로이며 격동인것이다.

618건설돌격대원들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수령 흠모심이 얼마나 열렬하고 뜨거우며 깨끗한 사상 감정인가.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기적과 위력을 과시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사람들이다.

서정시 《청춘의 기념비》(박은영 작), 《나는야 <함마처녀>》(공은실 작), 《공의 심장의 무게》(배현철 작) 등에서는 돌격대원들이 간직한 열렬한 수령흠모심이 어떻게 실생활속에서 나타나고있는가를 소박하고 진실한 생활세부들에 담아 노래하고있다.

눈뿌리 아득히 뻗어간 돌계단의 그 한계단한계단 돌에 위훈으로 청춘의 탑을 쌓아나갈 때 돌격대원들의 가슴속에는 장군님께서 기억하시는 청춘들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삶을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들로 차고넘쳐있었다. 그래서 청춘의 그 나이에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저저마다 자기를 두고 《함마처녀》라고 부르는 시대의 부름속에 어제날의 가수처녀가 청춘의 위훈을 새겨갔으며 샅샅마다 불꽃일던 혼식장에서 남몰래 손을 흔들어주며 사랑을 꽃피우던 청춘남녀들이 완공의 그날을 그려보며 순간의 주저와 동요도 몰랐던것이다. 백두성지의 날과 달을 위훈으로 빛내가며 다시없을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돌격대원의 가슴속에도 모든것을 오로지 백두산마을, 자기의 고향마을을 선군시대 선경으로 꾸릴 일념으로 불타는 돌격대원의 가슴속에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렬

한 흠모와 그리움이 격정으로 차넘쳐흐르고있었다. 이런 격정의 흐름을 타고 시작품들에서는 618건설돌격대원들이 백두의 엄혹한 자연환경속에서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만난을 뚫고 기적적으로 안아올린 거창한 전변의 위대한 화폭을 눈앞에 펼쳐보여주고있다.

이 위대한 전변의 화폭속에서 우리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뜨거이 안아보게 된다.

자기의 령도자에게로 달리는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자기 령도자에게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 기 위하여 온몸이 그대로 마대가 되고 함마가 되여서라도 기어이 명령을 관철해내려는 투철한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혁명정신, 이것이 618건설돌격대원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이끌어준 힘이였으며 삶과 투쟁의 랑성이었다.

백두의 눈보라-이것은 그대로 618건설돌격대, 선군시대 전위투사들의 숨결이었으며 낮이었다.

이러한 숨결로 서정의 진한 흐름을 이루며 작품집의 모든 작품들이 백두산지구건설에 펼쳐나선 선군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생활과 투쟁의 전모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감동깊이 펼쳐보여주고있다.

## 2. 문학작품집의 류다른 감화력은 어디에...

618건설돌격대 문학작품집 《백두산의 눈보라》가 선군시대 인간들에게 류다른 감흥을 일으켜주는것은 작품들에 백두의 건설자들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충만된 정서의 세계, 체험의 세계가 담겨져있기때문이다.

백두산의 눈보라는 어디서나 맞볼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며 단순히 자연의 눈보라만을 의미하는 눈보라가 아니다. 여기에는 횡포한 자연의 시련과 함께 그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굴할줄 모르는 혁명의 신념과 절개를 의미하는 정신적 《눈보라》에 대한 의미가 깊이 담겨져있다.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천신만고 괴로움과 시련을 맞받아 뚫고나온 혁명의 1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투철한 혁명정신으로 더더욱 세차게 불어치는 백두산의 눈보라, 이것이 618건설돌격대원들이 간직한 신념과 의지이다.

《우리는 이 땅우에/단순히 집과 거리와 언제와 도로만을/일떠세운 건설자들이 아니기에》 후손만대 길이 전해갈 위대한 백두의 혁명정신을 선군시대 기념비적창조물들로 수놓아가는 백두의 혁명전사, 백두의 아들딸들이였기에 618건설돌격대원들의 건설자된 긍지와 영예는 그토록 큰것이였다.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이 모든 작품들에 맥맥히 넘쳐흐르고있다. 이것이 바로 작품집의 서정시들을 밝고 랑만에 넘친 희열속에서 깊은 감동의 세계에도 이끌어주게 하고있다.

서정시 《우리는 백두의 품속에서 태어났다》(문영철 작), 《백두여 너를 빛내리》(김금별 작)와 같은 작품들을 읽어보아도 이들만이 안고있는 자부심과 영예가 얼마나 크고 뜨거운것인가를 가슴후더욱게 느끼게 된다. 돌격대원들에게 있어서 혁명의 성지에서 벌리는 건설투쟁은 곧 혁명의 용광로에서 단련되는 투쟁의 나날이었으며 그 어디에

서도 배울수 없었던 인생의 참다운 진리를 가르쳐주는 혁명의 대학을 나오는 과정이었다. 저 하늘의 천만별무리를 다 따다 금별로 엮어준대도 바꿀수 없는것이 백두산건설의 돌격대원이 된 자부심이고 긍지였다. 자신들을 백두의 피줄기, 혁명전통의 명맥을 이어가는 선군혁명의 전위투사들임을 소리높이 자랑하는 돌격대원들의 영예와 긍지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것이었다. 그러한 자부심과 영광으로 높뛰는 서정적주인공들의 열렬한 웨침은 우리들을 류다른 감정세계으로 이끌어간다.

우리 장군님  
대단히 큰일을 했다고  
여기 돌격대에 재간둥이들이 많다 하시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어떤 대가도 바람이 없이 일을 잘하는  
좋은 동무들이라고 값높은 평가를 주실 때  
우리의 가슴마다엔  
뜨거운것이 가득차울랐어라

(서정시 《크나큰 영광》 김정하 작)

그 누구나 쉽게는 가질수 없는 영광의 그날을 그리어보며 끝없는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불태워나가는 이들의 생활모습들에는 그대로 자기의 정도자에 대한 선군시대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들이 담겨져있다.

이처럼 돌격대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선군시대 인간들이 안고있는 전인민적감정으로 승화되어 흘러나가면서 작품들은 독자들에게 이채로운 생활모습들을 펼쳐보여주고있다.

경력과 가정사연, 직업과 학력이 서로 다른 돌격대원들이 자기 식의 특유한 심리정서와 체험들로 펼쳐보여준 생활감정들과 세부들은 소박하고

평범하다. 하지만 꾸밈없이 진실한 생활감정들이 안고있는 형상의 세계들은 다채로우며 그러한 생활감정들이 다양한 정서적색갈로 보여주는 생활모습들은 특색있게 안겨진다. 작품들에는 서정적주인공들의 각이한 생활모습들이 개성적인 감정정서적색갈로 채색되어 펼쳐진다.

혁명의 성지에서 태어나 오늘은 성스러운 고향 땅을 빛내여나가는 주인이 된 서정적주인공의 격정에 넘친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화려한 극장무대에서 마이크를 쥐고 만사람의 경탄을 불러내던 처녀가 오늘은 《함마처녀》로 불리우는 생활세부들이 있다. 군복입은 건설자로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행복과 기쁨에 넘친 환희가 있는가 하면 나이는 많아도 돌격전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대대의 《아바이》의 모습도 보여진다. 이러한 서로 각이한 시적계기들과 정황, 조건과 환경속에서 흘러나오는 생활감정과 정서들이 하나의 서정으로 엮어져 618건설돌격대원들의 영웅적인 투쟁과 생활모습들을 펼쳐보여주는것으로 하여 문학작품집 《백두산의 눈보라》는 더더욱 감미로움을 안겨주며 돌격대원들의 생활세계로 끝없이 이끌어주고있다.

618건설돌격대원들이 창작한 문학작품집 《백두산의 눈보라》에서는 618건설돌격대원들이 지닌 숭고한 정신세계를 그들의 벽찬 투쟁과 생활의 진실한 모습속에서 감동깊이 펼쳐보여준것으로 하여 우리들을 백두산의 눈보라처럼 세차고 줄기차게 선군혁명위업수행으로 말없이 불러주고있다.

오늘의 선군시대에 백두산의 눈보라로 열풍을 세차게 불려일으켜주며 문학작품집 《백두산의 눈보라》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최후의 승리자로 더 힘있게 불려일으켜주는 문학의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고있다.

## 안해에게

양치성

다섯번째 نوم들의 공격을 물리친  
화약냄새 아릿한 전호가에서  
아바이전사 바느질하네  
군복에 목달개 달며...

중기압철 누르던  
거쿨진 손으로 잡기에는  
너무도 가는 바늘  
몇번 고누어서야 한뼘 또 한뼘...  
혈치 않은 일에  
문득 떠오른 두고온 안해생각

(논발갈이는 제대로 하는지?  
황소가 날파람있어  
대장부도 부리기 힘들었는데...

해보지 못한 일이니  
아마 혈치 않을거야)

아바이전사 마음속 말을 보내네  
하지만 안해여  
보탑을 든든히 잡아주오  
지금이야 전쟁이 아닌가  
우리가 이겨야 할 전쟁이 아닌가

전승의 날이 오면  
자식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야지  
전쟁을 승리로 치르던 그날에  
중기사수 아버지는 바느질도 명수였다고  
어머니는 보잡이명수였다고...

## 편집배낭을 메고 8일밤 9일날

홍철진

지난 8월 편집부는 조선작가동맹 강원도위원회의 작가들이 현지에서 창작한 작품들을 집중편집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작가는 당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이며 당 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이다.》

편집부의 작전에 따라 현지에 내려갔던 나는 이번에 또 한번 키가 커가지고 왔다.

작품들을 편집하는 과정에 강원도의 력사와 지리는 물론 인간들, 우리 작가들의 세계를 안고 온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수 있다.

나는 이번에 분명 출장을 간것이 아니라 대학 동교를 다녀왔다고 할수 있다.

대학은 어느 한곳에 머물러있는 곳만이 아니며 스승은 칠판앞에만 서있는것이 아니였다.

### 소설가 김동호

편집부에서는 면식이 있었지만 가까이 지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는 이번 창작전투때 그와 열방에서 지내면서 작가의 면모를 페부로 받아안았다.

매일 밤을 꼬박 밝히면서 작품추고작업을 하던 작가.

깊은 밤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 열방에 귀를 기울이니 그는 밤새 작품의 작중인물들과 말을 나누는것이였다.

어떤 때는 욕지거리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자목소리로 사정도 하고...

소설 한편한편이 저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니 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올해 나이 70. 누가 고령의 작가라고 하겠는가. 밤을 밝혀 글을 쓰고는 새벽마다 꼭꼭 몸단련을 한다.

하기야 작가들속에서 의자의 소유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50여년간 그 어느 출장길, 엄동설한에도 단 하루도 드림없이 몸단련을 해왔다고 한다.

보통의지로서는 이루어질수 없는 일이다.

허나 나는 그에게서 내뿜는 청춘의 혈기와 왕성한 기백을 몸단련에서만 찾고싶지 않다.

창작에서의 그 불같은 열정, 무엇이든지 끝을 보고야마는 견인불발의 의지가 그를 젊음으로 실어다준것이다.

밤이 어둡다고 되돌아가는 세월이 있으랴만 밤을 모르는 우리 작가들에게만은 확실히 세월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것 같다.

그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마감단계에 이르러고있던 주체42(1953)년 정초에 《조국》이라는 단편소설을 처음 썼다. 그때 그의 나이가 열여섯살이였다.

그 작품을 문학선생이 출판사에 올려보냈는데 편집부에서 그를 고무해주는 긴 글을 내려보냈었다.

앞으로 작가가 될수 있는 전망이 보이니 책을 많이 읽고 부지런히 쓰라는것이였다.

그의 문학적재능을 헤아려 당에서는 문학공부를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대학으로 추천해주었다.

당의 고마움이 클수록 그에게는 군복 입을 열망이 세차게 타올랐다.

침략자들이 일으킨 전쟁은 공화국의 평범한 인간들을 이렇듯 비상히 각성시켰다.

군복을 입고 문학공부를 하자.

이리하여 그는 군복을 입고 창작을 시작하였다.

그가 군복을 입고 창작활동을 벌린 나날은 어버이수령님 찾아주신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심장으로 체득한 나날이였으며 하나의 혁명대학을 거친 나날이였다.

그 과정에 그렇게도 바라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문학공부를 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그후 대학을 졸업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사랑속에 1976년부터 작가대오에 들어섰다.

우리 당의 붓대전사로 성장하던 나날에 그는 백두산3대장군의 고매한 품모와 위대성을 형상한 많은 단편소설들을 창작하여 독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왕성한 기백은 단편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항일혁명투사 오백룡동지를 원형으로 한 장편소설 《위성》과 서해갑문을 주제로 한 장편소설 《청춘과 담력》 그리고 비전향장기수를 원형으로 창작한 장편소설 《별빛》...

지금 심의본으로 인쇄된 중편소설 《첫 자옥》(가제)과 중편소설 《설령의 봄》(가제)을 끝낸데 이어 장편소설 《성장》(가제) 초고를 마감단계에서 쓰고있다.

그의 창작적열정에는 밀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로쇠가 그의 육체에 불을 틈이 없다.

작가는 자주 창작실의 젊은 작가들에게 선배작가들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해준다.

그것은 결코 옛말이 아니였다.

우리 당에 충직했던 선배작가들을 잊지 못해하



는 도덕의리이며 후배작가들도 그들처럼 명작으로 당의 위업에 이바지하길 바라는 절절한 당부였다.

지금도 그의 부인이 창작실에 손수 끓여가지고 왔던 가지찜생각이 난다.

구수한 토장국에 양념무친 가지찜은 작가와 정을 맺고 궁지로, 자부로 한생을 사는 우리 작가들의 고마운 부인들에 대한 나의 추억의 한토막이기도 하다.

## 시인 오재신

창작전투를 마치고 편집부로 돌아와 시인 오재신의 모습을 떠올려보느라니 머리가 자꾸만 흔들거린다.

아마 동해의 푸른물결이 어느새 내 머리속에 흘러들어 출렁거리는것 같다.

그 물위로 물스키가 난다.

좁전보다 머리가 더 세차게 흔들린다.

물스키는 내 머리가 좁다하게 물갈기를 날리며 바다우를 뒹춘다.

《젠장. 내 머리가 뭐 원산앞바다인가 하는게지...》

그 물스키의 주인공이 다름아닌 시인 오재신이다. 놀랍게도 그는 작가와는 거리가 있는 사범대학 체육학부 기계체조과를 졸업한 기계체조명수이며 더우기는 주체54(1965)년 8월 15일 조국해방 20주년기념행사때 송도원앞바다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물스키선수로 출연한 쉽지 않은 경력을 가지고있다.

당시 시인의 나이는 21살이었다.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나 바다물에 절고 해풍에 검붉어진 애송이청년-시인의 모습이 방불하게 안겨왔다.

그때 해상스키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척되던 시기였다.

물스키는 수영선수가 물에 뛰어드는것과는 달리 빠른 속도에 의해 물에 뛰어드는 참으로 용감성과 민첩성을 요구하는 고급한 체육종목이다.

어버이수령님앞에서 출연한다고 생각하니 우리 선수들은 긴장한 마음으로 출발선에 나섰다.

그런데 뜻밖에 한 선수가 실수하여 그만 물속에 침병 빠졌던것이다.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가슴을 조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켜보시는데 어찌자고 실수를 하다니?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 해보는것인데 그럴수 있다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며 다시 해보라고 그 선수를 고무격려 해주시였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자연 우리 나라의 첫 프락포르생각이 났다.

앞으로 나가야 할 프락포르가 뒤로 달렸을 때 보수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시기상조라고 얼마나 시비했던가.

그때 우리 수령님의 지지와 격려가 아니라면

첫 프락포르가 과연 태어날번이나 했던가.

어버이수령님의 이런 크나큰 믿음속에 우리 선수들은 자신심을 가지고 바다우를 달렸다.

우리 선수들의 출연모습을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몹시 만족해하시며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도 뛸었으면 한번 타보고싶다고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나는 시인이 부러웠다.

행복한 생활체험이 자기 시의 밑바탕에 깔려있다는것은 얼마나 궁지로운것인가.

그는 분명 그 바다우에서 시인으로 태어났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바다우에서 물갈기를 날릴 때 자기도 모르게 시의 나래도 함께 펼쳐졌을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인은 자기 인생의 아름다운 이 한구간을 두고 독자들과 이야기하지 못하였다. 자기 시의 봉우리우에 올려놓으려고 아껴두는것인지 여하튼 시인의 의도가 있을것이다.

시인은 우리 당의 기초축성시기에 작가대오에 들어섰다.

시인 오재신 하면 독자들이 먼저 기억을 떠올리는것이 서정시 《걸어서 가자》이다.

이 작품은 시인이 주체77(1988)년 북부철길건설장에서 돌격대원들과 함께 로반을 끌며 소금맛, 눈비맛을 체험한 속에서 창작한 서정시이다.

해산-만포

떠나는 렬차의 기적소리는

역구내를 흔들어도

가야 할 그 길을 앞에 두고

나는 지금 이슬젖은 철길우에 서있다.

렬차여 어서 떠나거라

나는 걸어서 가련다

시련의 언덕은 어떻게 넘었고

고난의 굽이굽이는 어떻게 헤쳐왔는지

걸음걸음 그들의 위훈담에 가슴설레며

자욱자욱 그들의 걸음새 따라배우며

렬차는 떠나고 시인은 걷는다.

렬차의 폭신한 좌석에 앉아서야 바위를 쪼아내며 굴길을 열고 산악을 허물어 로반을 뺏으며 한치한치 이 길을 열어놓은 돌격대원들의 고귀한 피와 땀을 어떻게 다 헤아리랴.

시인은 무릎을 꿇어 레루에 귀를 대이었다.

그랬더니 눈에 열고 비에 젖으며 잠도 끼니도 잊으며 한치한치 이 길을 열어간 돌격대원들의 숨결소리가 레루를 타고 가슴치며 들려왔다.

걸어서 가자 걸어서 가자

침묵 하나하나 세여보며

자갈 하나하나 쓸어보며

비에도 젖고 눈도 맞으며 걸어서 가자

진정 6백 30리 아닌

마음속 6천 3백리, 6만 3천리를

아, 나는 걸어서 가리라!

이 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렸으며 80년대시선집에 당당히 한페이지 올랐다.

오늘도 시인은 걷는다.

그날의 침묵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그날의 자갈을 하나하나 쓸어보며 마음속 6만 3천리를 비가와도 걷고 눈이 와도 걷는다.

아버이수령님앞에서 나래를 편 그날의 바다가 마음속에 출렁이고 인생의 진맛을 깨달은 북부철길의 6백 30리가 그가 걷는 창작의 먼길에 이정표로 놓여있다.

그는 지금 원산청년발전소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을 소재로 서사시 《두번째 사진》(가제)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다. 나는 그 작품도 북부철길때처럼 《걸어서》가질 바랄뿐이다.

## 소설가 김금옥

강원도 창작실의 유일한 꽃이다.

바다를 낀 곳이니 해당화라 불려야 할지...

강원도 작가들이 류달리 그 《꽃》을 사랑해준다.

어쩌다 보이지 않으면 그날은 얼굴에 구름장들이 몇층이 덮여있다.

그러다가도 다시 눈앞에 나타나면 질게 드리웠던 구름장들이 어느새 산산이 부서진다.

그런데 《꽃》은 자기가 꽃임을 부정한다.

《내가 무슨 꽃이겠나요? 향기도 없는데...》

40대중반기를 넘어섰다고 그러는가?

그의 작가나이는 10살이다. 허나 그의 문학나이는 농업전문학교에서 수의축산교원을 하던 그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것이다.

수의축산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농업대학까지 나온 그에게 있어서 축산은 생활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었다. 그에게는 축산과 관련하여 집필한 책이 몇권 잘 된다고 결사사람들이 귀찮도 해주었다.

축산부문으로 뻗었으면 인생에서 어떤 돌개바람이 불었을런지도 모른다.

토끼, 돼지, 염소, 양...

여하튼 축산과 관련해선 막히는데가 없었다.

축산을 두고 이야기할 때면 꼭 동화세계속에 잠긴듯 황홀했다.

《그런데 축산기사가 어떻게 작가로 방향전환을 했습니까?》

나의 물음에 작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부질없는 말을 꺼내놓은것 같아 나도 좀 당황했다.

《난 왜서인지 나와 작가라는 말을 련결시키면 부끄러운 생각부터 드는걸요. 그리고 내가 무슨 작가겠어요.》

《그럼 내 달리 물어보지요. 교원생활 할 때도 작품을 썼습니까?》

《그럼요, 재간이 없어 그러지 문학이야 일찌기 사랑했는걸요.》

작가의 긴장했던 마음이 좀 풀리는듯 했다.

그는 현재까지 21편의 단편소설을 창작발표하였다.

주체84(1995)년 11호 《조선문학》에 단편소설 《대지에 새기다》를 발표하여 문단의 초점을 모았다.

지난해 12호 《조선문학》에는 단편소설 《철쭉꽃을 안고 온 처녀》를 발표하여 자기의 창작적잠재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는 문학앞에서 아이처럼 솔직했고 성신했다. 언제인가 한 문학통신원이 단편소설 한편을 가지고 와서 보아달라고 부탁했다.

단편소설을 다 읽고난 작가는 스스럼없이 문학통신원에게 말했다.

《잘 썼어요. 성격도 그래 묘사도 그래 다 매력적이에요. 난 흥내도 못 내겠는걸요.》

누가 작가이고 누가 문학통신원인지 분간키 어려웠다.

아무리 문학통신원이 작품을 잘 썼기로서 작가가 분별없이 자신을 잃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것이다.

허나 그는 문학앞에서 거짓말하고싶지 않았다.

독자들, 우리 인민들이 작가를 존경하는것은 작품을 존경하는것이지 결코 신분을 존경하는것이 아니다.

작가를 마주할 때 사람들은 무슨 작품을 썼는가고 먼저 묻곤 한다.

넌리 알려진 작품이면 그렇듯 기뻐하고 기억에 없는 작품이면 《내가 못 봤겠지요.》 하며 자기를 질책하면서까지 리해하려고 애쓰는것이 바로 우리 독자들이다.

그 독자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늘 자신과 싸우고있는 작가를 나는 이번 창작전투기간 여러번 목격하였다.

그가 하던 말이 생각난다.

《내가 무슨 꽃이겠나요? 향기도 없는데...》

그 향기란 다름아닌 시대가 요구하고 독자들이 기다리는 명작이었다.

시대의 높이에 자신을 따라세우려고 모태기는 이런 꽃은 벌써 아름답은것이다.

그는 곧 《향기》를 찾을것이다.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 나에게 신신당부했다만 그는 지금 염소를 방목하는 처녀축산반장에 대한 장편소설을 준비하고있다.

## 시인 유명하

강원도 작가들의 창작과 생활을 책임진 《세대주》이다.

강원도에 와서 받은 첫 소감이 훌륭하게 꾸려진 창작조건이었다.

매 작가들의 창작실을 돌아보면서 생각키워지는것이 많았다.

이것은 강원도 작가들의 제힘만을 믿은 정신의 창조물이며 땀과 노력, 헌신의 열매이다.

그 앞장에는 집안의 호주인 위원장이 서있었다.

내가 작가동맹 강원도위원회에 들어섰을 때 그는 토끼사에서 알파먹이를 만들고있었다.

인사를 나는 후 그는 나에게 토끼사를 구경시켜주었다.

수십마리의 토끼들이 그를 보자 우르르 몰려왔다.

그는 이 토끼사의 《관리공》이기도 했다.

어리광부리듯 발앞에 모여든 토끼들을 어루쓸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놈들이 우리 작가들이 글 쓰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이것이 원고지에 쓰지 않는 내 〈작품〉이지요. 이를테면 위원장의 〈작품〉이라 할지…》  
옳다. 이것은 작가들을 책임진 위원장의 《작품》이다.

위원장에게는 이런 《작품》들이 많아야 한다.

그는 이런 《작품》들을 쓰기 위해 늘 사색하고 고심하는 일군이다.

60이 넘었지만 왕성한 기력은 부러울 정도였다.

인생 중반기에 그는 작가대오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는 완행렬차를 탄것이 아니다.

그는 늦게 붓을 잡은것만큼 자신에 대한 요구성이 대단히 높았다.

그는 위원장 유명하이기 전에 시인 유명하였다.

창작을 떼어놓은 위원장을 그는 생각해본적이 없다.

밤마다 책속에 파묻혔고 시와 씨름질했다.

《늘그막에 성공하려우?》

잠을 모르는 경감을 보기 딱해 로친이 은근히 던진 말이다.

그때마다 그는 《작가가 된다는게 뭐 쉬운줄 알아? 이렇게 안하면 쫓겨나야 돼요.》하고 통명스레 말하곤하였다.

밤을 밝히는것이 이제는 레상사로 되었다.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다.

낮에는 위원장 《작품》을 써야 했고 밤에야 비로소 원고지작품을 쓸수 있었다.

이번 창작전투때 다른 작가들보다 더 많은 작품을 써냈다.

그는 작품 한편한편을 힘들게 써낸다.

힘들게 쓴것만큼 작품이 좋았다.

그는 길게 쓸줄 몰랐고 뜬 소리를 몰랐다.

그러니 시의 명중률도 높았다.

내가 그의 창작을 두고 부러워하자 《부럽기까지야… 바쁘니 뭐가 쓰겠습디다. 한가하면 아무 글도 안되지요. 세상에 나온 명작들도 다 바쁜 속에서 쓴것이 아니겠소.》라고 웃으며 말하는것이였다.

집중편집을 끝내고 창작실을 떠날 때 나는 그와 긴말을 나누지 않았다.

서로의 눈빛에서 선군혁명문학의 드팀없는 의지를 가다듬었다.

나는 그가 더 늙지 않길 바랐고 앓지 않길 바랐다.

옛사람들 말대로 낮에는 발갈고 밤에는 글 읽고… 낮에는 위원장 《작품》을 쓰고 밤에는 원고지작품을 쓰고 …

이밖에도 시인 주경, 소설가 조인영, 박룡호, 김경일, 현직작가 송명근, 오정로, 함영주… 많은 사람들을 털거하고싶지만 지면은 나에게 그것을 허락치 않았다.

우리 작가들이 창조한 수많은 아름다움들이 다 음장의 차례를 기다리고있다.

아쉽지만 붓을 거두어야 한다.

강원도 작가들의 좋은 작품을 기다릴뿐이다.

그들은 꼭 해낼것이다. 능력도 있고 정열도 있고…

나의 귀전에 동해의 파도소리가 들려온다.

마치 이에 화답하는 작가들의 목소리처럼…

## 나에게 조국이 없다면

민항숙

물새들 날으는 타향의 길에  
해저문 이 저녁 생각도 깊네  
나에게 귀중한 조국 없다면  
집없는 나그네의 신세가 되리

황금의 노예로 짓밟힌 인생  
눈물젖는 꽃나이 그 얼마더나  
나에게 참다운 조국 없다면  
떠도는 그들속에 나도 있으리

달빛도 빛을 잃고 구름에 잠긴

이 밤도 그 품 찾아 내 맘 달리네  
나에게 어머니조국 없다면  
오늘의 보람찬 삶이 있으랴

순간도 떠나 못살 정을 둔 품이  
사회주의조국임을 나는 알았네  
내 인생의 닳을 내린 그 품은 하나  
타향만리 있어도 그 품에 사네

아 한없이 그리운 나의 조국아!  
내 운명을 다 맡긴 장군님품아!



김명진

그날은 아침부터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몸에 붙고다니던 손거울을 잃어버린 것이다. 파란 비닐테를 두른 둥그런 거울을 어디에서 떨구었는지 통 생각이 나지 않았다.

누구한테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손거울을 잃어버린 것이 생활에서 무슨 그리 큰 대수랴.

허나 내게는 그것이 남달리 소중한 여겨지는 물건이었다.

지난해 봄 내가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 들어왔을 때 멀리 삼수발전소건설장에 나가있던 딸이 찾아와 준 것이었다.

《아버지, 이 거울을 늘 들여다보며 젊어지세요.》 어딘가 그들이 진듯싶은 나의 마음을 위로하며 새 양복과 함께 내놓았던 손거울, 내게 옷을 입혀주고 손거울을 호주머니에 넣어주던 딸의 그 애뜻한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때부터 손거울은 내 몸에서 떠나지 않았었다. 거울에 비쳐진 희석희석한 머리며 주름이 잡힌 얼굴을 보느라면 어느덧 흘러가버린 젊은 시절이 떠오르곤 하였다. 나는 손거울에서 얼굴과 마음만을 비쳐보지 않았다. 거기서 딸의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있었다. 그 애가 나에게 바라고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이 많을수록 옷차림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젊게 가지라는 그 당부뿐이겠는가.

아니, 그 애는 나에게 더 큰 부탁을 하는 듯싶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인풍공원으로 나갔다. 저 혼자 조용히 무엇인가 생각하고싶어서였다.

인풍공원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장자강물결이 북천과 열싸안는 합수목에 위치하고있었다. 우리 도시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여러 공원들 중의 하나였다.

아름드리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과일 나무들과 수삼나무, 단풍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어 무더운 여름철에도 서늘한 그늘이 항상 드리워있다. 어린이들의 놀이터로부터 씨름터, 장기터들이 갖추어져있는 공원으로는 사람들이 끊임 없이 모여들고있었다.

나는 긴 나무결상에 앉았으나 그냥 앉아있을수 없었다. 조무래기들이 술래잡기를 하면서 꽃밭의 한모퉁이를 짓밟고있었다. 방금 피어난 채송화며 불꽃, 금잔화들이 그 애들의 발길에 채이곤 했다.

《이녀석들, 그만두지 못할가.》

나는 조무래기들을 쫓아버리고 못쓰게 된 꽃밭을 한것이나 걸려 손질해놓았다.

이런 일은 다음날에도 있었다.

공원에는 일감이 수두룩했다. 알뜰히 가꾸어야 할 꽃밭에 풀이 돋기도 하고 휴지들이 떨어져 바람에 날리기도 했다.

공원관리원이 바빠 돌아가기는 하나 워낙 공원이 넓은데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들어 새로운 일거리들이 생겨나곤 했다.

나는 공원에 무료히 앉아있기보다는 무엇이건 일손을 잡고싶어 관리원의 손이 닿지 않는 일을 하나씩 거들어주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공원에 《출근》하여 꽃밭을 손질하기도 하고 어지러운 곳을 비질하기도 했다. 때로는 망치를 들고나와 결상이며 놀이터를 손질하기도 했다.

내 얼굴을 가꾸듯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공원을 깨끗이 거두는데서 그 어떤 보람을 찾고싶었다. 이 아버지가 시름에 잠겨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유익한 일을 하고있는것을 알면 딸도 기뻐하지 않을까, 아마도 그 애는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달 두달 지나가는 사이에 공원관리원 녀인도 어느덧 나를 자기 사람처럼 대해주었고 사람들도 《공원관리원아바이》로 깃듯이 불러주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싫지 않았다. 비록 년로보장을 받은 터이지만 사람들속에서 살고있고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고있는것이 얼마나 좋은가.

허나 가슴속에 갇든 한가닥 그들이 가져진것은 아니다. 자신이 시대의 거센 흐름에서 밀려난듯싶어서였다.

극상해서 두정보 남짓한 공원에서 맴도는 것이 마치 날개를 꺾인듯 한 심정이랄가.

나로 말하면 우리 교장의 큰 기계공장에서 한 개 부서를 책임지고 일해온 사람이다. 실무에 능하고 전개력이 있는 일꾼이라는 평을 받아온 자기 나름의 긍지를 안고있었다. 사람들로 부터 선망의 눈길을 받고 회의주석단에도 올라가 앉고 사업상용무로 안 다녀본데가 없었다.

그랬던 사람이 오늘은 공원에 갇힌 신세가 되었으니 가슴이 어찌 허전하지 않으랴.

허나 날과 달이 바뀌면서 그 아쉬움도 점차 가

서지게 되었다.

여기에도 생활이 있었다. 사람들을 만나고 회의와 논쟁, 기계들의 동음속에 몸을 잠그곤 하던 그런 생활은 없어도 도시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다.

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저마다 자기 나름의 생활을 가지고있었다. 하루일을 끝내고 왁작하니 떠들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것은 강철 공장노동자들이고 분내를 풍기며 까르르 하고 웃음을 터뜨리는것은 방직공장처녀들이었다. 돌격대원들이 찾아와 오락회를 벌리는가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잠시 다리쉬을 하기도 한다. 음식을 퍼놓고 한껏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색에 잠겨 무겁게 걸음을 옮기는 사람도 있었다.

눈에 띄게 안겨오는것은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이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음이 없이 런던들이 사랑을 속삭일수 있는 곳은 공원 말고 또 어디 있으랴. 어깨를 가지런히 하고 공원에 들어선 그들은 되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는다. 아직은 공원에 정원등이 켜있지 않아도 그들은 밤늦도록 자기들의 세계에 빠져버린다.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도 따뜻해진다. 마치 《공원관리원》인 내가 그들의 사랑을 지켜주고 가꾸어주는듯싶어... 내가 쓸어주고 관리하는 공원에서, 때로는 못을 박아 고쳐놓은 나무결상에 앉아서 청춘들의 사랑이 꽃피어나고 아름다운 꿈이 자라는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공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중에서 나의 눈을 끄는 한쌍의 런던이 있었다. 장자강의 물결소리가 소연히 들려오는 공원의 한옆 넓은일정향나무밑에 놓인 나무결상에 오누이처럼 앉곤 하는 젊은이들이었다. 공원을 찾는 시간이 해질무렵으로 정해져있고 앉는 장소도 고정되어있었다. 총각은 키가 크고 어깨가 짙 벌어졌는데 질은 눈섭아래 어글어글한 눈이며 두두룩한 코가 사내답고 고집스러워 보였다. 그에 비하면 처녀는 몸이 갈림하고 얼굴생김도 아련해보였다. 수집음을 잘 타서 얼굴은 늘 다소곳이 수그리고있는데 어쩌다 웃거나 이야기를 할 때면 볼우물이 움푹 패우는게 인상적이었다. 얼굴이며 볼우물이 생기는것이 꼭 우리 딸을 닮은듯싶어 나의 눈길을 더 끌었는지 모른다.

그들이 처음 공원을 찾았던 지난해 봄만 해도 두사람은 오늘처럼 가깝지 못했었다. 총각은 결상에 앉아있곤 했으나 처녀는 늘 한옆에 서있곤 하였다. 총각이 무슨 말을 한마디만 하여도 부끄러움을 타며 고개를 수그린채 신발코로 땅을 허비는 것이었다. 총각의 웃음소리가 높을 때에도 처녀는 얼굴이 더욱 붉어져 고개를 쳐들지 못했다.

그랬던 그는 얼마후에는 결상에 앉기는 했으나 총각과 항상 떨어져있었다. 수집음을 잘 타는 아

련한 성미며 행동거지가 꼭 딸을 보는듯싶어 나의 가슴은 야릇하게 설레었다.

(저들의 사랑이 빨리 무르익었으면...)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은근히 원심을 썼다. 따뜻한 해빛, 주위에 떠도는 그윽한 꽃향기, 싱그러운 미풍도 그들의 사랑을 재촉하는듯싶었다.

허나 그것은 공연한 로파심이였다. 무더운 여름에 접어들면서 그들의 사이는 퍼그나 깊어진듯싶었다. 처녀는 총각곁에 바투 붙어앉아 무엇인가 열렬히 속삭이기도 하고 명랑한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무슨 할 이야기가 그리 많은지 시간가는줄 몰랐다. 그들에게는 고민이나 피로움같은것엔 인연이 없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듯싶었다.

아마도 그들은 끝없는 속삭임속에서 오늘의 행복과 함께 보다 아름다운 래일을 설계하고있으리라.

한주일에 두세번씩은 꼭꼭 나타나는 그들의 생활에 나도 한결을 들여놓았다. 그들을 아껴주고 위해주고싶은 생각으로 그들이 앉곤 하는 결상을 깨끗이 거두어 주었고 넓은일정향나무를 알뜰히 가꾸어주곤 하였다.

그들도 이 젊은이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나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깎듯이 숙이곤 하는데 볼우물이 움푹 패우는 가름한 얼굴에는 정이 가득했다. 결상밑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도 꼭 주어서 휴지통에 넣고 때로는 비자루를 빼앗아 내 일손을 거들어주기도 하는 처녀가 어쩐지 남같이 여겨지지 않았다.

《이젠 낮을 익혔으니 통성을 하세.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요?》

내가 따뜻한 웃음을 보내자 젊은이들은 일어섰다.

《지선희라고 불러주세요. 시병원에서 일합니다.》

처녀는 수집음을 타며 다소곳이 얼굴을 수그린다. 이번에는 총각이 입을 열었다.

《저는 김주익이라고 합니다. 도시설계사업소에서 일합니다.》

나는 이들에게 공연히 방해로 끼치는듯싶어 어깨를 눌러 앉히었다.

《어서 이야기들을 나누라구.》

서둘러 그 자리를 뜨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은 때로군, 이 사랑의 힘으로 무슨 일인들 못하랴.

나는 이들이 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시각을 기다렸다. 이 풍요한 가을에 결혼식을 하면 래년

에는 옥동자가 태어나리라.

허나 이들의 결합은 예상외로 시간을 끌었다. 계절은 사랑을 앞질러 또다시 바뀌어졌다. 온갖 열매들이 무르익고 단풍이 든 가을을 놓쳐버리고 겨울을 맞이한것이다.

겨울, 이 계절에는 자연계가 동면에 들어간다.

대다수 동식물들이 활동을 정지하고 잠에 들어 버리다. 공원의 나무들도 잎들을 떨어뜨리고 앙상한 몸을 추위에 떨고있었다. 그대신 눈이 풍성히 덮여있다.

차거운 바람이 이는 공원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졌다.

우리의 생활마저 《동면》에 든것이 아닐가.

아니다. 겨울에도 생활은 정지를 모른다. 눈을 밟으며 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와 이미 사귀 김주익과 지선희의 일과는 변함이 없었다. 한주일에 한두번씩 눈우에 발자국을 또렷이 찍으며 공원의 한 기슭을 찾는다.

넓은일정향나무밑의 나무결상에서 눈을 말끔히 쓸어내고 가지런히 앉아있곤 하였다. 차거운 바람도, 땀뻘 추위도 그들의 마음을 얼구지 못하였다.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속도는 굼뻤으나 그들의 관계는 보다 굳건해지는듯싶었다. 시간을 두고 추위에도 얼지 않는 이들의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것이라.

이제 봄빛이 흘러넘치는 화창한 봄날이 되면 젊은이들은 시간을 더 끌지 않고 혼례를 이루리라. 나는 이것을 믿어마지 않았다.

드디어 기다리던 계절이 왔다.

따뜻한 햇빛, 싱그러운 미풍을 받아안은 공원은 목은 때를 털어버리고 새옷을 펼쳐입었다.

새움이 뜬지 얼마 되지 않아 살구꽃, 배꽃이 활짝 피어나고 그윽한 꽃향기에 물렸다. 벌, 나비들이 날아들고 새들의 우짋음이 정답게 들려온다. 사람들에게 푸른 꿈을 안겨주고 기다리게 하는 좋은 계절이었다.

이 봄을 맞으며 나의 마음도 부풀어오르고 새로와지는듯싶다. 《공원관리원》으로 된지 1년사이에 퍼그나 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어디서 온것인가.

돌이켜보면 오늘의 생활을 손거울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딸애가 준 손거울, 그 어떤 소원과 당부가 어린 그 거울에 내 얼굴과 마음을 비추어보며 곳곳이 걸어온것이 아닐가. 오늘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딸애가 본다면...

거울을 간수했던 양복주머니를 버릇처럼 더듬어보곤했으나 손에 잡히는것이 없었다.

손거울은 다른것으로 대신할수 있어도 그 거울에 깃든 딸의 애뜻한 정이야 어디 가서 찾으랴.

공원일에 재미를 붙이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느껴보던 그 생활이 빛을 잃고 의미가 없어진듯

싶다.

문득 머지 않은 곳에서 나는 인기척소리에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바로 정향나무밑 결상에 한쌍의 젊은이가 앉아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총각은 결상에 앉아있고 처녀는 그옆에 서있었다. 주익이와 선희였다.

선희... 나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 딸이런듯싶어 눈여겨보게 되는 처녀, 그래서인지 이 시각에는 그가 더 애뜻하고 정겹게 보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해질무렵이면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곤 하던 그들이 오늘은 아침시간에 찾아온것이 이상스럽다. 늘쌍 붙어앉아있던 그들이 오늘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것이 더욱 비정상스러워 보였다.

우선 그들의 얼굴표정부터 심각하다. 두툽한 입술에 항상 웃음을 띠고있던 주익의 얼굴은 성난듯 뻔뻔하게 달아있는데 부리부리한 두눈이 타는듯이 번쩍거렸다. 그 이글거리는 눈길로 처녀를 겨누고 손세를 써가며 무어라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럴수록 선희는 얼굴이 해쓱하니 질려 주익이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다. 무엇인가 애원하는듯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을 열곤 했으나 주익이에 의해서 중등무이되곤 하였다.

알קות은 바람이 일어 그들의 대화를 끊어놓곤 하여 알아들을수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해를 두고 가꾸고 무르익혀온 사랑이 시련을 겪는가? 이들의 사랑이야말로 아름답고 굳건한것이라고 믿어왔었는데 무슨 일로 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나는 긴장해졌다. 이들의 일이 남의 일같이 여겨지지 않았다. 애뜻한 정을 주고싶은 처녀, 수심에 잠겨 금방 눈물이라도 떨어뜨릴듯싶은 그의 아픔을 덜어줄수 있다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주익동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발...》

《안되오. 난 이미 결심했소. 그런 소리는 두번 다시...》

바람에 실려 토막져 들려오는 소리...

주익의 단호한 선언에 선희는 얼굴을 두손에 묻고 가볍게 흐느낀다.

침묵...

주익의 거친 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듯싶다. 선희는 두손에서 얼굴을 떼더니 무어라고 또 다시 애원하였다. 축축히 젖은 두눈에서는 눈물이 방울져 떨어진다.

《주익동무, 제발...》

《안된다지 않소.》

주익은 처녀의 말을 더 들어볼념을 하지 않고 손을 뻗 내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덜된 자식, 저만 저라고 하면서 처녀를 울리다니…)

마음이 여린 처녀를 울리는 녀석을 그냥 두고 싶지 않았다. 무슨 일인지 오손도손 의논해도 되겠는데 생나무쥬듯이 저렇게 우격다짐으로 나오다니…

나는 한걸음 앞으로 나서다가 멈칫 섰다.

아서라, 젊은이들의 사랑싸움에 늙은게 주책머리없이…

허나 이들의 언쟁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듯싶다. 주익의 얼굴은 한껏 달아올라 불그락푸르락했고 선희의 얼굴은 실망에 잠겨 눈물에 젖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묻겠소.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소?》

마침내 주익의 날카로운 눈길이 선희의 얼굴에 못박혔다. 선희는 애원에 찬 얼굴로 그를 바라볼 뿐 입을 열지 못한다.

《중소. 이젠 더 말하지 않겠소. 동무가 이렇게 나올줄은…》

《주익동무.》

《나를 더 찾지 마오. 이전 모든게 끝장이에요!》

주익은 소리치고나서 단호하게 몸을 돌려 앞으로 씨엥씨엥 걸어나갔다.

아니, 저녀석이?... 나는 아연하여 그를 얼없이 바라보았다. 아무리 성미가 급하기로서니 이렇게 나올수 있는가. 모든게 끝장이라니... 이들의 사랑이 아주 결렬된게 아닌가. 해를 두고 가꾸고 무르익혀온 그 사랑이 순간에 깨어져버린듯싶다. 그 모든 잘못이 주익이에게 있는듯싶어 미덥게 여겨지던 그가 이 순간에는 못마땅하게 느껴졌다. 이 처녀가 무얼 어쨌다고 차버리고 달아나는가. 어디가서 이런 처녀를 얻겠다고... 어디 두고 보자!

주익이가 저만치 가도록 선희는 그 자리에서 두손에 얼굴을 묻고 그냥 흐느끼었다. 좁은 어깨를 가볍게 들먹이는 그를 그냥은 바라볼수 없었다.

《선희!》

나는 그를 위안해주고싶은 생각으로 앞으로 다가섰다. 그 순간 처녀는 두손에서 얼굴을 떼더니 앞으로 종종걸음으로 달려나갔다.

《주익동무-》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찾았다. 그러나 이미 공원을 벗어난 주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선희도 멈추어 서지 않고 공원밖으로 달려나갔다.

《허참...》

나는 허망한 눈길로 그를 지켜보다가 다리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일이 이렇게 되다니?... 자신이 손수 가꾸어온 아름다운 꽃이 불시에 시들어버린듯 가슴이 아팠다. 그 사이에 여기서는 수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꽃피우고 결실을 이루었

는데 그중 정들었던 젊은이들만이 그 사랑을 열질러버리지 않았는가.

이것도 《공원관리원》만이 느낄수 있는 감정이였다.

자신이 관리하는 공원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기만을 소원했건만 오늘은 어이하여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날에 받은 충격과 아픔이 너무 커서 나는 며칠동안 그 허전함을 달랠수 없었다. 공원에 나가면 버릇처럼 넓은일정향나무밑의 결상부터 찾곤했으나 우리의 주인공들의 모습은 더 볼수 없었다.

풍성하게 나무잎을 펼친 넓은일정향나무에는 이봄따라 보라색의 꽃들이 만발하여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는데 젊은이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들을 다시 만날수는 없을가.

그렇게 한주일이 지난 어느날 저녁 공원을 한바퀴 돌던 나는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넓은일정향나무밑의 결상에 주인이 앉아있었다. 주익이는 없고 선희 혼자만이 꼼짝 않고 앉아있었다. 저녁노을을 받아 불그레하게 물들여진 처녀의 얼굴은 수심에 잠겨있었다. 두손을 무릎우에 포개여놓고 어느 한곳을 하염없이 응시하는 그의 두눈에는 짙은 애수가 비껴있었다. 주익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고 선희만이 외롭게 앉아있구나. 무슨 일로 그런 엄청난 상실을 당하였는가.

그 처녀에 대한 편민의 정에 못 이겨 나는 조용히 그에게로 다가섰다.

《나는 다시 못 보는가 했군.》

내가 나직이 말을 건네자 선희는 가볍게 일어서 서글픈 미소를 보였다.

《앉으라구.》

나는 그의 어깨를 눌러앉히고 그옆에 스스럼없이 엉치를 붙였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나?》

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선희는 부끄럼을 타며 고개를 수그릴뿐이었다.

《그녀석은 오지 않나?》

《그 동무는... 갔어요.》

선희는 나직이 입을 떼고는 호- 하고 긴숨을 내쉬었다.

《가다니, 어디로?》

《의진발전소건설장으로 갔어요...》

선희는 힘겨웁게 말하고 또 고개를 수그렸다. 그날의 아픔을 아직 가슴에 묻어두고있는 그를 늦게나마 달래해주고싶었다.

《너무 상심하지 말라구.》

《...》

《선희를 남기고 간 그녀석은 어쨌든 덜된 녀석이요...》

내가 불만을 터뜨리자 선희는 머리를 저었다.

《아니,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

나는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간 사람을 두둔해 나서는 처녀를 놀라게 돌아보았다.

《실은… 내가 잘못 생각한것 같아요.…》

선희는 고개를 수그리고 나직이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 그날 저녁 김주익이 퇴근길에 지켜섰다가 선희를 한옆으로 끌고갔다. 급하게 달려온듯싶은 그의 얼굴은 한껏 흥분에 떠있었다.

《선희동무, 내 말을 무조건 따르겠다는것을 약속하지?》

밀도끝도 없이 들이대는 말에 선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언제 주익동무의 말을 듣지 않던가요?》

《그랬지. 그런데…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그러오.》

《그렇게 다긋지만 말고 어서 말을 해요.》

선희는 주익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주익은 한껏 부풀어오른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 이야기했다.

《방금 쫓기모임을 끝내고 달려오는 길이요. 지난해부터 의진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고있지 않소. 어렵고 힘든 그 건설장으로 청년들을 부르고있소. 쫓기모임이 열리자 나는 깊은 생각끝에 연단에 올라가 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가겠다고 결의토론을 했소.…》

《아마나, 그런 일을 저와 의논도 없이…》

선희는 깜짝 놀라 주익이한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건설자, 이것은 김주익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직업이다. 군복을 벗은 그가 건설전문학교를 마치고 설계사업소에서 설계원으로 일한것은 그때문 인것이다. 살림집을 짓고 도시를 일떠세우는 일에 자기 한생을 바치겠다고 임버릇처럼 외우던 그였다.

그랬던 그가 오늘은 정든 도시를 떠나 멀고 외진 곳에 있는 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해나서다니…

《난 선희동무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리라고 믿었소. 우리 함께 발전소건설장으로 가지, 응?》

주익이가 다긋는 바람에 선희는 가슴이 후두두 떨려 아무 말도 못했다. 의진발전소, 거기는 멀고 외진 곳이다. 지난해부터 건설을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 아직 정든 고향도시를 한번도 떠나본적이 없는 선희는 너무도 뜻밖의 물음에 대답을 할수 없었다.

《왜 말을 못하오? 나와 함께 가지?》

《거기는…》

선희는 허끝이 얼어붙어버렸다.

《거기서 우리 한껏 일해보자구. 위훈이 우리를 부르고있소.》

주익이가 대신 말해주었다.

《하지만… 주익동무는 영예군인인데 어떻게 그 몸으로…》

《일없소, 내몸은 내가 잘 알고있소.》

《그리고… 제 론문을 중도반단하게 되는것이…》

선희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수그렸다.

지난해부터 시병원 의사로 일하기 시작한 선희는 김주익을 치료하게 되면서 학위론문을 준비하고있었다.

군대에서 입은 동상치료에 이 고장에 흔한 약초를 리용할수 있다는 새로운 착상을 했던것이다. 고산지대에서 자란 약초를 달여먹고 찜질을 하면 효과적이라는것이 치료과정에 확증되었다.

지금 그 치료가 한창이고 학위론문도 무르익어 가고있는데… 발전소건설장으로 가면 이 모든것을 뒤로 밀어놓는것으로 되지 않는가. 주익이 아무런 타산도 없이 너무 욕망을 앞세우는듯싶어 선희는 안타까왔다.

《그렇단 말이지.…》

《그러지 않아도 주익동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른 동무들보다 뒤진감이 있는데 시간을 또 다시 잃어버리는것이…》

《잃어버리다니… 동무는 왜 발전소건설장으로 가는것이 그 무엇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오? 거기에서 잃는것보다 얻는것이 더 많다는것을 왜 생각 못하오. 우리가 이루어놓은 창조물로 하여 조국은 더 멀리 전진한다는것을 왜 생각 못하는가 말이요?》

《하지만…》

선희는 수그린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를 이윽히 내려다보던 주익은 믿음을 배반당 한듯 얼굴이 컴컴해졌다.

《동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강요하지 않겠소. 그러나 다시한번 생각해보기 바라오. 발전소 건설장에 함께 가겠는가, 못 가겠는가… 어느 한 길을 택하오. 3일간의 여유를 주겠소.》

주익이는 이런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휙 떠나 갔다.…

《그날은 그 동무가 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가는 길이었어요. 떠나기에 앞서 나의 대답을 들으려고 찾아왔던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동무의 요구를 들어줄수 없었어요. 그에게 만족을 줄수 없었어요. 그 동무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도 모자랐던거예요.》

선희는 피로운 표정으로 얼굴을 수그렸다. 며칠 동안 그가 얼마나 모진 마음의 진통을 겪었는가 하는것이 얼굴에 다 찍여있었다. 반달처럼 휘어진 눈섭아래 고운 눈은 쌍까풀져있고 오동통하던 량 볼의 살이 내린듯 싶어보였다. 아직도 그 피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녀에게 무어라고 말해주어야 하는가.



《음, 일이 그렇게 되었던 말이지...》

나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처녀의 말을 듣고나니 생각이 바뀌어졌다. 순박한 처녀를 울리고 떠나간 김주익을 달된 녀석이라고 욕을 했더니 실은 그는 당의 부름에 심장으로 대답해나선 훌륭한 청년이 아닌가. 오히려 그의 불같은 호소에 따라서지 못하고 안온한 자기 세계에 잠겨 헤어나지 못하는 선희가 민망스럽게 여겨졌다. 나는 선희의 마음을 더 알고싶었다.

《그래 지금은 주익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선희는 고개를 들고 더듬거리듯 이야기하였다.

《그 동무의 결심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그의 요구를 따라서지 못해서...》

《그를 아직 잊지 않고있겠지?》

《잊다니요. 그 동무가 간 다음에야... 저는 그를 잊을수 없다는것을 알았어요. 무슨 일이건 가슴을 내대군하는 그 불같은 성미가 돌보이구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것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어쩌면 좋아요?》

선희는 두눈에 눈물이 고여오를듯싶어 얼른 고개를 수그렸다. 나는 주익이를 못 잊어하며 피로와하는 선희에게 무엇이건 힘을 주고싶었다. 선희가 남처럼 생각되지 않기에 그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싶어 차분히 이야기해주었다.

《후회란 항상 뒤늦게 찾아오는 법이지. 하지만 실망할건 없어...》

《...》

《선희, 내말을 들으라구. 이제라도 주익이를 찾아가라구.》

선희는 얼굴을 쳐들었다.

《하지만 이제 무슨 뉘대로... 그 동무가 나를 용서해줄까요?》

《용서해주지 않구. 선희를 더 뜨겁게 사랑해줄게다.》

《정말 그럴가요?》

《내 말을 믿으라구. 내 이래봬두 젊어서는 처녀들이 줄을 서서 따라다녔다니...》

《아바이가요? 호호...》

선희는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고 수집게 웃었다.

그의 가슴에서 시름이 멀리는듯싶어 나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선희의 손을 꼭 잡고 따뜻이 이야기해주었다.

《고향을 뜨기 힘들어하는 선희마음을 알수 있어. 고향이 바라고 조국이 요구하는 일을 해내는것이 진정으로 고향을 사랑하고 위해주는게 아니겠소?》

《...》

《참된 사랑도 시대가 부르는 곳에서 꽃피나는것이지.》

선희는 고개를 다소곳이 수그리고 잠자코 듣고

있었다. 누구한테서나 쉬 들어온 새롭지도 않은 이야기를 처녀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는지... 허나 이 말은 선희에게뿐아니라 이 도시에서 나서 자란 내자신에게도 당부하고싶은 말이기도 했다.

그에게 더 이야기해줄것이 없었다. 떠나간 주익이가 이미 그에게 할 말은 다 해주었기에. 이제부터는 선희 자신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늦게나마 그가 자기 갈길을 알고 나신다면...

나는 그의 사색을 더 방해하고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나도록 처녀의 모습은 더 보이지 않았다. 넓은일정향나무밑의 긴 나무결상은 주인을 잃고 늘 호젓이 비어있었다. 선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있을가.

그한테서 그 어떤 변화가 있을듯싶어 나는 공원에 나오면 그 넓은일정향나무밑의 결상부터 살펴보곤 했다. 그렇게 한주일이 지나간 어느날 저녁이었다.

하루일을 마치고 공원을 막 나서고있던 나는 옆에서 《아버님!》하고 찾는 소리에 머리를 돌렸다. 선희가 환하게 웃고있었다. 그의 모습은 전에 없이 의젓해 보였다.

《이게 누구요.》

나는 선희를 오래동안 보지 못한듯 반가움이 앞서 그에게 마주 달려갔다. 모진 마음의 진통을 이기고난듯 그의 얼굴에서는 한점의 그늘도 볼수 없었다. 목소리며 몸가짐에서는 생기발랄한 기운이 넘쳐났다.

《아버님, 저는 래일 아침 떠납니다. 아버님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다소곳이 고개를 수그리는 선희의 얼굴이 이 저녁에는 더없이 아름다와보였다.

《떠난단 말이지...》

그가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지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조국이 부르는 곳으로, 주익이가 먼저 간 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가려는게 아닌가.

《잘 생각했네. 난 선희가 이렇게 될줄 믿었다니.》

《아버님이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희는 또한번 고개를 숙여보였다.

《허, 그건 내가 선희에게 하고싶은 말이에요. 아무쪼록 건설장에서 일을 잘 하라구. 그리고 일을 끝내고는 꼭 돌아오라구.》

《알겠습니다. 그럼 전...》

선희는 나에게 깅듯이 인사를 하고 총총히 떠나버렸다. 나는 그의 모습이 점으로 줄아들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지켜보았다.

우리 애도 건설장으로 저렇게 혼연히 떠나갔었지. 그애가 탄원해갔고 주익이가 달려간 그 길로

오늘은 선희가 가고있구나. 이제 래일이면 건설장에서 주익이와 만날것이다. 그녀석이 얼마나 기뻐하랴. 그들의 사랑은 다시 뜨겁게 불타올라 위훈의 창조자로 될것이다.

선희가 그리로 달려갈 용단을 내리도록 자신이 그의 마음을 떠밀어주었다는, 발전소건설에 다소나마 기여라도 한듯싶어 가슴이 뿌듯이 부풀어올랐다. 공원에 묻혀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낸다는 허전한 심정을 가실길 없던 내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궁지감이였다.

×

그때로부터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또 바뀌이면서 북방의 도시는 많이 달라졌다.

선군혁명충진군의 발구름속에 새 공장들이 일떠서고 거리의 모습도 일신되였다. 줄지어 늘어선 고층살림집들이 화려한 색깔들로 몸단장을 하고 도로들을 새롭게 포장하였다.

나날이 변모되는 거리, 더 밝고 정갈하게 꾸러지는 도시의 아름다움은 공원에도 나래를 폈다.

공원의 군데군데에 새로운 나무들이 심어지고 놀이터들이 우아하게 장식되였다. 다님길들에는 무늬를 놓은 색블록들이 깔리고 나무걸상들도 새로 만들어 앉혀놓았다.

그 얼마후에 나는 귀가 뜨이는 소식을 듣게 되였다. 사람들의 커다란 기대속에 의진발전소를 마침내 준공하였다는 희소식이였다. 나는 그리로 떠나간 김주익과 지선희를 생각하였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가. 사랑을 맺고 위훈의 창조자가 되었을가.

그들을 보고싶었다. 마치 멀리 떨어져있는 자기 자식들처럼 몹시 보고싶었다. 그동안에 무척 변모되었을테지, 이젠 고향땅에 의젓이 돌아올텐데...

거리와 공원에 가로등이 켜진 그날 저녁, 나는 이끌리듯 공원으로 다시 나왔다. 현란한 불빛에 잠긴 공원의 새 모습을 보고싶었다. 또 하나의 발전소를 일떠세우더니 오늘은 공원에까지 밝은 빛을 뿌리고있지 않는가.

이 저녁에는 공원의 신비경에 취하여 한껏 즐기고싶다. 푸르푸레한 불빛에 젖어들어 번들거리는 나무잎새들, 그윽히 풍겨오는 꽃향기, 기분 좋게 밟히는 보도블록... 아늑하고 싱그러운 대기에 싸인 공원은 동화세계에 들어선듯 애뜻이 안겨온다.

나의 발길은 어느덧 공원의 한열 정향나무가 있는 곳으로 옮겨졌다. 우리의 주인공들이 떠나간 후 텅 빈듯해보이던 나무걸상... 오늘같은 날에 그 젊은이들이 앉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조용히 걸음을 옮기던 나는 그만 우뚝 멈춰섰

다.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정향나무밑의 결상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젊은이... 아, 그들은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있던 김주익과 지선희였다!

푸릿한 불빛에 우뚝이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은 퍼그나 변모되였다. 얼굴들은 별에 타고 그슬려 검실검실하고 눈빛들은 더 영민하게 빛난다. 어깨는 더 넓어져보이고 목소리들도 굵어진듯싶다.

그들의 넓은 가슴들에는 각각 공로메달이 빛나고 있었다. 아마 발전소준공식끝에 있는 국가표창 수여식에서 받은듯싶다.

거기에는 그들이 전투장에서 흘린 구슬땀이 깃들어있으리라.

《축하하오.》

나는 이렇게 속으로 뇌이며 그들에게로 달려가다가 멈칫 섰다. 아서라, 그들의 달콤한 이야기를 끊어놓아서 안된다. 오늘에도 위훈의 자국을 값있게 새겨온 그들, 할 일은 얼마나 많고 못 다 나눈 정은 얼마나 크랴.

나는 그들에게로 선뜻 다가설수 없었다.

《선희, 나는 오늘이 있을줄 굳게 믿었소.》

《저도 이날을 그리며 일했어요.》

두사람은 어깨를 꼭 대고 숨결을 같이하였다. 고즈넉한 정적속에 싱그러운 바람이 그들의 머리칼을 가볍게 날렸다.

《나는 발전소를 일떠세우면서도 이 공원을 늘 생각했소...》

《저를 건설장으로 떠밀어준 그 공원아바이를 잊을수 없어요. 주익동무가 건설장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또 제가 학위론문을 완성할수 있었는데... 그 아바이덕이라고 할수 있어요.》

《참 좋은 아바이요. 래일 축하공연무대에 그 아바이를 꼭 모시고 갑시다.》

나는 가슴이 후터워졌다. 피로움에 잠겨있는 처녀에게 적으나마 힘을 돋구어준것을 이렇듯 잊지 못해하니... 아무튼 주익이 건강을 회복하고 선희도 론문을 완성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랑이 보다 뜨겁게 무르익은것이 기쁘기 그지없었다. 그들은 벅찬 생활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체험했는가.

주익의 말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그 축하공연무대에서 나는 다시한번 결의를 다질테요. 장자강에 또 하나의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선참으로 달려가겠다고 말ियो. 나는 일생을 발전소건설에 바칠 생각이요.》

《주익동무가 가는 길이라면 저도 끝까지...》

두 젊은이는 꼭 잡은 손을 언제까지이런듯 놓지 않고있었다. 그들의 뿔뿔은 심장, 뜨거운 숨결이 들려오는듯... 나는 그들에게서 후더운것을 받아안았다.

아름다운 사람들, 이들은 하나의 발전소를 일떠세운데 그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건설장으로 떠나려는게 아닌가. 고향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는 불타는 심장들...

이 순간 나의 가슴에는 전에는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느낌이 갈마들었다.

이 자그마한 공원에서조차 시대의 향기를 느낄수 있구 나날이 젊어지는 조국의 모습, 새롭게 태어나고있는 우리 시대의 인간들을 볼수 있구나.

나는 어제는 딸의 온기가 스며있는 작은 손거울을 잃어버리고 생활의 한 모퉁이를 잃어버린듯 싫어 가슴이 허전해있었다.

허나 오늘은 이 공원에서 시대가 비낀 큰 《거울》을 얻은셈이었다.

사람이 생활속에서 자기 마음을 비쳐보고 시대를 보는 《거울》을 가진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허나 그 《거울》은 어느때에나, 아무에게나 생기는것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에 몸을 잠그고 호흡을 같이할 때, 우리 생활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람에게만 차례지는것이라.

시대의 거센 숨결속에서 우리 조국은 얼마나 멀리 전진하고있는가.

아름다움이 비껴있는 이 《거울》이 흐려지지 않게 닦아주고 빛내주는 《임무》가 나에게 있었다. 시대의 녀를 지닌 주익이와 선희,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 자식과 무엇이 다르랴.

이 젊은이들이 떠나가면 정향나무밑 걸상은 주인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텅 비어있을것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새로운 주인공들이 찾아올것이다.

## 나는 제자의 강의를 받는다

정동찬

처절씩

기슭의 파도소리만

숲의 설레임처럼 고요히 깃드는 무재봉

여기 중턱의 돌바위를 짚고 서서

나는 사랑하는 한 제자의 이름을

목메여 부른다

수업에 앞서 부르던 출석부의 그 이름

더듬어 부르니

어느 굽이에선가

맑고 부드러운 대답소리 들려올듯

모교의 먼길에 선생님 오셨다고 막 뛰쳐나와

내 팔소매에 매여달릴듯

그날의 산정길을

내 삼가 오르는데

어디서 날아와 감도는것이나

어린 갈매기 한마리

그날의 사연 전하련듯

무재봉 저 마루에

교과서 한페지를 펼쳐놓은듯

거연히 서있는 구호나무 곁에서

지시봉 비껴들고 그가 나를 기다리는듯

한걸음 다가서니

있을 잃은 장대의 마디마디 굴획을 따라

마치 줄기를 수놓은 꽃잎과도 같이

떨기떨기 제자의 웃는 모양 피어나는듯

내 마음속에 자리잡은것은

교정의 살랑이는 꽃발가에서 방긋이 웃던

제자의 애모쁜 모습뿐인데

여기서는 너의 불굴의 모습이

승엄한 교단우에서 나를 부르고있구나

오 꽃나이의 스승

사랑하는 제자의 수업을 나는 반노라

학창시절 그 술한 교수시간들에

늘 가르치기만 하던 이 스승도

미처 찾을수 없는 강의의 말과 글을

오늘은 그가 나에게 가르치고있구나

한그루 구호목에 생명을 내던

내 조국의 불사조들앞에서

내가 알고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혁명유산계승의 산 화폭을

내 보노라

그것을 지키는 후손들 녀에 줌이 쓸고

받드는 후손들 녀에 흑심이 끼면

그 아무리 붉은성탑우의 기발일지라도

피어린 역사를 하직하며 락엽질 때

심장을 내뱉 이 없음을

한자 한자가

천년으로 이어지고

만년으로 이어질

혁명력사의 수업을

나는 오늘 제자에게서 받는다

## 어머니에 대한 추억

송명근

### 어머니에 대한 추억

성인학교에서 우리 글을 깨친것이  
학력의 전부여서  
글 한줄 줄맞춰 쓰지 못했어도  
마음은 대쪽같은 나의 어머니였다.

세상리치 옳고 그름만은  
남먼저 깨달아  
일찌기 46년도 당원으로  
당의 품에 운명을 의탁할줄 알았다.

자식을 줄줄이 낳아키우며  
어려선 철없어 걱정  
자라나선 내세우느라 걱정  
놓지 못한 걱정이 한생인줄 알았더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것이 전부였다면  
추억이 추억다운라  
어머니 젊었을 땐  
수령님 뵈온 태성할머니를 부러워했고

나이들어서  
장군님의 전선길 쓸어드린  
구봉령의 너인을 본따려 했지

에돌줄 모르는 결국함과  
실천을  
말에 앞세우는 성실성으로  
못사람들의 앞에 서던 어머니

없고 보니  
방안이 빈것 같구나  
체소한 그 한몸이  
이리도 큰 공간을 남길줄이야

아 없고 보니  
큰 자리를 비운 사람이  
당대오의 제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당원의 번호는 지워지지 않으리니  
어머니에 대한 추억  
로당원에 대한 추억은...

### 어머니는 광부였다

어머니는 광부였다.  
전쟁이 터져  
전선으로 떠나던 날  
아버지는 광차를  
어머니에게 인계하였다

바가지에 쌀을 일던 가정주부가  
광차를 넘겨받았다.  
황해도 만년골 깊은 땅속에서  
쇠돌을 광차에 담아  
퍼내고 퍼내었다

안전등 불빛에 번들거리는  
레루에 젖은것이  
석수였던가 어머니의 땀이었던가  
전선고지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

깊어가는 막장 두줄기 레루우에 있는듯  
작은 어깨로 광차를 밀고밀었다

지난 세월 소년광부였던 아버지  
채찍아래 광차에 퍼담고 담았던것은  
노예의 설음  
허나 어머니가 밀어내는 광차엔  
총이 되고 포탄이 될 광석우에  
자주적인간의 운명이 실려있었거니

땀젖은 작업복이 마를새없던 3년!  
때로는 땀만이 아닌 피도 바쳐야 했던 3년!  
그렇게 만났다  
광차를 밀며 3년, 아버지를 마중간것이다  
광차를 밀며 3년, 승리를 마중간것이다

## 《나는 46년도당원이요》

외동딸네 집에 놀러갔다가도  
어머니는 사흘을 넘기지 못하였다  
아무리 옷자락을 부여잡아도  
뿔뿔이 떨어져 왔다며  
《나는 가야 한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그 어떤 힘이 실려있었던가  
긴말이 소용없었다  
뿔뿔이 떨어져 산으로 오르는데는

진거름 손수레를 끌고  
눈보라치는 농장길 나서던 날  
어머니를 막아서니  
결연히 하는 말  
《나는 가야 한다》

무슨 설명이 필요했던가  
차단봉처럼 벌렸던 두팔이  
내리워졌다.  
나의 어머니 그 한마디에

언제나 어머니를  
앞장에 세운 그 한마디  
뒤로는 한치도 물러설수 없는  
로당원의 의무이기라도 한듯

꽃은일 마른일에  
선참 나설 때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 뒤에는  
마음속 말이 있었다  
《나는 46년도당원이요》

##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가 그리울 때면  
일흔육생일사진을 꺼내어 본다  
아들 딸 머느리 손자 손녀  
한가득 거느리고 찍은 사진

가문이 흥성하여  
대가정 속에 둘러싸였으니  
거기에 가리워  
어머니의 모습이 파묻힌것인가

나의 어머니  
아들들을 키워 모두 군대에 보냈다  
손자 손녀도 모두 군복을 입혔다  
사진속의 군복은 몇박에 없으나  
모두 제대군인, 모두 다 당원들!

《인민군대에 가거라  
그래야 사람구실을 한다》  
이것이 어머니의 지론이었다

어머니는 대가 켜다  
그래서 무조건 복종이었다

그 많은 자식들을 업어주고  
걸어안아주며  
보수를 모른 사랑이  
때로 아픈 매를 들어도  
어머니의 회초리엔 상처를 모르거니

한생 자식들을 키워  
총대를 메운것이  
오늘에 와보니  
장군님의 선군을 받든것이였구나

선군가풍엔  
쭉정이 농사가 없어라  
장군님두리에 꽃꽂이 내세운 자식들  
그 한모습속에  
나의 어머니 모습이 있구나!

## 가사

## 봄소나기

성연일

봄소나기 내리는 농장길에서  
병사는 만났네 유치원아이  
기통임무 받고가는 길은 바빠도  
비웃벗어 아이를 감싸안았네

병사의 품에 안긴 유치원아이  
빨간별 자랑으로 신바람났네

비웃은 봄소나기 가리웠건만  
비웃속엔 쏟아졌네 웃음소나기

추녀아래 손짓는 아이를 보며  
병사는 바쁜 길 달음쳐갔네  
한줄기 봄소나기도 이 땅엔 못 내려  
넘려말아 병사는 속삭였다네

## 태양의 노래와 너가수의 삶

- 장편소설 《너가수》의 형상세계를 더듬어 -

한미영

장편소설 《너가수》(정기종 작)는 그렇듯 세계가 바라고 인간이 바라고 예술이 기다려온 태양, 그 밝은 태양은 곧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이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이심을 감동깊게 노래하고있다.

### 은영과 수미, 사랑과 예술

《난 사랑하구싶어. 사랑과 예술,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 그런데 이게 뭐야, 응? 모두가 나를 배반하구있어. 예술이 배반하구, 사랑이 날 배반하구... 그럼 난 어찌라는거야, 어찌라는거야?!》 이것은 누구의 몸부림인가. 수미의 울부짖음이다.

한생 그리도 인연깊은 두 운명의 서곡으로 되는데...

이에 반발하듯 은영의 목소리가 울린다.

《...한때 저를 두고 예술에서도 사랑에서도 불행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 보십시오.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신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고 태양의 노래를 부르는 저를 보십시오. 태양의 가수로 사는것이상 더 큰 행복이 어데 있겠습니까.》

은영과 수미간에 오가는 물음과 대답이 그대로 이 소설의 주제와 해명이다. 그것은 너인의 세계, 예술의 세계에서 울려나오는 너무나도 지당한 갈망이고 또 너무나도 확고부동한 진리이다.

우리 소설계에서 이러한 류의 문제제기와 해명이 굳이 새로운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롭게 읽히우고 깊은 여운에 잠겨들게 하는 형상적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인공의 우여곡절에 찬 성장과정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리는데는 예술적흥미를 돋구는데서도 큰 작용을 한다.》**

위대한 수령의 총애와 인민의 사랑을 받는 예술가로 성장하기까지 너가수-김은영이 걸어온 곡절많은 운명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한생 불미스러웠던 동년배의 너가수-박수미의 운명이야기까지 겹치여 사랑과 예술의 진리를 밝히는 길은 그만큼 구배 많았고 또 그만큼 의미심장하였다.

놓고보면 두 너가수는 사랑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다르게 간주하고 판이하게 행동하였다.

《처음보는 순간에 벌써 알았지 뭐야. 바로 이

남자다, 내가 찾던 그 사람이다! 하고 말이야. 의젓하고 대범한 미남자... 그런 사람을 여태 찾고 찾았는데...》 이것이 박수미이다.

《...인간을 사랑하고 생활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심중의 열정에 넘친 고백을 말이지요. 흔히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면 속삭임소리로 생각될수도 있는데 동무는 그것을 목소리로만 아니라 온몸의 넋을 다 쏟아부는, 다시말하여 벅찬 호흡으로 노래한다고 할가...》, 이것이 은영에 대한 시인 조기천의, 아니 인민의 평가이다.

예술에 대해서라면 여기서도 판이했다.

몇해사이에 창법, 무대에 서는 법, 관객의 분위기를 읽는 법을 배우고 터득하는것이 박수미의 예술이었다.

《인생의 모든것, 기쁨과 슬픔은 물론 희망과 고뇌도 노래로써 터지게 되리라》고 믿고있는것은 은영의 예술이었다.

우연이랄까. 사랑이나 예술에 대하여 먼저 울조린쪽은 늘 수미권이요 은영이권에서는 항상 침묵뿐이다.

이 점으로부터 두 인생은 한평생을 얼마나 멀어져왔는가.

소설은 두 너가수가 건계 된 곡절많은 운명의 시작점을 어떤 우연적계기에 맞추어 점찍어놓지 않고 판이한 두 인생관의 말없는 충돌로 정하였다. 시종일관 호기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소설의 전과정이 순수 흥미본위적인 사건들의 련결로 안겨오기보다 값높은 진리의 탐구과정으로 다가드는것은 그 시작에 벌써 이렇듯 심각한 인간문제를 제기하였기때문이다.

은영의 사랑, 은영의 예술.

그는 누구의 무엇을 사랑하였던가.

해방전 비수같은 형사의 눈꼬리를 늘 달고다니며 지하투쟁에 동분서주하던 림호, 해방후에 역시 지하항쟁투사가 되여 《해방자》로 자처하며 분열을 꾀하는 미제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쟁을 준비하던 림호, 은영이더러 녹거리돈과 꽃다발에 끌려드는 너가수가 아니라 지리산의 녀성유격대장처럼 사람들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인민의 너가수가 되도록 이끌고 고무하던 그 림호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노래라면 운명적인 결혼식날 نوم들에게 체포된 림호가 사형장에서 부르던 노래-영명하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북으로 가자고 부르던 노래-《산으로 바다로 가자》를 사랑하였다.

뜻이 크고 심장이 뜨겁던 림호, 그를 사랑했던 까닭에 은영은 림호의 무참한 희생앞에 눈물만을 쏟은것이 아니라 림호가 부르던 노래대로 태양을 향해 가는 길에 들어서는것이다.

희생된 림호, 아버지, 동생 일한이들이 남긴 넋을 다 합쳐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은영은 즉시로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남조선인민들속에 보급하였고 전선지구 경비사령부협주단의 성악조 중대장이 되어 가는 곳마다에서 멸적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높이 부른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어 북으로 달리는 자동차적재함에서 넋을 저버린 수미가 딸 현순이를 꺼들며 은영이더러 남쪽에 떨어지자고 행악스럽게 부르짖을 때도 그는 빛을 따라 북으로, 북으로 향한다.

화염, 불소나기, 가슴아픈 희생 그리고 노래속에서 은영은 두번째 사랑을 체험한다.

그는 시인 조기천, 인간 조기천을 사랑하였다.

피흐르는 전장에서 많은 인민군병사들이 자기의 수첩에 써가지고 간수하던 서사시 《백두산》, 협주단배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적의 수류탄을 몸으로 덮고 희생된 한 보병중대장의 가슴에도 시 《백두산》을 적은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피묻은 수첩을 자기 군복의 앞섶에 간직하며 은영은 민족이 그토록 우러러 칭송하며 목숨으로 옹위하는 백두산호랑이-**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함께 그분을 이토록 높이 칭송한 시인 조기천을 그려본다. 두 《가수》의 상봉은 김은영이 오매에도 그리던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공연한 날에 운명적으로 이루어진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노래를 잘 부른다는, 자신께서도 한번 꼭 만나보시겠다는 분에 넘치는 신하를 받아안은 그날 김은영은 열정의 시인 조기천과 만나 태양과 예술에 대한 공동의 지향으로 손을 잡는다. 그러나 운명은 너무도 지쫓았다. 우리 서로 태양의 가수, 태양의 시인이 되자던 두 사람의 약속은 그토록 아름다웠으나 조기천이 미제의 폭격으로 희생되어 은영의 가슴에 또다시 깊은 상처가 새겨진다.

여기서 김은영은 쓰러질것인가. 녀성으로서 그의 사랑은 끝난것인가. 만일 은영이 림호와 조기천을 순수 이성으로 대했다면 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절망했을것이다.

그는 남녘인민의 가슴속에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흠모심을 심어주고 새날을 부르며 간 항쟁투사를 사랑하였다. 그는 수령과 인민으로부터 《진정 백두산처럼 크고 위대한 사랑을》 받은 열혈시인-참된 애국자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은영자신이 애국자였다. 그리하여 은영은 계속되는 운명의 곡절을 박차고 림호처럼, 조기천처럼 태양을 향하여 질주한다.

이러한 너가수-김은영의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어 걸음걸음 빛을 주고 열을 주신분은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너가수를 친히 만나주시여 김은영일가가 남조선에서 당한 참사와 일시적인 전략적후퇴때 두고온 딸과 어머니, 그가 해방직후부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무대에 나서 노래를 부른 소행이며 전선지구협주단에서의 공연활동에 대하여 들으시고 결백하고 량심적인 예술인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의 그 바쁜신 가운데서도 김은영의 마음속불행을 잊지 않으시고 전선너머 적후에서 가수의 어머니와 딸, 동생들모두를 데려오도록 육친적사랑과 은정을 베푸신다.

뿐만아니라 전후에도 김은영을 만나주시여 홀로 살고있는 그의 가정형편을 심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동무와 같은 예술인들을 아끼는건 바로 동무들이 우리의 투쟁을 노래로써 힘있게 고무해 주고있기때문이요. 그래서 가정사에까지 관심하는 것이지...

은영동무, 일부 사람들이 동무를 모해하려 한다는데 언제든 당만 믿으면 돼.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꺾이지 마오. 언제든 예술가는 인민의 사랑을 제일 큰 표창으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요.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수령님! 수령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생 인민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살겠습니다.》

은영은 바로 그렇게 살았다.

전후 은영의 과거를 따지고, 터무니없이 의심하고 반동노래를 불렀다는 감투를 씌워 제거해버리려는 나쁜 놈들의 책동이 우심할 때에도, 지어 원쑤의 간악한 흉계로 창끝같은 철골들이 삐죽삐죽 내뿜은 건설장의 기초구덩이속에 떨어져 죽을뻔하면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는다. 끝내는 반동분자들의 작간으로 국가적인 무대에 아닌 지방순회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소련대에 밀려나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모란봉예술단(당시)의 성악지도원으로 돌려져 아무런 명예칭호도 없이 일하던중 나이가 많아 자택에 들어갔을 때에도 수십년전 수령님앞에서 다진 맹세대로 한모습, 한목소리로 전쟁로병예술선전대에 들어가 노래를 부른다. 하다면 한때 국내국외에서, 포화속의 무대우에서, 전후복구의 수많은 건설장들에서 그리도 아름답게 울리면 그의 노래,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축복해주시던 그의 예술은 이것으로써 막을 내렸는가. 녀성으로서는 남편의 웅심깊은 사랑도 없이, 가수로서는 이렇다할 아무런 명예칭호도 없이...

아니, 사랑과 예술은 그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의 인생을 서둘러 총화하기는 이르다.

텔레비죤에 로병예술선전대활동이 잠깐 비칠때 그를 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사랑하시던 가수라고 추억하시며 즉시로 너가수의 지난 생애를 알아보신다. 수령님께서 아시고 내세워주시는 너가수를 무대우에서 제거해버리려고 비렬하게 책동해온 나쁜 놈들의 작간으로 수십년세월을 묻혀산 김은영의 곡절많은 과거를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그의 여든둘생일을 당에서 차려주는 것과 함께 독창회를 열어 텔레비존으로 널리 소개할데 대하여은 정깊은 가르침을 주신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가수들도 80고령에 노래를 부른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 때에 한 나라 정도자로부터 생일여든둘을 맞으며 독창회를 하도록 해주신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은 주인공 김은영.

고령의 너가수는 위대한 수령님의 총애와 인민의 사랑에 싸여 청춘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김은영이 인생의 총화로 선택한 노래-《하늘처럼 믿고삽니다》의 절절한 선물이 온 나라, 온 세상에 울려 퍼진다.

소설의 마지막글줄과 더불어 시종일관 더듬어온 태양에 대한 철학이 밝혀진다.

해방전 서울에서 열린 《전국녀중생(당시)들의 성악콩쿨》에서 김은영이 택했던 《오, 나의 태양》, 세계명곡을 불러야만 1류가수로서의 전망을 론하는 것이 당시의 유행이었던 까닭도 있었으리라와 왜놈에게 짓밟혀 시들고 속마한 설움겨운 녀의 몸부림이 《오, 나의 태양》을 찾았던것 아닌가. 그 태양을 찾는 길에서 림호와 녀를 합쳤고 노래를 불러도 애국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불렀던것 아닌가.

환희가 흐르는 노래이나 눈물로 부르지 않으면 안되었던 《오, 나의 태양》으로부터 김은영이 인생의 총화로 부른 《하늘처럼 믿고삽니다》까지에 체험으로 쌓고 의지로 쌓아온 만단사연.

자기 인생의 절정에서 그가 찾은 태양은 결코 나폴리항구를 비치는 태양이 아니었다. 그의 태양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속에서 빛나고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의 선물로 송축되고있었다.

오, 태양, 인생을 꽃피워준 태양. 그리하여 소설은 태양을 따르는 길에서 참된 사랑과 예술을 꽃피운 아름다운 너가수에 대한 공감으로 사랑의 태양, 그 태양빛에 싸여 만사람의 박수갈채를 받는 행복한 너가수에 대한 축복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다.

반대로 사랑을 《의젓하고 대바른 미남자》로, 예술을 화려한 꽃다발과 박수갈채가 넘치는 공연무대로 국한시켰던 박수미는 시기와 질투, 배신과 타락속에서 몸과 마음을 망쳐먹고 끝내는 자살의 길을 택하고만다.

녘에 대해, 신념에 대해, 애국에 대해, 태양에 대해 단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는 수미는 스스로 사랑과 예술을 배반하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의 북행길에서도 달아나며 대북방송에 대고 한때의 애인과 벗을 앙칼지게 헐뜯기를 서슴지 않는다. 평생 고독하고 불행하여 말년에 제손으로 목숨을 끊은 박수미의 운명선은 그나름으로 의미심장하다.

은영과 수미, 사랑과 예술.

환희와 절망, 성공과 타락의 두 극단에 서로 상반되는 운명의 길을 걸어온 두 너가수를 세워놓

고 태양을 중심으로 참된 사랑과 예술의 진리를 밝히는데 이 소설의 주제사상적무게가 있다.

## 독특한 목소리들, 독특한 성격들

가수라면 응당 자기 고유의 창법을 가져야 한다고들 한다.

테놀, 바리톤, 바스, 쏘프라노, 알토... 가수가 무대우에서나 지어 생활에서까지 이름대신 창법으로 불리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극히 자연스럽다. 그만큼 창법은 가수의 개성이며 그 얼굴이다.

창법은 초기에 가수의 타고난 목소리, 즉 타고난 음색(소리색깔), 음량(소리의 량), 음고(소리높이)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역시 시작일뿐 자기의 독창적인 창법을 가지는데는 가수의 피타는 노력과 강한 인내력, 불변의 의지가 필요하다. 높은 리상, 한생을 통한 련마...

창법이자 가수의 개성이며 또 그의 구체적인 인간모습이라고 일컬어는대는 바로 이런 관계가 작용하기때문이기도 하다.

장편소설 《너가수》인 경우 작가는 이러한 음악세계의 론리, 성격의 론리에 충실하였다.

필연에 의해 너가수 김은영의 주위에는 각양각색의 가수들이 언제나 밀집되어있다. 그 때 인물은 김은영의 운명에 저마다 지울수 없는 흔적들을 남겼다.

박수미, 고종우, 강상일, 한정애...

전형적인 조선녀성-《외유내강》미를 체현한 김은영이 개성이라면 금방 련거한 남녀가수들도 그에 못지않게 개성적이다. 우선 은영부터 보자.

특색있는 소리색깔로 노래를 부르는데다가 틀동도 좋고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맑고 명랑하게 표현하는 김은영-그는 목소리뿐아니라 틀동으로, 호흡으로, 즉 온 정신과 온몸으로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한생도 그렇게 불태워왔다.

꼭절많은 한생을 걸어 80고개에 이르렀지만 아침마다 발성련습을 하고 화장을 곱게 하고, 꼭 무대에 나서는것처럼 몸과 마음을 가꾸는 김은영이 야말로 《선녀》이다.

그런가 하면 박수미는 어떠한가. 그에게는 자기의 창법이 없다. 남보다 일찍 무대에 섰고 또 남보다 일찍 성대가 변했다고 늘 팔자타령이다. 하지만 타고난 눈매와 몸매가 있어 무대를 열고 닫는 소개자로, 그다음은 연극무대로 또 영화배우로 떠돌며 비칠거린다.

예쁘고 요염한가 하면 암상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수미. 은영과는 시작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영키여 은영의 사랑과 예술을 얕미웁도록 질투하고 허빈다. 그는 사랑과 예술에서 타락한 탕녀이다.

고종우-바리톤가수답게 부드럽고 웅근 목소리를 가졌고 속궁냥이 깊다. 흰칠한 키에 모든것이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조화롭게 자리잡은 미남자



이다.

온화하고 점잖은 사람, 아니 그보다 중요한것은 그가 언제보나 깨끗하고 성실한 그것이다. 한생 평소에나 무대에서나 은영이와 떼어놓을수 없는 상대역이었다. 《콩쥐팍쥐》무대에서는 엄엄한 왕이지만 분장을 지우고 의상을 벗기면 절제있고 단정한 사나이로 돌아오는 사람, 생활에서는 그것이 때로 어리무던하고 유약한 성격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반동놈들이 터무니없는 감투를 씌워 무대우에서 제거해버리려고 날뿔 때 김은영은 이겨냈으나 고종우는 끝내 견디어내지 못했다.

레논가수-강상일. 일명 《강투사》로 불리운다. 맑고 쟁쟁한 목소리처럼 날과람있고 건결한 사람이다. 서울해방시 은영과 함께 전선지구경비사령 부협주단의 한성원이 되었고 부민관에서 은영이 노래를 부를 때 그 발치에 수류탄이 떨어지자 고양이처럼 날래게 몸을 날려 그것을 잡는것과 동시에 무대옆의 창문으로 뿌려던졌다. 뒤미처 울린 폭음.

그는 이 소행을 계기로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봄노래》, 《산으로 바다로 가자》를 지킨 《투사》로, 은영의 생명을 구원한 은인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 정의감, 그 용감성이 《강투사》의 노래였고 개성이었다. 그는 고종우를 가리켜 《영국신사》라 일컬으며 증을 내었다.

그런가 하면 은영의 동생 차한의 첫 애인이며 은영의 제자인 한정애는 70을 퍼그나 넘겼지만 아직도 옛시절처럼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는다.

이렇게 더듬으니 이 장편이 흡사 노래로 가득 찬 무대처럼 느껴진다. 독특한 창법, 독특한 성격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어울리는 다채로운 무대처럼 느껴진다. 그만큼 작가는 노래이자 인생이고 인생이자 노래인 가수들의 세계를 파악하려고 애썼고 또 파악하였다.

여기서 더욱 공감되는것은 작가가 몇몇 인기있는 가수들의 세계를 벗어나 생활이자 노래이고 노래이자 생활인 우리의 현실, 그 현실속에 사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음악세계에 보다 충실하였다는 그것이다. 은영을 주인공으로 한 고종우, 강상일, 한정애들이 그토록 친근하게 느껴지는것은 각자의 창법이 독특해서라기보다 그들이 그 창법으로 인민이 사랑하는 노래, 조국이 사랑하는 노래를 한생 불러왔기때문이다. 반대로 수미의 한생이 그토록 역겹게 느껴지는것은 그 녀자에게 특별한 창법이 없기도 했거니와 노래로 예술을 모독하고 인민을 모독했기때문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매 가수의 성격을 그의 독특한 창법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격이 높게 개성화한것은 생활과 예술, 인민과 예술에 대한 작가의 높은 지성세계의 반영이라고 보게 된다.

한편으로 무대밖에 설정된 인물들도 주도세밀하게 개성화되었다.

지하항쟁투사 림호, 외형으로 보면 쥐색 가을의

투에 중절모, 피기없이 창백하고 강마른 얼굴, 우묵하게 패운 눈확, 그러나 마음속에는 불과 노래가 있다.

은영의 딸 현순, 감때사나운 아버지 림호의 절충한 피가 맹렬히 뛰고있어 온순하지 않다.

《꼭새가 새끼들에게 어떻게 나는 법을 배워주는지 내 이미 말했지? ... 바로 이런 벼랑우에서 새끼들을 떨구어버린다. 하나하나 밀쳐서 떨구며 자, 하늘을 향해 날아라! 하고 웨친단 말이다. 그 새끼들이 날개를 퍼덕거리며 하늘을 날면 꼭새가 되는거구 날개를 퍼지 못하면 떨어져 죽고마는거야.》-이는 은영의 아버지이다.

래양에 대한 절대적인 그리움, 불같은 열정, 어린애와 같은 천진성, 순진성 그리고 안경-이는 시로 노래하는 가수-조기천이다.

부정인물로는 오확성이 두드러지게 개성화되었다.

그는 막대기같은 초당분자이다. 재능은 없이 예술가의 허울을 뒤집어쓰고 예술계에 기여들어 재능있는 사람들을 질시하고 짓밟으며 권력을 배경으로 출세의 길만을 모색하는 인간이다. 음악지휘를 영영 버리고 사람들을 지휘하면서 더더욱 까다로와지고 엄격해지는 인간이다. 부위원장-오확성, 부총장-오확성의 성격은 예술계의 암초로 타매되었다.

보는바와 같이 모두가 개성적이다. 누구나 내면세계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다.

여기서 우리는 성격중심론을 틀어쥐고 매 인물의 성격을 마지막까지 주도세밀하게 여물리운 작가의 놀라운 수완을 엿보게 된다.

성격들의 충돌과 화해, 결합 혹은 결별... 그 매력에 이끌리워 쉬이 책을 덮지 못한다.

## 세련된 심리묘사, 박력있는 문제

《안녕히...》

시인이 모터찌클의 발동을 걸었다. 우당탕탕! ... 참고참아 오던 걱정이 배기가스로 뿜어나오는 듯... 시인이 올라타는것과 동시에 모터찌클이 후닥닥 앞으로 뱅기듯 달려나갔다

《또 만남시다!》

시인의 웨침소리, 은영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불시에 눈물이 콧 쭉시고 미움이 저릿저릿해졌다. 아니, 선생님. 우린 다시 만나지 않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은영은 그가 달려가는 모습을 점도록 지켜보고있었다. 어느덧 차식을 가진 어머니로 된 정애, 그런줄도 모르고있었다. 아니, 알고고도 하지 않았던것 같다. 그러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던가!...

꽃신 한짝 남기고 사라진 그대

가신 곳이 어데뇨 은별방인가

한 어린애가 엄마손을 잡고가며 노래하고있었

다.》

《화염이 휩쓸고 돌가르며 흩먼지가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덜컥 차가 떴어섰다. 사람들이 일시에 앞으로 확 쏠리며 비명을 질렀다. ...뺏어진 자동차가 다시 부릉거렸다. 재채기하듯 괴롭게 탕탕거리며 용을 썼다. 그때 은영은 자기의 몸이 적재함너머로 기우뚱 쏠리는것을 느꼈다. 누가 차 밑으로 밀어냈는지, 아니면 혼란되어있던 그자신이 몸을 던지려 했는지 알수 없었다.

... 〈왜 그러우. 밥숟갈 놓을려구 그래?〉 그 순간 은영은 이를 덜덜 떨며 머리를 들었다.》

잇달아 또 인용하고싶은 묘사문들이 이외에도 무수하다.

어느때나 맞붙어돌아가는 행동과 심리, 쉬임없이 이어지는 행동과 행동들의 틈을 비집고 크고 작은 심리들이 날카롭게 들어박힌다.

감수력이 빠르고 예민한 은영에게 어울리는 심리들이 역시 그에 맞는 환경을 타고 바늘끝처럼 내보여진다.

때로는 은영이 내심으로 부르는 노래의 몇구절이 그대로 소개되기도 한다.

날개옷이 없구서야 하늘로 어이 가리

날 두고 가는 선녀 말이나 전해주

...

이 일을 어이하랴, 옥황님 난 못가요

실로 자연스럽다.

행동이 따로 돌고 심리가 따로 도는 불협화음을 도저히 느낄수가 없다. 가수답게 노래로 속마음을 내비치는것-이 또한 조화롭다.

특수한 묘리도 아니다. 성격과 생활에 충실한 그만큼이다

작가는 은영을 알고 음악을 알았다.

그리고 생활에 충실하였다.

때문에 이 작가에게 있어서 심리묘사란 그리 힘든 수업이 아니다. 예리한 분석력, 지성적사고력으로 행동속에서 심리를 포착한다. 꼬집어낸 심리는 길게 퍼지 않고 짧게 묘사한다. 그리고는 재차 또 행동이다. 상대적으로 행동은 없고 만단사연을 풀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때에도 그에 맞는 노래 몇구절로 비약해 넘긴다.

이것은 부단히 움직이는 생활, 정지를 모르는 생활의 요구이며 또 은영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렇듯 세련된 심리묘사로 하여 소설에는 지성미가 흐르고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로 속도감이 있게 읽히운다.

소설의 세련미는 박력있는 문체에 의해서도 부각되고있다.

음악이 흐르는 문체, 흐름새와 박자가 있는 문체

《은영은 바빠 걸었다. 주위세계는 온통 소리로 차웠다. 살아숨쉬는 모든것이 소리를 내고있다. 그 모든 소리가 들끓는 삶의 노래로, 건설의 교향곡으로 화음을 이루고있다. 여기서는 시시한 잡음이 끼일 자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영은

어수선한 구석에 앉아 거품처럼 잦아드는 잡음에 귀를 기울이고있었고 라운친의 허튼 소리에 얻어맞은것처럼 비틀거리고있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차츰 거울속의 은영이가 눈뜨는것이 알린다.

아! 이것이 바로 나 은영이다. 죽지 않은 은영이다. 이제 날이 밝으면, 새날, 새 아침의 태양이 솟아오르면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떠설 은영이의 모습이다.》

거의 모두 단순문들이다. 단순문들이 서로 꼬리를 물며 서로를 재촉한다. 그 짧은 박자에 맞추어 분석의 심도가 한발자국씩 깊어진다.

일정한 톨조를 가지고 반복되는 단순문들에 의해 소설전체의 음악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었다. 그리하여 이 소설은 내용도 음악이요, 문장도 음악인 진짜배기 《걸볼안》이 되었다.

복합문들인 경우에도 그 리치는 마찬가지로이다.

《예술가들마다 자기의 독특한 주법이 있고 창법이 있다. 그것을 위하여 피나는 훈련을 거듭한다. 피아니스트들은 순간에 건반을 때리는 타치의 박력이 손가락으로 못을 때려박을 정도로 되었을 때,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온몸의 힘과 열정이 활에 집중되고 악기통을 울리게 될 때, 성악가수들은 배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소리통이 굴뚝처럼 쏠릴 때 비로소 자기의 주법을,자기의 창법을 찾게 된다고 말한다.》 이 레문은 복합문치고도 긴 편에 속한다. 그러나 쉽게 읽히운다. 깨알만 한 반점을 서로 사이에 두고 같은 톨조를 가진 문구들이 규칙성있게 반복되었다. 때문에 숨길이에 맞춤형 리듬성과 함께 톨동적인 운동감이 조성된다.

한마디로 이 소설의 문체에는 맥박이 있다.

특, 특 살아서 뛰는 문체이다.

음악으로 말하면 강약의 부단한 반복이라 할가.

시로 말하면 보석조각같은 운들이 박혀있는 멋진 시행의 련속이라 할가.

그렇듯 박력이 있어 문장마다에서 힘이 느껴진다.

세련된 심리묘사 역시 세련된 문체미.

묘사에 이끌리고 문장에 이끌리어 미끄러지듯 읽게 되는 비교적 매력있는 소설이다.

×

하나의 장편소설을 두고 많은것을 론하였다.

파하달만치 길어진 호평이 아닐가.

물론 채 피력하지 못한 부족점도 있다.

알게 모르게 감축되는 작가의 지나친 주관, 엄밀한 생활의 논리에 지나친 주관이 가느다란 실금을 내고있다. 꼭 메꾸어야 할 틈이라고 본다.

총적으로 장편소설 《너가수》는 성공적이다.

많은 독자들이 《너가수》를 사랑한다.

평자도, 독자도 작가- 《너가수》에게 《재청》을 요구하고있다. 작가는 지금 어떤 새 《노래》를 쓰고있는지... 끝없이 기대되는 마음이다.



-한 청년탄부의 수기-

안명국

## 1

파아란 하늘가에 송이구름이 흰 꽃처럼 아름답게 떠있던 어느 가을날의 문학시간이었다.

리수복영웅의 위훈담을 이야기하는 처녀선생의 목소리는 흥분에 젖어있었다.

교실은 고요한 정적속에 잠겨있었다. 누구나가 영웅의 모습을 그려보는듯 숨소리마저 죽인채 녀선생의 물기배인 눈을 지켜보고있었다.

이야기는 끝났고 근엄한 눈빛들이 교원과 학생들사이를 오갔다.

초롱초롱 반짝이는 학생들의 눈매를 사려깊은 눈길로 지켜보던 문학선생은 교탁에 다가서며 입을 열었다.

《동무들속에서 누가 영웅이 남긴 시를 읊어보겠습니까?》

선생님의 물음에 나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이 땅에 그런 결전의 시각이 온다면 서슴없이 몸을 내달 각오로 충만되어있던 나는 영웅의 시를 남달리 애송했던것이다.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서른쌍이 넘는 눈빛들이 총창을 비껴들고 적의 화점을 향해 육박해가는듯 한 감정에 잠겨 시를 읊는 나를 지켜보고있었다.

...

우리가 막장에 갇히운지 하루가 지나갔다.

피피한 정적이 스며든 봉락된 막장에 앉아있는 나의 머리속에서 이제는 기억속에 희미해가던 여려해전의 일이 왜서 이 순간에 떠오르는것인지 알수 없었다.

《창일이, 또 시작해볼가?》

최수환아바이가 거울진 손으로 수동드릴을 잡으며 나직이 하는 말이었다.

막장을 인계받고 발파구멍을 뚫다가 웃편도의 고굴에서 흘러든 물에 젖은 탄맥이 봉락되면서 우리 세사람이 갇힌것은 어제 저녁이었다.

전기드릴은 1차봉락에 전기선이 동강나 가동할수 없게 되고 정전이 되거나 불리한 정황속에서 발파구멍을 뚫을수 있는 수동드릴로 외부와의 모든 련계가 차단된 상태에서 작업한다는것은 말그대로 힘에 겨운 일이었다.

그것도 큰 24시간 가까이 밥 한술, 물 한모금 들지 못했고 계속 봉락되는 석탄에 하반신이 묻힌것을 파내며 올라오고 또 파내느라 기력이 빠

졌었다. 이제는 안전한 위치에 올라왔다고 생각될때 가쁜 숨을 내쉬며 탄벽에 기대앉은 나에게 발파구멍을 뚫자고 하는 최수환아바이의 말에 나는 실로 경악에 가깝게 놀랐었다.

《왜 그렇게 놀라나. 우리가 갇혀있다고... 허허.》

아바이의 길쭉한 얼굴이 소대장을 향해 돌리지며 뒤따라 웃음소리가 울리었다.

나는 어쩌면 저렇듯 심사가 편할수 있을가 하는 생각에 허거프게 따라웃었다.

《창일아, 여긴 방금전까지도 우리의 일터였어. 그러고보면 우린 굴속에 갇혀있다는 특수한 조건만 아니라면 자기의 일터에 그냥 있는셈이 아니겠나?》

아바이의 말에 소대장이 동감을 표시했다.

그렇게 뚫은것이 벌써 열구멍이 된다.

그런데 또? ... 대체 몇구멍이나 뚫자는것인지...《아바이, 창일이가 힘들어하는데 좀 더 쉬고 하지 않겠어요?》

채영훈소대장이 유심히 나를 바라보고나서 아바이에게 말했다.

안전등빛에 희미하게 드러난 소대장의 헬쭉한 얼굴을 보고는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 가늠키 어려워 나는 덤덤히 앉아있었다.

《그럼 그렇게 하자구.》

아바이가 조용히 수궁했다.

그런 아바이를 보는 나의 마음속엔 이름할수 없는 야속함과 고까움이 자라고있었다.

저 아바이가 아니었다면 사실 나는 여기에 이렇게 갇혀있지도 않을것이었다.

누구나가 그러하겠지만 중학교를 졸업할 때 나의 꿈은 리수복영웅처럼 생을 빛내이는것이였다.

교정을 나서던 그날 문학선생님은 나의 손목을 꼭 부여잡으며 《창일학생, 학생이 격정에 넘쳐 읊던 영웅의 시를 생각하며 한생을 살기를 바래요. 정다운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은 비록 끝났지만 이 땅을 받드는 인생의 수업시간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것을 잊지 말고 영웅처럼 훌륭하게 살리라고 믿겠어요.》 하던 다정한 목소리가 지금도 귀가에 생생했다.

그런데...

아바이의 말대로 정말 수백톤에 달하는 석탄이 방폐목을 메워버렸다면 탄광에서 구조전투를 벌린다 해도 한주일엔 실패할것이었다.

그 기간이면 설사 석탄속에 묻히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공기가 부족한 막장속에서 질식되거나 먹고 마시지 못해 견디어낼수 없을것이다.

막장에서 수십년동안 일해온 아바이가 이런 속

에서 발과구멍까지 뚫는다는것은 사실상 죽음을 앞당기는것으로밖에 달리 될수 없다는것을 모르지는 않을것이였다.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게 내 운명을 역전시켜놓은 아바이에 대한 불만이 커가면서 나의 머리속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날의 아바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은 내가 중학교를 졸업한 직후의 일이었다.

《창일이 엄마 있나?》

퇴근길인듯 수환아바이가 석양빛이 흘러드는 부엌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니, 이거 아주버니가 어떻게? 어서 들어오시우. 애 창일아, 영단이 아버지가 오셨다.》

나는 합숙생활에 필요한 준비를 하다가 아바이를 맞았다.

《응, 마침 있었구만. 시내의 공장에 내려간다면서...》

우선우선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선 아바이는 내가 권하는 방석을 깔고앉으며 넋지시 물었다.

《예, 래일 시로동과에서 파견장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대답했다.

《그래?...》

어머니가 물묻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들어왔다.

《창일이 엄마, 내 창일이 장래문제때문에 왔수다.》

아바이는 자기 자식의 장래문제의 락관적해결을 보기라도 한듯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최수환아바이와 나의 아버지는 한 중대에서 군사복무를 했다. 그리고 제대군인들이 서창청년탄광을 개발할데 대한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받아안고 함께 달려와 개발전투에 참가하고 운명을 같이해온 전우였고 둘도 없는 막역지우였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바이는 가끔 우리 집 일을 도와주곤 했었다.

나는 아바이의 입에서 어떤 기쁜 소식이 나올가 기대하며 그의 길쭉한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디 좋은데라도 있는가요?》

어머니가 바투 다가앉으며 궁금한듯 물었다.

《아버지의 뒤를 잇는것이상 더 좋은 직업이 어디 있겠소. 그렇지 않은가요? 창일이 어머니.》

나는 아바이의 주름진 얼굴을 쳐다보았다.

저 말이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것인지 알고싶었다.

아바이는 조용히 웃고있었다.

그 어떤 지어낸 감정도 없이...

《래일 새로 오신 탄광초급당비서동지를 만나보아라... 그럼 난 어디 들릴데가 있어서 그만...》

그때 나는 어머니의 얼굴에 이름할수 없는 표정이 어리는것을 보았다.

그것이 의아함인지, 야속함인지 나로서는 대중해낼수가 없었다.

《아니, 왜 벌써 일어나시우? 저녁식사라도 하고 천천히...》

《그랬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아바이를 바래우러 나가면서 나는 속으로 영단을 이끌고 곁게 생각했다. 영단이는 최수환아바이의 딸이였다.

(그 땡추같은게 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구나. 그래도 아버지들이 친구간이었다고 살갑게 대해줬더니...)

나에게 있어서 한책상에 앉아 공부한 그가 그렇게까지 알뜰게 생각되기는 처음이였다.

이튿날 나는 당비서를 만났고 탄광로동과에 내려온 파견장을 받고 탄부가 되였다.

이것은 최수환아바이가 나를 위해 《극진히 마음써준 덕분》이였다....

그때 만일 아바이가 나의 일에 《관심》을 돌려주지만 않았어도 나는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리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 2

《소대장동지. 좀 쉬고 하지 않겠어요?》

나는 수동드릴을 돌릴 기력이 점점 쇠진해져 부락조로 말했다.

《우리 막내가 쉬자면 그렇게 하자구.》

소대장대신 아바이가 수궁했다.

아바이의 얼굴에 험한 웃음이 비껴있었다.

《아바이, 이제 몇구멍이나 더 뚫어야 하나요?》

나는 기운이 진해가면서도 수동드릴을 놓지 않는 그들의 행동이 의문스러워 물었다.

《몇구멍?》

아바이는 숨이 찬듯 짙게 호흡하다가 나직이 말했다.

《난 18개는 뚫자는거야.》

아바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소대장을 쳐다보았다. 채영훈소대장은 의미있게 웃고있을뿐 아무 말도 안했다.

《창일아!》

아바이는 제 자식의 이름을 부르듯 다정히 나를 불렀다.

《우린 탄부지. 탄을 떠나서 우리의 생명을 론할수 없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소대의 로당원인 저 수더분한 아바이의 신조였는지도 모른다. 하긴 아바이가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는 오늘까지도 탄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쳐온 사람임을 나는 안다. 아바이의 말대로 자기가 잠자는 보화를 깨워 경제건설로 들끓는 조국의 방방곡곡에 보내준 석탄이 아마 수천만톤은 실히 될것이라고 하던 궁지스러운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그런데 이제는...

아바이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창일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지? 내가 한번 맞춰볼가... 지금 우리가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무엇때문에 한두구멍도 아니고 18개나 되는 발과구멍을 뚫자고 할가, 이거지?》

나는 나의 심증을 꺾어내는 아바이의 신통한 통찰력에 놀라운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다.

《동지들이 구원해줄 때까지 가만히 누워 기다리기로 했다면 아마 우리 세사람중에 한사람은 벌써 피가 식었을지도 몰라. 그러구 앞으로 우리 중대는 또 여기서 석탄을 캐야 하거든. ... 자, 그럼 우리가 왜 18개의 발과구멍을 뚫자고 하는지 창일이야 한번 대답해보라구...》

아바이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나는 어이없는 생각이 들어 픽 웃었다.

《아바인 마치도 학교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듯 하는군요.》

《그래?》

아바이가 절절 웃었다. 그 웃음속에는 어딘가 다감한 감정이 숨배여있는듯싶었다.

마치도 학창시절의 선생님처럼...

《창일이, 조국앞에 학생의 자세로 서있는 사람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난 생각하네. 그것은 삶의 매 순간을 참된 수업시간으로 여기고 살기때문이 아닐까?》

나는 반백의 아바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의미심장한 말에 별스레 가슴이 후터워움을 느꼈다.

그것은 어찌보면 벌써 몇해전에 헤어진 못 잊을 스승들의 모습으로 보여왔기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바이.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갇힌지 이들이 지났는데 왜 공기가 탁한 느낌이 안들까요?》

아바이의 곁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던 영혼소대장이 리해가 안된다는듯 물었다.

나도 몇시간전부터 묻고싶었던 말이였다.

《이건 분명 탄광의 일꾼들과 동지들이 우리가 살아있다는것을 믿고있다는것을 의미하네. 그래서 지금 압축공기를 우리쪽으로 쏘아올려 공기를 환기시킨다고 볼수 있지.》

확신에 가까운 어조로 울리는 아바이의 목소리에서는 충만된 믿음이 느껴졌다.

《소대장동지, 우리가 갇혀있는 동안에 중대는 계획을 했을까요?》

만일 이렇게 갇속에 갇히지만 앓았더라면 월계획은 이달말까지 150프로로 넘쳐수행했을것이였다. 그리고 그렇게만 되였다라면 아바이의 딸인 영단앞에 가슴내밀고 나설수 있었을것이였다.

《창일이, 걱정말라구. 광차를 받으러 가느라구 남아있던 소대원들이 아마 우리 뒤편까지 다 했을거네. 그러니 창일인 소대장과 함께 계획을 넘쳐수행한 사람들에게만 차례지는 가족축하정양에 참가할 꿈이나 꾸라구.》

흔연스레 하는 그의 말이 나에게서는 웃음을 자아냈다. 살아남는것 자체가 의문시되고있는 이 마당에서 뭐 가족축하정양까지...

아바이는 얼마전 정양의 날에 있었던 일을 감회깊게 추억하는듯 잠시 말이 없었다.

《내가 중대에서 혁신자로 뽑혀 정양에 참가하였던 날은 내 인생에서 참으로 잊을수 없는 날중의 하루였소. 기업소에서 차려준 풍성한 식탁에 마주앉아있는데 정양소소장동무가 지배인동지에게 이젠 시작해도 되지 않겠는가고 묻더군. 그러

자 지배인동지가 손목시계를 보더니 조금만 기다리자고 말하더군. 우린련합기업소에서 우리를 축하해주려고 일꾼들이 오는가 했네. 조금 지나서 정양소마당에서 자동차 밟는 소리가 울리더군.

《왔구만!》

지배인동지는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마중을 나갔지. 그때 우린 아마도 큰 간부가 내려오는가부다 하고 탄부정복의 옷매무시를 바로잡으며 영접 자세로 일어나 문가를 바라보고있었네. 그런데 곁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모두의 눈이 놀라움에 굳어지고말았네. 탄광초급당비서동지가 우리 로친과 두 딸들을 비롯한 탄부들의 가족들을 앞세우고 들어서는게 아니겠나. 누가 먼저 박수를 쳤는지 요란한 박소리가 울린건 다음순간의 일이었지. 이윽고 자리들이 정돈되자 사진사를 데리고 비서동지가 나서더군. 《자, 우리 탄광의 혁신자동무들, 동무들이 석탄을 많이 캘수 있는것도 다 동무들의 뒤에서 남모르는 마음을 바치는 어머니와 안해, 자식들이 있었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진사가 우리 가족이 앉아있는 앞에 와서 초점을 맞추더군.

《사진사동무, 잠깐...》

당비서동지는 사진사를 제지시키고 우리 상앞에 《최수환가족》이라고 쓴 표쪽을 가져다가 놓아주고는 뒤로 물러나 바라보다가 다시 바로잡아 놓았네.

《최아바이, 로친곁에 몸을 바싹 기대면서... 좋습니다. 아, 금단이와 영단인... 옳지.》

비서동진 마치 자기가 사진사가 된듯 다심하게 관심하면서 빙글썩 웃더군. 사진촬영이 끝나자 그는 활기에 넘치는 혁신자가족들을 보면서 곁에 있는 지배인동지에게 이제부터 가족축하정양을 달마다 정상화하자고 말하더군.》

아바이의 말이 끝나고 막장안에 다시 적막이 깃들었다.

한동안 길은 상념에 잠겨있던 소대장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언지시 아바이를 건너다보며 말했다.

《아바이, 우리 이제 나가면 창일이 약혼식을 해주지 않겠어요?》

나는 얼떠름한 눈길을 소대장에게 주었다.

《약혼식? ... 우리 창일에게 어느새 애인이 생겼나?》

아바이는 나와 영단이와의 관계를 알고있으면서도 모르쇠를 하는것이였다.

《최아바인 그 집 영단이가 창일이를 사랑한다는걸 다 알면서도...》

채영훈이 가벼이 나무랬다.

그 어조에는 공연히 딸의 값을 올리지 말라는 은근한 암시가 비껴있는듯싶어 나는 빙긋 웃었다.

《히, 벌써 그렇게까지 무르익었는가?》

아바이의 웃음비끼 목소리에는 어딘가 다 자란 딸에 대한 기대와 대견함이 숨배여있었다.

그들사이에 오손도손 오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막장에 갇히던 그 저녁 입궐때의 일을 그리보았다.

…저녁해가 백은산마루에 걸터앉아 붉은 잔광을 뿌리고있었다.

우리 중대가 《E.C》결성 70돛을 맞은 오늘 월계획을 끝낸다는 소식을 받은 기동예술선동대의 환영이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창일동무!》

축하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인차에 오르려던 나는 귀에 익은 영단의 목소리에 허리를 폈다.

《오늘 월계획을 끝낸가지요?》

아버지에게서 다 들은듯 동실한 얼굴에 까만 눈을 반짝이며 영단이 들국화꽃다발을 안겨주며 물었다.

《응, 오늘 영단이가 좀 더 수고를 해야겠어.》

나는 권양기운전공인 그에게서 꽃다발을 받아 향긋한 꽃향기를 맡으며 격려하듯 말했다.

《그런 걱정말고 석탄이나 많이 캐세요. 일을 끝내면 강변의 그 버드나무아래서 기다리겠어요.》

영단이의 고무를 받으며 인차에 다시 오르려던 나는 환영대렬뒤에서 미소를 짓고있는 옛 문학선생님을 보았다. 이제는 가정부인이 되어 몸이 부해졌지만 옛모습은 변함이 없는 녀선생은 조용히 웃으며 손을 짓고있었다.

나는 꽃다발을 든채 그리로 뛰어갔다. 내가 안겨주는 꽃다발을 의미깊게 내려다보던 녀선생은 다시 나의 가슴에 안겨주며 말했다.

《창일동무! 이렇게 성장한 동무를 보니 얼마나 행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난 창일동무가 학창시절처럼 석탄으로 조국을 받드는 훌륭한 최우등생 탄부가 되리라고 믿어요.》

그 입결길이 어이하여 그로도 흥그럽고 기쁨에 넘쳤던지…

나는 불쑥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영단이와 함께 가족축하정양에 참가하는 즐거운 환영에 잠겨버렸다. 두 누이들보다 외아들인 나를 더 극진히 사랑해준 어머니를 가족축하정양의 그 행복한 자리에 모셔본다면 깊어지는 어머니의 주름살이 한결 퍼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서 더는 기대할수 없는 소원에 불과한것이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무릎걸음으로 수동드림을 잡고 탄벽을 향해 기여가며 말했다.

《소대장동지, 또 뚫어보지요.》

무슨 힘이 나를 그결으로 선뜻 떠밀었는지 나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다.

생은 비록 하나의 발과구멍이라도 더 뚫고 마친다해도 한 처녀앞에, 그보다는 나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와 스승앞에 그리고 조국에 최우등졸업생으로 남아있으려는 심장의 분출이였는지…

### 3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가? 사흘이 된듯 하다. 시제도 없는 우리는 막장일에 습관된 탄부의 감각으로 날자를 셀뿐이다.

어디선가 통나무 두드리는 소리가 수림속처럼 아슬푸레 들려온다.

구원의 손길이 오고있었다. 그것이 곧추인지 아니면 에돌아서인지 알수 없으나 어쨌든 그 소리는 우리를 찾아오고있었다. 그러나 기력은 기쁨이 말라가는 등잔처럼 희미해가고있었다.

《창일이, 마침 주머니에 언젠가 우리 영단이가 넣어준 닭은 강냉이가 몇알 있구만. 자, 입에 넣으라구. 씹으면 안되네. 갈증이 더 심해질테니까.》

아버이는 소대장과 눈약속을 나누며 사양하는 나의 입에 몇알의 강냉이를 넣어주었다. 그들의 행동에서 나는 나 하나만은 기어이 살리려는 육친적감정을 느끼였다.

그 순간 나는 이제는 추억으로 남아있는 오래전의 일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애뜻한 추억이였다. 황해도 배천의 어느 한 농사군의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한 어머니는 땅처럼 순박하고 무던했다.

나는 지금까지 그토록 수더분한 어머니가 이처럼 노해서 매를 드는것을 그때 처음 보았다. 그때가 아마 내가 열세살 잡히던 해 초봄의 일로 기억된다. 탄광부업반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여느때 없이 일찍 들어왔다. 벽장이며 방안을 훑으며 머리를 기웃기웃하던 어머니는 내가 방에 들어서자 기다린듯 물었다.

《창일아, 너 여기 있던 강냉이종자 못 봤니?》

나는 벌에 쏘인 사람처럼 목을 움츠렸다.

나의 갑작스런 행동에서 무엇인가를 느낀듯 어머니의 차거운 눈길이 날아왔다. 잠시 주뭇거리던 나는 얼버무리듯 대답했다.

《엄마, 그건 사실 내가 종자인줄 모르고 튀기를…》

《뭐? 허…》

어이없는 웃음이 뒤따랐다. 어안이 병병한듯 한 동안 무릎을 굽힌채 앉아있던 어머니의 눈가장자리에는 노기가 비졌다. 언제나 인자하게만 여겨왔던 어머니에게서 나는 그런 눈빛을 처음 보았다. 얼마 안되는 강냉이종자가 저리도 소중한가.…”

이것이 그 시절의 천진한 나의 생각이였다.

동안이 흐르자 어머니는 뒤울안에서 찌리회초리를 꺾어 들고 들어왔다.

《바지를 걷어올려라.》

어머니는 회초리를 든채 걷어올린 나의 종아리만 내려다볼뿐 오래도록 내려치지 못했다.

눈을 꼭 감은 어머니의 판자노리가 가늘게 떨리였다. 이윽고 떨어지는 회초리를 보며 나도 눈을 감았다. 그러나 회초리는 나의 종아리를 치지 않았다. 눈을 떠서야 나는 어머니가 자기의 발잔등을 찼음을 의식했다.

아들의 잘못을 두고 스스로 자신을 벌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다시는 이런 어머니를 노엽히지 않으리라 마음다졌었다. 그랬건만 지금 아들의 생사를 몰라 잠못 드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얼얼해났다.…”

《소대장, 잠들었다. 맥을 놓으면 안되네.》

아버이는 기관지가 나빠 약간 가쁜 숨결을 툴으며 영혼소대장을 불렀다.

《마음놓으십시오. 아무렴 제대군인이 요만한 난관에 맥을 놓겠습니까? 집생각을 좀 하더랬습니다.》

《그래… 현철이 생각이 나는게로구만.》

《처음엔 그 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퇴근해들어가면 <엄마, 아빠 왔다.> 하며 반기던 귀여운 모습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지 안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는군요. 마음 어린 안해를 자주 울리던 일이랑 남편답게 살뜰히 해주지 못한 일들이 새록새록 밟혀오는군요. 안해를 사랑해주지 못했던 지난날들이 떠오르면서...》

소대장은 깊은숨을 내쉬었다. 힘겹게 내불리는 숨소리에는 피로운 가책이 배어있는듯싶었다.

《우리가 굴속에 갇히던 그날 내가 출근하러는 때였습니다. 우리 현철이 엄마가 내 손을 꼭 붙잡더군요. <현철이 아버지.> 저의 목수건두른 옷깃을 여며주고나서 안해는 저의 가슴에 얼굴을 대이며 다정히 나를 올려다보더군요.

전 오늘까지도 그것이 맑은 일을 잘해달라는 그의 애뜻한 마음인줄 몰랐습니다... <됐소. 시간이 없소.> 그날따라 월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마음이 급해져 저는 살췌이 닿는 안해의 체소한 몸을 밀어버리고는 무뚝뚝하게 돌아섰습니다.

<밤에 소대원들이 오겠는데 준비를 잘하오. 월계획도 끝나는 기쁜 날인데 이 소대장이 가만 있겠소.> 대답을 앓더군요. 처녀시절부터 새침데기로 불리운 그 성민 여전했답니다. <들었소?> 저의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거칠어졌습니다. <알고있어요.> 하는 말이 안해의 입에서 새어나왔으나 그 어조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서운해하는감이 느껴지더군요. 문을 열고 집을 나서면서 다시한번 뒤를 돌아보았지요. 내가 왜서 따뜻한 애무를, 사랑을 바라는 안해를 꼭 껴안아주며 <여보, 이제 그만하라우. 이 채영훈이 출근 늦겠소.> 하고 살갑게 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들고 저의 좁 우물거리는 성미도 속으로 타매했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흐르는데 왜 그런지 발길은 돌아서지 않더군요.》

소대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부부간의 사랑의 세계에는 어떤 따스한 룰리가 흘러야 하는가를 처음으로 생각하였다. 그와 함께 영단이와 손잡고 꾸려갈 나의 사랑의 세계도 조용히 그려보았다.

기약할수 없는 운명의 나락에 빠져있으면서도 품게 되는 희망과 공상이란 참...

《가만, 이거 오늘이 우리 소대장의 생일이겠다.》

소대장의 말도 끝나고 다시 침울해지는 분위기를 가시려는데 아버지가 혼연스레 하는 말에 나는 의아해서 물었다.

《그건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소대장동지의 생일은 9월인데...》

《창일이, 오늘이 바로 기업소에서 우리 탄부들에게 10월달 생일상을 차려주는 날이 아닌가. ... 그런데 내 방금 소대장동지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생각되는바가 크구만. 소대장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얼얼하겠지만 창일이랑 새겨두라우 한마디 하겠네. 이젠 현철이 어머니가 나에게 들려준것인데 소대장이 제대되어 새살림을 펴던 그해 10월 20일 바로 4년전 오늘에 있는 일이네. 그날 소대장동문 기업소에서 탄부들의 생일상을 차려준다는 연락을 받고 영양제식당으로 가게 되었는데. 집을 나서면서 소대장은 제대되어 처음 생일상을

받게 되는 남편을 바래주러 나서는 안해에게 물었지.

<여보, 무얼 먹고싶소? 내 생일상에서 당신이 바라는것을 다 가져다줄테니.>

갓 시집온 새색시는 수줍게 웃으며 남편의 등을 떠밀었소.

<됐어요. 그런 생각일랑 말고 어서 가보세요. 아무렴 내인들이...>

<왜? 그래도 먹고싶은게 있겠지...> 하도 남편이 각근히 묻는 바람에 안해는 마지못해 나직이 말했다.

<정 그럴 생각이면 사과나 한알 가져다주세요... 남들이 보지 않게...>

소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즐거운 기분으로 영양제식당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생일상에 놓일 사과 두알을 남모르게 건사하던 소대장이 그만 생일상을 돌아보던 당비서동지의 눈에 띄일줄이야...>

그때 소대장은 자기의 등뒤에서 당비서가 웃고 있는줄은 몰랐거든.

<영혼동무, 그 사과는 왜 건사하는거요?>

뜻밖에 당한 일이라 얼굴이 발갛해서 머뭇거리던 우리 소대장을 바라보던 당비서동진 <음, 우리 춘화동무에게 태기가 생긴게다...> 하고는 주방칸에서 남은 사과를 다 내오라고 했소. 통계원 처녀가 꽃보자기에 사과를 담는것을 당비서는 만류하며 <영혼동무!> 하고 불렀지.

당비서의 의도를 포착한 소대장은 습관이 된 차렷자세를 취하고나서는 제손으로 보자기에 사과를 찼소. 기쁨에 넘쳐 어린애처럼 뛰여가는 소대장을 바래우는 당비서의 눈가에 그윽한 사랑이 넘치고있었소. 소대장, 사랑이란 이렇듯 고상하고 따뜻한 감정인것 같네. 우리 로친의 경우만 놓고 봐도 그렇지. 림암전이라는 이름처럼 얄전하고 머리에 흰서리를 얹은 오늘에도 처녀처럼 새물새물 웃지만 남편의 계획수행을 놓고 따질 때는 엄한너치지. <오늘은 계획을 초과수행했으니 안해가 부여주는 술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며 무릎을 포개고앉아 술을 붓던 로친의 다정한 모습을 그려보며 난 탄을 캐곤 하네. ... 소대장도 이제부턴 안해를 울리지 말라우. 인간이란 누구든 사랑의 감정을 항시적으로 느낄 때에만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법이거든.》

《아바이,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돌아갈수 있을까요?》

소대장은 마음속 가책이 큰듯 새로운 결심을 다지며 물었다.

《믿으라우. 자기 안해와 가정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구원하려고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는 자기 동지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우리 탄부들의 운명을 두고 마음쓰는 당조직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것일세. 그 믿음이 서로의 심장속에 깃들어 기적이 일어나는게 바로 우리의 선군시대가 아니겠나. 말이 난김에 우리 당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구. 그는 여느뻔 턱없이 인정이 무르다가도 탄부들이 생명을 걸고 모험을 할 때는 그 깊이를 대중할수 없게 엄한 사람이네. 난 지금도 우리 당비서동지에게서 된 추궁을 받던 그날이 잊혀지지 않네. 그게 아마

지난 초여름에 있는 일일거야...》

최아바이는 회억의 배를 거슬러올리듯 담담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따금 타드는 입술을 감싸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느날 3갱에서 운반공으로 일하는 우리 금단이가 퇴근해와서 하는 말이 채탄2중대장이 나를 급히 만나자고 한다더군. 왜 그러냐고 하니 내가 1중대에서 중대장을 할 때 맞다들었던 정황과 비슷한 정황에 중대가 빠졌다는게 아니겠나. 서둘러 3갱으로 갔네. 갱기사장 방에서 공정도를 연구하고 막장으로 들어갔지. 중대장은 자연붕괴가 되기 전엔 생산을 할수 없다고 참모부에서 명령하는 바람에 기가 죽어 전전공공하더군. 상반년계획은 눈앞에서 얼른거리고... 그래 누군가가 나를 한번 만나보라고 귀찮해준 모양이네. 난 중대장과 함께 방폐목에 앉아 안전등으로 탄질상태며 지압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했네. 그리고는 천정에 바위처럼 비죽이 내민 석탄덩이를 안전등으로 가리켰네. 주타격방향은 저기라고 말이네. <중대장 동무, 저밑에 두개의 발파구멍을 뚫고 발파를 해대면 자연붕락은 가능하네.> 내 말에 확신을 가진 중대장은 전기드릴로 뚫고 당장 발파를 하겠다고 덤비더군.

<좀 자중하게. 전기드릴로 발파구멍을 뚫으면 그 진동에 의해서 자칫하면 자연붕괴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근심하던 사고가 날수 있네. 그러니 중대원들은 편도에 있게 하고 자네와 나 그리고 힘도 있고 날렵한 사람을 한명 데리고 들어가자구. 저건 수동드릴로 조심히 뚫고 발파를 해야 하는 거야.>

두 사람이 벽에 붙어서서 수동드릴로 구멍을 뚫기 시작했네. 난 그들이 뚫는 모습을 보며 안전등으로 천정을 감시했네. 정말이지 땀이 빠질까진 나고 작업복이 화락하니 젖어들었네. 한초한초가 한시간 맞잡이로 길게 느껴지더군.》

아바이는 숨이 차는지 말을 끊고 잔기침을 갔었다.

나도 긴장되어 아바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드디어 두개의 발파구멍에 장약을 끝내고 우린 안전하게 내려왔네. 발파소리와 함께 사나운 파도가 바위를 쳐갈기는듯 한 통쾌한 음향을 나는 들었네. 한마디로 성공이었지. 그런데 이튿날 중대가 일별계획을 넘쳐 수행한다고 방송차에서 축하의 노래가 한창 울리는데 난 당위원회에 불리워갔네. 방으로 들어서는 나를 본 당비서동진 너무도 성이 올라 주먹으로 책상을 치더군. 눈에서 불이 번뜩이는데 처음엔 웬일인가 했네.

<아바이, 누가 아바이에게 공간에 들어가 작업을 해도 무방하다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누가 석탄과 탄부들의 생명을 맞바꾸라는 권리를 주었는가 말입니다.>

난 그래도 사고야 없지 않았는가고 변명해보려 했으나 허사였네. 당비서동진에게엔 그것이 통하지 않았네. 그때 사고가 나지 않았던것이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 세사람은 아마 석탄속에 묻혀버리고말았을지도 모르니까. 부끄러운 일이지는 하지만 난 세상에 나서 그날처럼 온몸의 맥을 뻗는 비판을 받아본적은 있는것 같지 않네. 내 이

제 눈을 감는대도 당비서의 그 노한 얼굴을 잊지 못할거네. 창일이, 탄부들의 생명을 두고 그리도 마음쓰는 당조직이 있어 우리 세사람도 꼭 구원되리라곤 나는 확신하는거네.》

아바이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나의 생각은 계속되고있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발파구멍을 뚫자고 하던 그 신념, 그 근처에 깔려있는 저 평범한 로탄부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참다운 사랑, 아름다운 생활로 충만된 인간은 그 어떤 절해고도에 쓰러져있다 해도 반드시 불사신처럼 일어설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새롭게 새겨안을수 있었다.

## 4

목안이 타들다 못해 이젠 불이 이는듯싶다. 가슴에 활활 타번지는 난로가 들어앉은것만 같아 견디기가 괴롭다. 겨울내가 나면서 입김을 내뿜면 금시라도 연기가 타래쳐 나올것만 같았다.

물 한모금 못 마시고 4일을 견디었다. 곁에 다리를 꼬부리고 (석탄짬에 다리가 끼였는데도 뿔아낼 기력마저 없다.)앉다싶이 누운 최아바이는 벌써 물을 찾는지 몇시간이 싹히 된다.

이제는 그것이 도수를 넘어 헛소리로 변했다.

《금단아, 영단아, 뭘 그리 꾸물거리느냐. 아버지가 물을 가져오라는데...》

이제는 말들을 찾을 힘마저 없는듯 간신히 《물... 물...》 하고 힘겹게 뇌일뿐이다.

물소리가 들려왔다.

쪼르륵- 쪼르륵-

공기빠지는 소리와 몇방울의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뒤섞여 울려왔다. 물이 오는 소리는 오래동안 지속되고있었다.

나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있었다. 끊기고 이어지는 불협화음을 종결짓듯 갑자기 좌- 하고 물줄기가 터져나오는 경쾌하고 가슴후련한 소리가 부엌에서 울려왔다. 샘물터에 물을 길으러 갔던 어머니가 나를 흔들어깨운것은 그무렵이었다.

《창일이아, 물, 물이 나온다.-》

어머니는 새벽교대를 마치고 곤히 잠든 아들을 깨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가뭇 잊은듯 너무도 기쁜김에 소리쳤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섰다.

물... 물이 나온다.

서둘러 잠옷을 걸치고 해덤비며 부엌으로 달아 내려갔다.

하얀 물줄기가 얼마전에 최수환아바이랑 소대원들이 달라붙어 새로 만들어준 흰 타일을 붙인 물탱크속으로 물갈기를 일으키며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나는 눈을 부비었다.

우리 집은 서창청년탄광에 제대군인들이 오면서 지은 《비둘기마을》에 자리잡고있었다. 탄광일꾼들이 탄부들에게 수질이 더 좋은 샘물을 먹여야 한다며 며칠간 새 수도공사를 진행하여 그사이 우리 마을사람들은 얼마간 떨어져있는 곳의 샘물을 길어다 먹고있었다.



《어머니, 나 물 한그릇 줘…》

나는 어머니에게 어리광이 어린 목소리로 물을 청했다. 단숨에 물 한그릇을 비우고나니 속이 후련해졌다.

가슴이 열리는듯싶었다.

나는 문을 열고 마당에 나섰다.

백은산에 저녁노을이 곱게 물들어가고있었다.

피빛으로 타는 노을은 온 하루 이 땅을 밝힌 태양의 녀인듯 했다. 산 넘어 지면서도 더 밝은 래일을 기약하는 태양의 약속이고 인간이 바라는 희망인듯 했다. 푸른 잎새마저 타는듯이 느껴지는 저 산발 어디엔가 탄부들의 가슴에 맑은 생명수를 부어줄 수원지가 있으리라.

당비서동지랑 발목이 시도록 산판을 오르내리며 찾아낸 수원지…

무동력수도화공사를 완성하느라고 배관을 메고 오르내리던 그 모습들이 눈에 삼삼히 밝혀왔다.

언제인가는 비내린 산판을 오르다가 미끄러져 다리를 상하고서도 또 웃으며 목고를 했다는 당일꾼… 가지가지 많고많은 이야기들이 이 순간에 한꺼번에 되새겨졌다.

온 마을이 명절기분이었다. 너인들이 이집저집 줄거이 문을 두드렸다.

《이 집에도 물이 나와요?》

《예. 팔팔 나와요. 향숙이넌요?》

서로 기뻐서 묻고 웃으며 대답하는 그 목소리들에도 행복이 남실거린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인듯 로동화요교송이에 진흙이 묻은 당비서동지가 우선우선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창일아, 물 한그릇 다우.》

내가 정히 떠드린 물그릇을 받아든 당비서는 찰랑이는 물속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며 마실념을 못했다.

물그릇을 넘겨주고난 당비서는 우리 집을 나서 다음집으로 향했다.

《어머니, 나 물 한그릇…》

나는 작업복단추를 풀어헤치며 어머니를 애타게 불렀다.

《창일아, 물이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점점 멀어져가는 공명과도 같은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모습도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어머니, 나 물… 물…》

《여 창일이, 왜 그래… 정신 차리라.》

소대장이 흔들어서야 나는 비몽사몽에서 깨어났다.

후…

악몽과도 같이 가슴을 조이던 꿈속에서 벗어나오자 나는 타드는듯 한 숨을 내불었다.

집집에서 넘쳐나던 정다운 목소리가 귀전에 쟁쟁했다.

그 수도물을 여기에 끌어올수는 없을까…

허망한 공상인줄 알면서도 나의 머리속에는 불쑥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바이, 우리를 찾는것 같애요.》

나는 귀를 강구며 말했다. 동발목을 세우는 망치질소리가 울릴 때마다 목메여 불렀건만 대답이 없던 동지들이 우리를 부른다. 그것은 분명한 그들의 부름소리였다.

《여, 여기 있어요.》

나는 탄속에 묻힌 발을 뽑으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모두 살아있어?》

저건 분명 귀에 익은 우리 당비서의 목소리다.

그 소리는 가까이 바로 우리의 발밑에서 울려오고있었다.

《너 창일이지. 모두 살아있지. 창일아, 손을 내밀어. 어디 한번 잡아보자.》

막장을 찌렁 울리는 기쁨에 젖어있는 목소리와 함께 당비서의 손이 뻗쳐오고있음을 나는 심장으로 느꼈다.

《비서동지-》

나는 어푸러진채 눈물을 삼키며 허공으로 손을 내뻗쳤다.

금시라도 당비서의 손이 와닿을듯…

천금주고 살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 보네

흐느낌소리가 노래와 함께 흘렀다.

나도 울고… 최아바이도 울고… 소대장도 울고…

조금만 있으면

그러나 몇메터의 봉락을 헤치며 오는 그들의 걸음이 얼마나 힘겨운 길인줄 우리는 알수 없었다.

그 길지 않은 시간에 나는 위대한 동지사랑의 해발을 안고 우리를 찾아오는 동지들을 그려보면서 최아바이가 내준 18개의 발파구멍에 대한 숙제를 풀수 있었다. 그것은 혁명적동지애의 신념을 안고 선렬들이 걸어온 길, 우리 새 세대들이 변함없이 높이 들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려는 혁명의 전 세대들의 심장의 구호였고 맹세였던것이다. 그 신념의 글발, 18개의 발파구멍에서 나는 내가 걸어갈 인생길을 똑바로 새겨안을수 있었다.

굴길이 열리었다.

전기드릴을 비롯한 작업공구들을 먼저 내려보내고난 나는 소대장과 아바이를 바라보았다.

《우리 막내가 먼저 내려가야지.》

아바이가 내 등을 떠밀었으나 나는 선뜻 앞설수가 없었다. 그들을 뒤에 두고 제먼저 내려간다는것이 생사를 함께 한 막내이로서 도리에 맞는것 같지 않아서였다.

《창일이, 뭘해. 빨리 내려가. 그렇지 않다간 모두…》

소대장이 벽력같이 소리쳤다.

4박 5일동안에 처음으로 울려나온 높은 어성이었다.

나는 굴길에 주련이 앉아 무릎으로 받아 넘겨주는 동지들의 손에 이끌리면서 소대장이 왜 큰소리를 쳤는지, 그의 채 하지 못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알지 못했다. 후날에야 나는 소대

장이 간밤부터 우리 두사람의 안전을 지켜 굴러 내리는 석탄덩이를 자기의 등으로 막고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구원된 때로부터 두시간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렸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담가에 실려 갱구를 나서던 그때 벌써 나는 희미한 의식속에 있었던것이다.

갱입구에서 떠들썩 들려오는 소리들에 나는 정신이 들었다.

《창일이, 창일이...》

결에 선 사람들의 음성이는 말소리와 흐느낌소리를 제지시키는듯 하더니 《정신이 좀 드나?》하는 다정하면서도 걱정어린 목소리가 울리었다.

실명을 피하기 위해 눈이 싸매여있던 나는 그것이 당비서의 목소리임을 가려들었다.

나는 손을 허우적거리며 당비서의 손을 잡았다.

《비서동지, 미안합니다. 우리때문에...》

당비서의 후더운 손이 나의 손을 꼭 그러잡았다.

《너석두... 자, 가자구.》

흐느낌소리를 삼키며 당비서가 담가의 앞채를 잡고 일어서는것을 느끼며 나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내가 병원침대에서 의식을 차렸을 때는 중낮이었다. 해살이 고운 무늬를 그리며 창가로 비쳐들고있었다.

폐부를 자극하는 소독약냄새를 맡으며 나는 주

위를 둘러보았다.

모든것이 고요속에 잠겨있었다.

몸을 일으켜세운 나는 최아바이와 소대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직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듯 조용히 누워있었다.

나의 눈길은 저쪽 창가결에 누워있는 환자에게로 옮겨졌다.

침적대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투명한 액체가 환자의 몸으로 흘러들고있었다.

나는 침대모서리에 의지하며 환자결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나는 몹시 놀라 눈을 비비며 오래도록 굳어진채 움직일념을 못했다.

통투무례한 얼굴에 움푹 꺼져들어간 눈썹, 가느다랗게 울려오는 신음소리...

그는 바로 우리 당비서였던것이다.

그때에야 나는 우리들만이 막장속에서 있는것이 아니였구나 하는 뜨거운 걱정애 눈물을 삼키었다.

94시간.

한생을 두고 재일 때에는 극히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나는 새 세대로서 한생을 당을 받들어 충직해온 로세대들이 지닌 우리 시대의 불굴의 희생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 그보다 먼저 자기 정도자에 대한 결사옹위정신을 심장으로 체득할수 있는 신념을 배운 수업시간이었다.

## 세계작가일화

## 꿈

로신이 13살되던 해에 과거 시험장사건으로 억울하게 청나라감옥에 갇혀 옥고를 치르고 있던 할아버지를 구원하려고 가산을 송두리채 팔아버리고 온갖 고생을 겪던 아버지는 병으로 앓다가 사망하였다.

《애들아, 내 병을 고칠 명의는 없는게지. 너희들을 두고 가자니 눈이 감기지 않는구나.》이런 말을 남기고 《도끼의사》들에 대한 원한을 품은채 숨진 아버지의 죽음은 로신의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남경의 강남수사학당에 입학하였다가 인차 강남륙사학당부속 광무철로학당에 전학하여 여기서 엄복이 번역한 《천원론》 등 선진출판물들을 보게된 로신은 21살에 청나라의 관비생으로 일본류학의 길에 올라 아버지처럼 병마에 신음하며 숨져가는 중화민족을 구원하는 명의가 될 푸른 꿈을 안고 강문학원에 들어갔다. 당시 일본에는 중국류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로신이 처음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들어간 도쿄 강문학원에만도 류학생들이 10여명이나 있었다.

그러나 그들중의 적지 않은 학생들은 조국의 현실에는 아랑곳없이 류학기분에 들떠 일본인행세를 하며 몇만 부리고있었다.

길게 기른 머리를 들어올리고 그우에 학생사각모를 올려놓고 으시대는 그들의 모양은 로신에게 있어서 큰 민족적수치로 안겨왔다. 《명치유신》으로 개명을 뽐내던 일본에서 구시대의 유물인 긴 머리채를 보물인양 머리에 이고있으면서도 수치감을 모르고 다니는 중국류학생들의 모습은 로신의 격분을 자아냈으며 얼마후 그는 이 인종억압의 상징으로 되고있던 머리채를 서슴없이 잘라버렸다.

두해후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진 곳에 있는 샌다이의 학전문학교로 간 로신은 아버

지처럼 불쌍하게 숨져가는 중국사람들을 고쳐주며 전쟁이 일어나면 조국을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치료해주는 군의가 되려는 리상을 안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후 로신은 자기의 이런 마음을 담은 7언절구의 시가 한수 적힌 사진 한장을 조국에 있는 친구인 허수상에게 보냈다.

이내 마음 애신의 화살 피할길 없고

비바람 검은 장막인양 고국에 뒤덮었네

찬 별에 부치는 이내 뜻 향초가 알지 못해도

나는 사랑하는 조국에 붉은 피를 바치리

이 시기 로신은 의학으로써 유구한 역사를 가진 중국을 압록과 빈궁, 우매와 락후에서 건져내려는 뜻을 더욱 굳게 다지였다.

## 내가 만난 비전향장기수

현명수

미술전시회장에 걸린 그 그림은 두마리의 말을 형상한 것이었다. 흔히 볼 수 있는 보통말이 아니라 한쌍의 야생말이었다. 다듬지 않은 갈기를 제멋대로 흔들리며 무엇을 속삭이듯 다정히 곁보며 네굽을 모아 내닫는 쌍말의 모습. 광활한 대지를 자유로이 헤가르는 드세찬 기백과 활력이 느껴지는 모습이였다.

화폭 밑에는 비전향장기수 리경찬이라는 수표가 있었다.

0.75평의 독감방속에서 한두해도 아니고 수십 년 세월 전향을 강요하는 고문과 인간이하의 멸시와 구속을 통일의지로 곳곳이 이겨낸 비전향장기수. 바로 그런 비전향장기수가 수십년간 손에 붓대를 들고 살아온 《공훈예술가》,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은 미술가들과 함께 작품을 내놓았다는 것이 나로서는 놀랍게만 여겨지는 일이었다.

놀라움과 함께 나의 가슴속에는 리경찬 선생을 만나고 싶은 충동이 불같이 일어났다.

언제부터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글을 쓰고 싶었던지라 나는 리경찬 선생을 만날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다음날 나는 경찬 선생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다. 내가 경찬 선생의 집문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를 담당한 녀의사가 나오고 있었다. 까만 머리칼에서조차 소독수냄새가 풍겨오는듯싶은 나이지숙한 녀의사는 나의 옷소매를 살짝 당기며 속삭였다.

《선생님은 이제 한시간 후에 창전중학교 학생들과의 상봉모임에 가야 합니다. 헌데 요즘은 건강이 좀 나빠져서 료양을 받으셔야겠는데 찾아오는 손님은 많지... 그저 미루기만 하시니...》

녀의사의 말은 가뜰이나 긴장되었던 나의 마음을 더욱 송구스럽게 하였다.

하지만 경찬 선생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듯이 반갑게 맞이해주는 것이었다.

녀의사한테 들은 말도 있었던지라 선생이 허물없이 대해줄수록 나는 그의 건강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만 같은 죄스러움으로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았다.

리경찬 선생은 마치 나의 속내를 짚어보기라도 한듯 정겨운 미소를 지으며 나의 창작활동에 대하여 조용조용히 물어보았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나는 불쑥 언제부터 그림을 배웠는가고 물었다.

나의 물음에 경찬 선생은 감회깊은 눈길로 자기 가 그린 송학병풍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농사군의 아들이 어디서 그림을 배웠겠습니까.

나라가 해방이 되어서야 학교문전에 가보았고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곧 군대에 나갔었습니다. ... 옥중에서 환갑을 맞고보니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래 그림이라도 그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동시간에 막대기를 하나 주어다가 감방벽과 바닥에 선을 그어보곤 했습니다. 점차 자신심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어디 붓이 있어야지요. 쓰레기통에서 일반범들이 쓰다버린 붓을 주어다 다듬고 묶어서 자작붓을 만들어 썼습니다. 종이도 그런 방법으로 구입했고... 일반범들에게는 독서나 그림그리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비전향장기수들에게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림을 몰래 그리다가 교도관에게 들키면 붓이랑 종이랑 모두 빼앗기곤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렸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림은 벽에 걸어놓고 감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비전향투쟁이었습니다.》

벽에 걸어놓고 감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투쟁이었다! 누구나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이였다.

인생의 반생을 사회와 격폐된 옥중에서 전향을 강요하는 교도관들의 폭행과 유흥을 통일의 신념과 의지로 곳곳이 맞서온 비전향장기수들의 투쟁의 진리가 집약된 의미깊은 말이였다. 그러기에 그가 감방에서 처음으로 그렸다는 푸른 소나무와 백학을 비롯한 여러 그림들에는 수십년 세월 인간 이하의 학대속에서도 굴함없이 지켜온 자신의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옥중에서 야생말을 그릴 생각을 하게 된것은 우리 나라의 반만년 역사를 더듬어보면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우리 조국의 분열도 다름아닌 외세에 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민족이 서로 힘을 합쳐 일떠세울 그리고 더는 외세에게 유린당하지 않을 통일강성대국의 자유로운 미래를 화폭에 담아볼 가 했습니다.》

리경찬 선생의 창작경위를 듣는 나의 가슴속으로 그는 대한 존경심이 그들먹이 차올랐다.

송학병풍의 옆에는 미완성 그림화판이 걸려있었다.

화판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백호가 형상되어있었는데 중앙동물원의 선물동물사에 있는 백호를 보고 그릴 결심을 했다고 한다. 그 백호는 중국의 어느 한 인사가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린 선물이였다.

리경찬 선생은 그 그림에 중국사람들과 세계진보적인류의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

의 마음을 담아야겠는데 마음만 앞설뿐 손이 따라서지 못한다며 고심하고있었다. 여가가 없어 료양도 가지 못한다면서 어린 중학생들과의 상봉모임요청은 무릅없이 들어주곤 하는 리경찬선생, 자신의 건강을 좀먹는 병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할 일이 생기면 더욱 만족해하는 그였다.

물론 비전향장기수들은 조국통일운동사에 쌓은 공적만으로도 금방석에 올라 남은 생을 편안하게 지낼수 있을것이였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조국의 부강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일념으로 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있는것이다.

《제 나이 이젠 70을 켜 넘겼습니다. 그야말로 고령의 나이, 인생의 마지막불꽃이 타는 시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젊어서 공적을 쌓고 늙어서 그것을 향유한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세운 공적으로 만족하고 허송세월하는것은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있어서 있을수 없는것으로 간주되고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는 자신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의지의 투쟁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나의 머리속에는 리경찬선생을 비롯한 여러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모습들속에는 조선문화어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성을 연구하는 어학박사 비전향장기수도, 스스로 별을 치며 꿀을 생산하여 사회주의대건설장에 지원하는 비전향장기수도 있었다. 또한 불편한 몸상태를 숨기며 낮이면 공장기업소에 나가 경제선동도 하고 밤이면 밤대로 문예작품들을 집필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습도 있다.

정녕 조국이 안겨준 사랑과 믿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자며 지난날의 공적에 만족하고 허송세월하는것을 오늘날의 또 하나의 전향으로 여기며 살고있는 비전향장기수들! 이들의 모습앞에서 나는 머리가 숙어짐을 어찌할수 없었다.

참된 인생길에서 잠시라도 투쟁을 멈춤이 없이 변함을 모르는 신념과 의지로 조국의 사랑에 자기의 한생을 깡그리 태워가며 보답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나는 학생들과의 상봉모임에 간다는 리경찬선생과 함께 집을 나섰다.

## 내 고향 이야기

김성준

보람찬 병사시절에  
또 하루는 저물어  
즐거운 중대오락회시간

이번 오락회시간엔  
고향자랑이야기  
중대장의 지명에  
신포태생 소대장이  
제일 선참 일어섰네

수령님 꾸려주신 수산기지에  
갖가지 고급어족 차고넘친다  
어깨까지 들썩이며 자랑을 하니  
동해의 물결은  
우리의 가슴에도 출렁이노라

이번에는 북청내기 막내전사  
고향의 특산인 탐스런 사과  
산가득 우리앞에 펼쳐놓으니  
그 향기에 벌써  
온 중대가 모두 취했나보다

서로의 고향자랑에  
참지 못해 일어선 미루벌의 병사  
장군님의 손길아래 천지개벽한  
자기 고향 자랑에 여념이 없구나

이번에는 내 차례

허나...  
나는 고향이 신천  
어찌 내 고향이라고  
자랑이 없으랴만  
내 무슨 자랑을 하랴  
신천, 그 이름만 불려도  
피가 먼저 거꾸로 솟는  
지명이 아닌가

미제!  
이 살인귀들은 나에게서  
고향의 자랑마저 앗아갔구나  
이 즐거운 오락회  
끊기지 말아야 할  
웃음마저 앗아갔구나

아 나는  
신천의 복수자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고향자랑  
어찌하여 내 고향 신천만은  
에돌아야 했던가

나는 일어섰다.  
이 세상에 미제가 있는 한  
신천의 상처는 아물수 없기에  
분노와 복수의 시를 읊었다.  
달리는 말할수 없는  
내 고향 이야기

## 주체사상탑아래서

리귀성

주체사상탑!  
걸음걸음 다가서 우리르니  
봉화끝엔 흘러가는 흰구름  
멀리서 보아도 가까이서 보아도  
이 탑은 거대한 붓대같아라  
눈앞에 어려오누나  
카룬의 밤을 밝힌 초불아래서  
우리 수령님  
주체의 철리를 한자한자 새기시던  
그날의 붓대가  
  
또 어려와라  
동강의 밀림속에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작성하시며  
우리 수령님 한자한자 써가시던  
그날의 붓대가  
  
총대와 함께 붓대를 드시고  
한생토록 집필하신 로작은 그 얼마  
예지의 그 빛발 앞길을 밝혀  
승리로 수놓아온 혁명의 길이어  
  
대동강 푸른 물에 적시여  
저 하늘을 종이삼아 쓰고 쓴대도  
위대한 그 업적 어이 다 새기랴  
그래서 주체사상탑은 거대한 붓되어  
흰구름 송이진 저 하늘에  
위인칭송의 서사시를 끝없이 새기는듯  
  
탑이여 주체사상탑이여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끝없이 흐르는  
수령님세월 태양의 역사를  
영원히 이어 새기자고  
너는 거대한 붓되어 솟아있느냐  
  
아 온 세상의 시선을 모으며  
주체로 시작되고 주체로 승리해가는  
선군의 자랑스런 넋들을 천만대에 새기고저  
세상에 하나뿐인 그 모습으로  
대동강기슭 우리네 평양엔  
주체사상탑이 솟아있도다

## 대돌우의 꽃다발

최정심

놓여있어라  
전승기념탑 영웅들 서있는  
불타는 대돌우엔 꽃다발이  
승엄히 머리숙여 인사드리는 처녀총각  
대돌우엔 포연에 그슬린 전사들  
아 여기서는 어찌하여 꽃과 불이  
그리도 어울리는것인가  
  
사랑으로 뜨거운 한생의 언약을  
한뫼음 꽃다발에 담아 드리는가  
행복한 청춘들을 굽어보며  
불타는 락동강을 건느는 전사도  
1211고지 용사도  
말없는 축복을 얻는듯  
  
목숨걸고 화선을 헤쳐온  
영웅전사들의 그 넋이 있어  
꽃같은 청춘의 삶도 있기에  
준엄한 날이 다시 온다면  
어깨나란히 포화속을 내달릴 맹세로  
대돌우에 꽃을 얻은 젊음들이  
  
새가정의 주인될 기쁨을  
조국이란 대가정의 주인된 의무로 안고  
위훈을 약속하는 그대들의 가슴  
그 가슴마다에서  
번쩍이는 훈장의 절령임소리를 나는 듣는다  
  
오, 꽃과 불  
미제를 이겨낸  
정의의 불이 없인  
꽃이 아름다울수 없고  
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침략의 불을 이겨낼수 없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래일도  
영웅전사들은 영생하리라  
불언덕을 헤쳐넘는 그 모습으로-  
그들의 앞에는 언제나 피여있으리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송이들이  
  
아 뜨거움에 이끌려 내 마음 다가서는  
전승기념탑의 군상들  
그 대돌우엔 꽃다발이 놓여있어라  
선렬들의 피로 값비싼 이 땅에선  
떨수 없는 인연인가  
아 꽃과 불

## 특색있는 생활분야개척을 위한 지향과 참신한 형상을 보고

김영순

생활은 무한히 폭넓고 다양한 종한 특색을 안고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작가들이 아무리 퍼내고퍼내여도 마를줄 모르는 수원지처럼 생활은 무한대한 글감을 제공해주고있으며 허다한 미개척분야를 남기고있는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고 작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생활의 각 분야들에 대한 침투는 보다 폭넓게,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져왔고 또 이루어지지만 무한대한 우주처럼 생활은 언제나 새로운 분야개척의 필요성과 요구를 제기하고있으며 또 제기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의 새로운 분야들에 대한 개척은 우리 문학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되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특색있는 종자를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활분야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형상의 새로운 맛과 독창성은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로부터 흘러나온다. 따라서 작가는 같은 분야의 생활에서도 언제나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지만 반복과 류사성을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활분야를 찾아가는것도 필요하다.》

《새롭다》고 할 때 그것은 벌써 이미전의것과 다르다는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새로운 생활분야를 취급한 작품은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벌써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단편소설 《회담할 때가 되었다》(김철민작, 《조선문학》 잡지 주체 96(2007)년 7월호)를 통해 립증할수 있을것입니다.

작품은 우리 나라의 외교부문 일군인 안류경과 미국의 물골을 대변하는 인물로 설정된 제임스 케빈사이에 근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을 경과하면서 이어져온 교제과정을 통하여 오랜 세월의 숙원을 풀고 절대적힘을 가진 강국으로 된 우리 조국의 위대함과 그에 대한 자부심을 독자들에게 안겨주고있습니다.

소설에서 보는것처럼 주인공인 안류경과 미국인인 제임스 케빈사이의 관계는 지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포로수용소에서 처음으로 맺어집니다. 그들 둘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치였다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심각한 대치를 이루고있습니다.

안류경은 조선인민군군관으로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군복을 입었다면 미군비행사인 케빈은 《원자탄에 대한 승배》로 대학마저 그만두고 침략전쟁에 참가한 광신자입니다.

포로수용소의 통역 및 식사성원으로 복무하고있던 안류경은 폭력에 대한 광적인 희열을 주저도 없이 표현하는 케빈과의 교제과정에 접어한 정신적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 대결의 기본적인 초점은 절대적인 힘소유의 여부에 주어지고있습니다.

케빈은 미국이 원자탄을 내두르고있는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포로귀환때에 원자탄까지 그런 그림을 4호동 수용실벽에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원자탄을 두고 시작된 정신적대결은 년대를 넘고세기를 넘었습니다.

원자탄에 턱을 걸고 《힘만능》의 몽유병에 걸려 날뛰는 미제원수들에게 이 땅은 얼마나 가슴아픈 상처를 입었습니까.

안류경의 이채로운 애인인 성류연도 전사합니다. 문학에

대한 사랑으로 주인공과 인연을 맺게 되었던 꿈과 랑만이 많은 처녀는 적비행기와 전투에서 희생되었던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작품에서는 사랑하는 수도 평양의 피해상태와 어느 한 산골마을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미제의 죄행을 폭로하고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결사의 신념과 의지로 원수를 쓸어냅니다.

조국해방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나고 미국이 참패를 당한후에도 케빈은 안류경에게 미국식일방주의사고가 질게 배인서신을 보내옵니다.

작가는 시종일관 전쟁시기에 벌써 조선과 미국사이의 핵문제관계를 《론의》한 사이인 안류경과 케빈을 상대인물로 주축에 세우고 이야기를 엮어나갔습니다.

이 정신적대결은 새 세기에 와서 비로소 승패를 갈랐습니다.

《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조선과 미국사이의 장구한력사적인 전쟁은 끝났습니다.

결국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 주는 작용에는 언제나 반작용이 동반된다》는 뉴턴력학의 법칙이 사회력사적현상으로 증명된셈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 케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난해 10월에 자기의 절대적힘을 세계에 공포한뒤 이렇게 패배를 인정합니다.

이런 고백이 실린 네번째편지를 받고 안류경이 보낸 회답은 얼마나 당당하며 자신심에 넘치는것입니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웅하게 싸워 원수놈들을 족쳐버렸지만 그 모든 전투는 우리의 땅우에서 벌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 조국과 인민은 헤아릴수 없을 피

해를 입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들이 폐허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땅의 그 어느 도시나 거리도 전쟁의 세례를 받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케빈은 미국을 파괴할 힘은 없으며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단언했었습니다.

하나 주인공은 선언합니다. 우리 조국은 미국의 핵전쟁도 발에 대쳐하여 그들의 《키스토운》을 철저히 파괴해버릴 수 있는 《선물》이 준비되어있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들은 포로수용소에서 생활과 현시기의 조미관계를 두고 벌어지는 생활이 다각적으로 묘사되면서 흥미진진하게 엮어집니다.

작가는 소설에서 미군포로놈들의 저열성과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강의성, 인민들의 중요성을 생동하게 그려보이면서 생활적으로 주제를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서 원주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면서도 포로를 구원하고 희생되는 최선돌상위의 형상은 개성적인 특성을 보이고있습니다.

작품에 이러저러한 생활모습이 펼쳐지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흐름의 굵은 조미사이의 핵문제라고 할수 있

습니다.

작가는 작품의 기본문제-주제로 되는 그것을 비교적 수준있게 해명하고있습니다. 그 형상과정과 형상수법에 대하여서는 좀 아쉬운 허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론하자고 하는것은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새로운 생활분야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미사이의 핵협상과 관련한 생활도 그렇지만 미군놈들의 참패한 몰골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포로수용소에서의 생활은 이러저러한 기회들에 부분적으로, 간접적으로 취급된 경우는 있겠지만 이 작품에서처럼 직접적으 전면적인 화폭으로 그려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생활분야의 개척-이것이 단편소설 《회답할 때가 되었다》가 흥미있게 읽히울수 있는 비결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거대한 변혁이 일어나 조국이 강국으로서의 새로운 지위에 올라섰음에도 경이적인 이 사변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질적으로나 량적으로 그리 많이 창작되지 못하고있는 문단실정에서 이 작품은 자기

의 사상정서적가치를 명백히 시위하였을뿐더러 작가들의 창작태도와 량심에 일정한 충격을 주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작품을 읽고나면 위대한 군사강국의 공민이 된 긍지감과 승리자의 배심으로 가슴 후련한감을 느끼게 됩니다.

작가는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재치있게 엮는 기교를 보여준 반면에 오늘날의 침예한 조미대결전을 보다 심각하게 묘사해보이지 못한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흥미가 끌리는 새로운 생활분야에 대한 개척으로 하여 이러저러한 아쉬움은 용해되어버립니다.

확실히 단편소설 《회답할 때가 되었다》는 논의해볼만 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처럼 흥미진진하면서도 철학성있는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한 노력의 새로운 생활분야를 개척해나가기 위한데로도 지향되어 우리 문단에 특색있는 작품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형직사범대학 박사원생)

## 병사와 아이들

리경제

들꽃 꺾어들고 달려와 안기는  
고향의 새 주인들  
아이들아  
처음보는 얼굴들이어도  
너희들 낯설지 않구나

표창휴가 온 병사  
나의 어깨에 매여달려  
연연한 앵두볼 부비며  
꽃잎손 퍼보이는 그 나이만큼  
전호가에서 병사, 내 복무의 나날이 흘렀구나

몰라보게 달라진 고향땅  
선경의 새 마을에 태를 묻고  
잔디밭에 덩굴며  
바람개비 날리며  
행복한 생을 시작한 세대들아

너희들은 아느냐  
초소에서 병사가 맞은 눈비가  
너희 발밑의 금잔디를 자래운줄

흰구름 떠가는 저 푸른 하늘은  
병사가 헤쳐넘은  
땀젖은 행군의 산발들이 치받든것을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새겨지는  
나무의 년륜과 같은것 아니기에  
한살두살 쫓아보는 너희들의 나이는  
그대로 땀스민 병사의 자욱자욱이 아니라

마음껏 활개치며 자라거라 아이들아  
드넓은 대지 푸르른 하늘  
세월을 당겨 넓어진 가슴들에  
희망의 꿈나래 활짝 펼치거라  
휘황한 래일로 달음쳐가거라

오 병사가 지켜가는 이 땅우에  
향기론 꽃들은 언제나 만발하고  
화창한 봄하늘 더 맑게 펼쳐져있으려니  
복무의 진정한 그 나날을  
아이들아  
병사는 너희들의 나이로 세여보노라

## 손도끼

황동선

얼마전에 나는 한 신문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되었다. 서해해상에서 애끓은 인민군병사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중 중무장한 적순찰정과 맞다들게 되었다고 한다.

적들은 그를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으로 회유해 가려고 달콤한 말을 다 떠벌였으나 목적을 이룩할수 없게 되자 강제로 끌어가려고 위협사격과 함께 그가 탄 부업선에 련결바줄을 걸려고 발악을 했다. 그때마다 병사는 도끼로 그 바줄을 끊어버렸다. 시퍼렇게 포물선을 긋는 도끼날의 섬광!...

적들은 굴할줄 모르는 인민군병사의 모습앞에서 질겁해서 어쩔줄 몰라했다고 한다. 후에 안 일이지만 놈들은 병사가 쳐들었던 그 도끼날의 모습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타협을 모르는 무서운 타격력을 보았다고 신문, 방송으로 비명을 지르듯 실토했다고 한다.

그때 전쟁로병인 나의 머리속에는 무수한 세월의 락엽도 덮어버릴수 없는 잊지 못할 추억에 잠겨들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잊을수 없는 도끼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 X

1951년 봄이라고 기억된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끝난 후 아군의 재진공이 한창 벌어지던 때의 일이다.

전전선이 사태처럼 남으로 밀려내려가고있었다.

련대와 함께 진격의 길에 올랐던 우리 중대는 갑자기 후방구분대에 배속되어 군수물자의 보급 임무를 수행하였다. 아군부대들의 비상히 빠른 진격속도는 군수물자를 제때에 보장하는것이 어려운 과제로 나서고있었던것이다.

그러던중 중대는 전선으로 진출할데 대한 긴급 명령을 받았다. 전선이 남으로 멀어져갈수록 정황이 점차 긴장되어가던무렵이었다.

우리는 온밤 눈을 붙이지 못하고 행군을 하였다.

나는 조금도 힘든줄 몰랐다. 전선에서 화약내를 맡으며 적들을 죽칠 생각을 하니 저절로 발걸음이 빨라졌다.

나는 후방에서 보낸 한달반동안 초조감에 쫓기였다. 탄약이나 쌀포대를 나르다가 전쟁이 끝나는 걸 보게 될줄 알았던것이다.

전쟁이 일어난 해인 작년가을에 나는 고향에서 온 편지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린 녀동생이 적의

기총란에 맞아 숨졌다는 비보를 받았다. 그것이 피멍으로 가슴에 엉켜있었다.

전쟁전에 철공소에서 단야공을 해서인지 나는 성미가 세판은 편이었는데 녀동생의 비보를 받은 후부터는 자신을 더욱 견잡을수 없었다. 그리고 전쟁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단순하고 명백해졌다.

병사는 그 어떤 관용이나 무른 인정이 아니라 갓 버린 강쇠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원수들에게 무참히 숨진 부모형제들의 복수를 하고 이 가혹한 전장을 이길수 있는게 아닌가.

전선으로 향하고있는 나의 가슴속에서는 내내 불이 이글거리는듯 했다...

중대는 어느 한 산기슭의 웅달샘앞에서 휴식하게 되었다. 30분이라는 꽤 긴 휴식이 차례였다. 옹근 이틀낮과 하루밤을 행군하느라 지칠대로 지친 병사들은 제기밥을 계눈감추듯 하고는 풀밭에 쓰러져 잠들었다.

나도 잠에 폴아떨어졌다. 납덩이처럼 무겁게 실린 피로를 풀기에는 어방없이 짧은 시간이건만 그만큼 잠은 깊고 달았다.

아마 총을 들고 전선에서 싸운 병사들이라면 그 나날의 단잠을 지금도 잊지 못하리라...

출발준비구령이 울리자 병사들은 언제 잠들었더냐싶게 벌떡벌떡 일어나 렬을 지었다.

분대원들을 점검하던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박두천병사가 보이지 않았다. 여기 당도했을 때까지만 해도 있던 그가 어디 갔는가.

중대가 슬렁거렸다.

나는 부지중 소나무숲이 우거진 저쪽 산굽이너머 지붕만 보이는 두어채의 농가들에 시선을 주었다.

혹시 박두천이가 거기 간게 아닌가싶은 예감이 들었다. 거기밖에 갈데가 있을것 같지 않았다.

아까 우리가 오면서 본 몇채의 농가들은 전선이 휩쓸고 지나간 뒤인지라 주인들은 피난을 가고 없고 패주하는 적들의 로략질에 내맡겨져 문이 떨어져나가고 세간불이들이 마당에 흩어져 엉망이였었다.

박두천이가 거기 갔을거라고 본 나의 예감은 까닭없는 일이 아니였다. 워낙 세태적인 습성이 몸에 배인 그는 못쓰게 된 집들을 보면 공연히 원심을 쓰면서 무언가 손질을 해주지 못해 안달아하는 거동을 여러번 보았던것이다.

나는 소로길을 따라 곧장 집쪽으로 달려갔다.

아닐세라 그쪽에서 푹푹거리는 마치질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우뚝 굳어졌다.



박두천이가 등을 돌리고 서서 떨어진 문짝을 다스라고 망치질에 여념이 없었다. 아까와는 달리 마당에 잔뜩 널려져있던 세간불이들은 집안에만 들어놓은듯 말쑥한데 깨어진 장독조각들만 한 구석에 모아져있었다.

《아바이-》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두천은 와뜰 놀라며 돌아섰다.

《중대가 떠나겠는데 이걸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두천은 육중하니 큰 체구를 어찌 건사할지 몰라하며 변명하듯 말했다.

《집이… 이 꼴이 된걸 보고 가자니… 속에 걸려서… 제격 손질해준다는게…》

《무슨 소릴 합니까. 전쟁이 무슨 아이들 놀음인 줄 압니까. 예?》

나는 거의 리성을 잃고 부르짖었다. 어느때같은 나이대접을 하느라고 말을 부드럽게 했었는데 지금은 속이 부글거려 견딜수가 없었다.

두천은 주름투성이의 툭툭무례한 얼굴을 숙이고 서서 어쩔바를 몰라하고있다. 그의 굵은 목덜미에서 땀이 부질부질 내뿜고있었다.

이때 나의 등뒤에서 문화부중대장 서인규의 침착한 목소리가 울렸다.

《자, 떠날 시간이요. 두천동무, 빨리 대렬에 들어서시오.》

그제서야 두천은 손에 들고있던 손도끼를 배낭에 쑤셔넣고 허둥지둥 걸음을 옮겼다.

병사들이 그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아바이가 또 집생각이 났던 모양이군.》

《마누라도 보고싶었을게야. 필시…》

《허허…》

소리를 죽인 말소리, 웃음소리들이 한동안 대렬 속에 흘렀다.

이윽고 중대는 행군을 시작했다.

나는 두천이로 하여 분대가 망신당한걸 생각하니 속이 그냥 부글거렸다. 주인도 없는 빈집을 손질해주느라 중대의 행군시간마저 지체시킬번 하다니… 이 전쟁중에 파괴된 집이 어디 한둘인가. … 생각할수록 박두천은 가슴에 걸리는 존재였다.

…박두천은 평안도 산골의 어느 한 고장에서 농사를 짓다가 올해 겨울에 보충병으로 중대에 배속되어왔다.

대렬에 들어서면 그는 어느 병사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컸다. 그에 어울리게 몸집도 우람했다. 걸을 때면 땅이 쿵쿵 울리는듯 했다. 그의 뼈마디가 울퉁불퉁 두드러진 녀가래같은 손은 늘 일을 그리워하는듯 했다. 어디로 보나 그는 농사군으로 타고난 사람이니 군인다운데라고는 찾아볼수가 없었다.

나는 그한테 제식동작련습을 시키는것부터 진땀을 뻘었다. 어느 병사들은 시범동작을 두어번 해보이면 제격 따라하는데 황소같이 동작이 굼뜨고 둔한 그는 사정이 달랐다.

한번은 그에게 사격동작훈련을 시키다가 나는 제먼저 지쳐 두손을 허리에 짚고 숨을 헐떡거렸다. 암만 해도 그한테 군인다운 체모를 세워주는 굴렸다는 아연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이때 그가 말을 건넸다.

《분대장동지, 제가 군인에 나올 때 군사동원부 군관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날더러 경찰병감이라고 했수다.》

《뭐, 무어요?》

나는 눈을 크게 뜨며 뇌이였다.

《힘이 남보다 세굽은 셀테니 놈들을 쉽게 뺏아 칠수 있을테니 좋구 귀박죽이 손바닥같이 크니 십리밖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들을수 있으니깐 훈련만 잘하면 찍어놓은 경찰병감이라는겁니다. 허허허.》

《허허허.》

나는 기가 막힌 웃음을 짓고말았다. 그러다가 일순 그의 눈구석에 피인 물기같은것을 보았다.

그제서야 나는 그가 자기의 둔한 몸때문에 울고싶을 지경으로 피로와한다는것과 한편 훈련을 시키느라 지쳐빠질 지경으로 애쓰는 나를 체견에서 측은해하고 있음을 느꼈다. 군사동원부 군관은 룡으로 그런 발을 했을것이였다. 박두천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도 남처럼 병사다운 체모를 갖추자고 모지름을 쓰고있음을 보여주는것이였다.

이 일이 있는 후부터 나는 일종의 체념같은것을 느꼈다. 그가 어느 병사들처럼 되지 못할건 뻔한데 지내 신경을 쓰고싶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그한테 다른 《특기》가 있었다.

그의 배낭속에는 늘 넣고다니는 손도끼가 있었다. 그 손도끼만 있으면 군화를 손질하는것부터 병실을 짓는데 이르기까지 못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중대안의 온갖 자질구레한 일은 그가 맡아안기가 일쑤였다.

병사들은 이런 그를 무척 좋아하였다. 나도 물론 그가 싫지는 않았다. 그한테 끌리게 되는 어떤 친화력을 느꼈던것이다. 다만 병사다운 기품이 보이지 않는것이 언짢을뿐이였다. 한데 그것이 바로 일을 치고야만것이다. 주인도 없는 빈집을 손질해주느라고 중대의 행군마저 지체시킬번 하다니, 엄중한 행위가 아닐수 없었다. 애당초 단단히 신칙을 못한 때늦은 후회감이 가슴에 파고들었다.

부지중 나의 눈앞에는 한달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두천과 함께 마차로 련대에 탄약을 날라다주고 돌아오다가 어느 한 산기슭에서 말을 쉬었다.

두천에게 말을 놓아 먹이게 하고 나는 마초를 뺐다.

산골안에는 고즈넉한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마초를 베여안고 마차로 돌아온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두천은 놓아준 말이 저쯤 멀어져갔는데도 풀밭에 웅크리고앉아 무언가 그냥 들여다보고있지 않는가.

《아바이, 뭘하십니까?》

《응?...》

두천은 꿈쩍 놀라며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손에는 웬 종이조각같은것이 들려있었다.

《그건 뭡니까?》

《허허... 가족사진입니다.》

나는 부쩍 호기심이 동했다.

《아바이, 나도 좀 봅시다.》

《뭘 볼게 없습니다.》

《글쎄 좀 보자니까요. 비밀은 아니겠지요.》

나는 우기듯 말하며 다가섰다.

두천은 하는수없이 사진을 내주고는 급히 말에 게로 달려갔다.

사진에는 두루마기차림의 박두천이가 너털살쥔 음직한 아들을 품에 안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앉았는데 그옆에는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수줍은 눈매로 다소곳이 앞을 내다보고있었다.

어느 집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가족사진이었다.

헌데 나는 그들이 배경으로 한 둥그런 손잡이가 달리고 검은 글씨로 《福》(복 복)자가 씌여진 대문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어떤 깨름직한 냄새를 맡은듯 한 느낌이 들었다. 해방전에 지주집이나 부자집의 문들에서 저런 염병할 글자들이 보이곤 했었다. 이를테면 제를 지내듯이 운수에 빌어 세상의 복이 다 들어올것을 바라는 주인의 욕심사납게 리기적이고 고리타분한 세속의 근성이 뼈저리게 내비쳐있는것이였다.

《이건 아바이네 집입니까?》

말을 끌고온 그에게 내가 물었다.

《네.》

그는 당황해하며 어색하게 대꾸했다.

나는 말없이 사진을 내주었다. 어쩐지 더 말할 재미도 없었다. 가슴속에 혐오감 비슷한것이 피어있는것을 느꼈다.

얼마후 우리는 다시 말을 몰았다. 나는 마차우에 앉아 말결에서 농군답게 둔한 걸음을 옮기고 있는 두천의 뚝판같은 잔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에서 본 시꺼먼 글자가 다시금 눈에 비껴들었다.

필경 두천이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복이 다 들어올것을 바라서 집대문에 그런 글자를 새겨넣었을것이다. 해방이 된 후에도 그런 글을 내붙인 집들이 더러 있었다.

이것은 운수를 빌며 남의 등을 쳐먹는것이 본성이였던 옛 시대의 흔적이 그대로 비껴있는것만 같아 나는 종잡은 눈으로 보아왔었다. 그런데 그것을 두천의 가족사진에서 보게 될줄이야. ... 그러니 두천이도 그 썩어빠진 낡은 근성에 물젖어있다는것을 말해주지 않는가.

《아바인 괜히 군대에 나온것 같수다.》

나는 화를 내듯 말을 건넸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전쟁관이라는게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것 하군

다르단 말입니다. 짐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집이 다 뭘니까. 전쟁통에 남은게 있는줄 아십니까, 온 동네가 다 재가 됐수다. 헌데 짐생각이 라니 원... 이런 판에 내가 아낙네들하구 밭이랑에 앉아 김이나 매야겠수? 나도 사내대장부웨다.》

그는 사뭇 노여운 음성으로 말했다.

그가 한참 있다가 새삼스레 말을 꺼냈다.

《남은게 없수다. 집은 없어지구 땅은 뺏길판이 됐지요. 사람이 빈주먹만 가지구 못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판엘 나가겠다고 부득부득 떼를 썼지요. 그때 군사동원부 군관이 승인을 해주면서 나더러 정찰병감이라고 합디다. 허허허... 전쟁도 사람이 하는노릇인데 나라고 왜 못하겠수. 동작이 굵뜨긴 해두 내뭇은 하겠수다.》

분명 박두천은 뭔가 노여운것이 있는듯 했다. 평소에 내가 그를 신통치 않게 보고있다는것을 모르지 않기때문일것이다.

나는 마차에 실은 마차우에 드러누워버렸다. 물론 두천의 말대로 사람은 제몫을 하게 되는 법이다. 그에게도 《특기》는 있다. 그걸 손도끼가 잘 말해준다. 헌데 손도끼로 별의별것을 다 만든다는 재간만으로야 어떻게 병사가 제몫을 다했다고 할수 있겠는가. 손도끼는 어디까지나 살림군에게 필요한것이 아니겠는가. 어쩐지 두천의 가족사진에서 본 그 시꺼먼 글자가 더욱더 확대되어 안겨오는듯 했다. 이제 와선 범상하게 보았던 손도끼마저 사진에서 받은 깨름한 인상을 더욱 강조해주는듯 했다.

중대는 행군을 다그치고있었다.

병사들의 발밑에서 풍겨오는 시누런 먼지가 안개처럼 부엌게 서려돌았다.

나는 행군중에도 두천이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이젠 그저 스쳐지날 일이 아니였다. 이번에는 중대의 행군을 지체시킬번 했지만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을 저지룰지 모른다. 암만 해도 그 손도끼가 큰 우환거리로 가슴에 박혀들었다. 뒹은 옷은 제때에 빨아야 하는것처럼 두천이한테서 그 세태적인 냄새를 가시게 하기 위해서도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했다.

늦은저녁이였다.

나는 중대가 휴식하고있을 때 분대원들을 따로 모이게 하고 행군총화를 지었다.

두천을 대렬앞에 불러내다세우고 이런 경우에 할수 있는 가장 혹독한 추궁을 한 다음 손도끼를 버리라고 명령했다.

《어서!... 듣지 못했소?》

두천은 배낭아구리를 열고 손도끼를 꺼냈다. 그의 크고 뼈마디진 손이 떨리고있었다. 마침내 그는 손도끼를 풀밭에 내려놓고는 허전한듯 엉거주춤 서있었다...

얼마후 중대는 다시 행군을 시작했다.

캄캄한 밤이였다.

앞쪽의 거묵한 산발들너머로 연신 벌거우리한 화광이 피어오르고 둔중한 포성에 땅이 진동하고있었다.

어디선가 하늘을 찌르는 비행기의 발동소리와 폭음소리들이 뒤섞이곤 했다.

전선은 퍼그나 가까워지고있었다.

병사들의 발자국소리와 장구류 부딪치는 둔탁한 음향들이 전선의 먼 소음으로 어수선했던 밤의 대기를 다급히 흔들고있었다.

나는 귀결에 뒤쪽에서 울리는 문화부중대장 서인규의 험한 말소리를 들었다.

《아바이, 어째 풀이 죽었습니까?》

《아니 뭐 별루...》

두천의 웅근 말소리...

《비판을 받은것때때 그러시지요.》

《글쎄 제가 나살이나 전사해가지구 말썽을 부렸수다.》

두런두런 주고받는 말소리들을 딱히 가려들 수가 없었다. 나는 귀를 강구었다.

《...전쟁이 끝난 다음 손도끼를 다시 찾읍시다.》

《손도끼를요?... 원 무슨 룡을...》

《룡이라니요. 그건 뭐 재산이 아닙니까. 이젠 옛날하군 다릅니다. 놈들한테 부지깽이 하나라두 뺏겨선 안되지요. 우리가 이 전쟁을 왜 하는겁니까. 다 되찾아야 합니다....》

《...》

나는 설득력있게 말할줄 아는 서인규가 부러웠다.

사실 나는 두천이가 제손으로 손도끼를 버리게 한 후 자기가 지내 매정한게 아닌가싶어 속이 좋지 못했다. 그런데 서인규의 말을 듣느라니 어쩐지 내 마음도 풀리는상싶었다...

그날 새벽에 중대는 전선에서 싸우고있는 련대와 합류할수 있었다.

## ×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준엄한 실체를 낭만적인 환상으로 그려보기가 쉽다. 하긴 전쟁이 아무리 준엄하다고 해도 평화 시기에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낭만적인 생활이 넘쳐날 때도 있다. 나는 첨예한 이 두 극을 실제로 체험한것이였다.

련대가 련천계선에 이르렀을 때였다.

어둑새벽이였다. 우리는 갑자기 전호를 굴설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가 차지한 위치는 그리 높지 않은 돌박산이었는데 앞쪽으로 넓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적들이 이미 차지한 고지와 마주하고있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적들은 고지에 방대한 병력을 집결시켜놓고 아군의 진격을 저지시키며 나아가서는 반공격으로 정세를 역전시켜보려고 기도하고있었다.

우리는 급히 전호들을 봤다. 공병삽들에서 불꽃이 일었다. 운수사납게도 산은 나무조차 변변히 자라지 못하는 돌박산인지라 전호를 판다는게 그야말로 난공사였다. 삽날이 모지라질 지경으로 다 그쳤지만 얼마 자리가 나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바위를 까내는 소리, 자갈을 긁어내는 소리가 부산스럽게 들려왔다

날은 벌써 흰히 들리고있었다.

썩, 썩-

등을 서늘케 하는 기분나쁜 소리가 들려왔다. 포란이 공기를 찢는 소리였다. 적들이 눈치를 챈 모양이였다.

사방에서 포란이 흙기둥을 일으키며 터져오르기 시작했다.

꽁, 꽁-

썩, 썩-

우리는 미처 전호를 다 파지 못한채 적의 포탄 세례를 받게 된것이였다. 모두들 절반도 되나마나 한 전호에 겨우 몸을 숨기고 돌과 바위를 불안고 씨름을 하고있었다. 이것은 전투라기보다 고통스럽고 맹랑한 역사일이였다. 희생자들도 나오고있었다.

고지는 온통 화염에 휩싸여 뒤죽박죽이 되였다.

화광이 무시로 반짝거리고 돌조각이 뒤섞인 흙기둥이 사태처럼 쏟아져내리곤 했다.

우리는 피눈물을 삼키며 전호를 파고 또 봤다.

이제 벌어질 전투의 승패와 병사들의 생사운명은 이 전호에 달려있는것이였다. 펄 시간이 걸려서야 몸을 숨길만 하게 전호를 팔수 있었다.

적들의 포사격이 뜸해졌다.

얼마후 적정을 알리는 감시병의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급히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흙먼지와 포연속으로 골짜기를 메우며 밀려오는 적의 산병선이 거뭇거뭇하게 보였다.

나는 기관단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전호휴장에 가슴을 실었다. 돌부스레기들이 쏟아져내렸다. 돌바위들을 파올렸는지라 조금만 쓸쳐도 흩어져내렸다.

하지만 거기에 신경을 쓸 계제가 못되였다. 우선 전투부터 치르고봐야 했다.

고지에는 무시무시한 정적이 깃들고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랑쪽 분대원들을 살피었다. 왼쪽 두대원 건너에 있는 두천이가 눈을 찔렀다.

그는 장총을 앞으로 뻗쳐놓은채 꾸무적거리며 무언지 댄 놀음을 하고있었다.

나는 홀 그에게 날아갔다.

《아바이, 뭘 합니까?》

나는 사납게 부르짖었다.

《글쎄 이놈이 망할...》

그는 휴장 안쪽으로 불쑥 내밀린 바위부리를 빼내느라고 끙끙거리고있었다.

《제길...》

나는 역증을 터뜨리며 총탁으로 바위부리를 파구 내리가기 시작했다. 한참 모지름을 써서야 겨우 바위부리가 떨어져나갔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오. 굴됡이처럼 꾸물거리선 안된단 말입니다.》

나는 위협적으로 부르짖고는 제 전호로 돌아와

다.

드디어 전투가 벌어졌다.

적들은 산골짜기를 누비며 새까맣게 밀려들고 있었다.

철새없이 터져오르는 요란한 총소리, 수류탄 폭발소리로 대기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나는 전투를 하는중에도 두천에게 시선을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우리 본대가 차지한 위치에서 그가 미타한 고리였던것이다. 현대 그는 우려했던 것보다 바위처럼 듚적해보였다. 동작이 느린것이 탈이긴 하지만 실수없이 하느라고 그러는지 침착히 적을 겨냥했다가는 쏘아눕히곤 했다.

마침내 적들은 술한 주검을 남겨놓고 쫓겨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철사없이 엉망이 된 전호를 파울렸다.

나는 두천에게 다가갔다.

《전호를 잘 손질해놓으시오. 아까처럼 그 모양이 돼선 안됩니다. 알만 합니까.》

《네.》

두천은 커다란 몸을 웅크리듯 하고 서서 허둥거렸다. 나는 그를 측정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삽을 주시오. 내가 좀 팔테니...》

두천은 와들 놀라며 공병삽을 등뒤로 가져갔다.

《원, 무슨 말씀을... 내가 삽이야 남만 못해두일에서 지겠습니까. 걱정놓으십시오.》

그날 적들은 세차레나 공격해왔지만 여지없이 격퇴되곤 했다.

우리는 저녁늦게까지 전호굴설작업을 끝내고 나서 각기 전호에서 새우잠을 잤다.

새벽녘에 나는 이상야릇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귀기울여보니 쇠붙이를 바위에 대고 가는 소리였다.

나는 그쪽으로 갔다.

나는 두천의 전호앞에서 우뚝 굳어지고말았다.

전호가 생판 달라진것이였다. 전호의 네귀에는 말뚝을 박고 사방으로 통나무들을 가로썬아 전호벽이 무너지지 않게 만든것이였다. 이렇게 하면 폭격에 땅이 아무리 진동해도 전호가 무너지지 않을것이였다.

두천은 이쪽에 등을 돌리고앉아 공병삽을 바위에 대고 갈고있었다. 그의 앞 교통호에는 불에 거뭇게 그슬린 크고작은 통나무들이 잔뜩 무저저있었다. 보매 날을 세운 공병삽으로 밤새 나무들을 베여다 전호를 손질했을것이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느꼈다. 역시 박두천의 살림군다운 일솜씨가 지금은 별로 가슴을 후덥게 해주는것이였다. 물론 그는 어제 나한테 날카로운 충고를 듣고 채심했을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두천은 무슨 일이든 손에 잡기만 하면 기를 지게 해놓는다.

《아바이...》

나는 감심한 어조로 뇌이며 다가갔다.

두천은 엉거주춤 일어섰다.

《정말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뭘, 본대장동지 말을 듣고 해본노릇이지요.》

나의 눈길은 그가 손에 들고있는 퍼렇게 날이 선 공병삽에 갔다.

《아바이, 삽을 좀 봅시다.》

나는 그의 삽을 받아들고 손을 대보았다.

두꺼운 삽은 어찌도 날을 세웠는지 어지간히 굵은 나무도 단번에 섬벅 벨것 같았다. 부지중 그의 손도끼생각이 났다. 아바이가 별수없이 손도끼를 버렸지만 또 하나의 《손도끼》를 만들어낸셈이 아닌가.

나는 시무룩이 웃었다. 이번에는 그의 손도끼를 버리게 하지 못할것이다. 그의 끈끈하고도 집요한 살림군다운 기질을 다시금 보는것만 같았다.

나는 뭐라고 할 말을 찾을수가 없었다. 눈을 내리뜨고 공병삽날만 매만졌다.

이때 대원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하나둘 모여왔다.

《히야- 멋이 있는데요.》

《역시 아바이의 솜씨가 다르다니까. 여기다간 기관총을 걸어야겠수다.》

《대포를 걸어두 되겠습니까.》

그들은 마치 새집에라도 들어선듯 벽적 떠들며 흥성거렸다.

《자, 괜히들 떠들지 말구 어서 이 나무들을 가져다 전호를 손질하게.》

아바이가 서둘러 말했다.

《그러니 아바인 이걸 우리한테 주자구 찍어다 왔습니까?》

《보면 모르겠나. 어서 가져가게. 저놈들이 지랄을 하기 전에 제격 끝내라구.》

병사들은 고마와 어쩔바를 몰라하며 통나무들을 날라가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에 못박힌 어떤 생각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어쩐지 자꾸만 그의 공병삽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과연 그의 손도끼를 내버리게 한게 옳은 처사였을가... 나는 자가당착에 가까운 착잡한 의혹이 지못게 매달리는것을 느꼈다.

이윽고 전호들마다에서는 말뚝을 박는 소리, 나무를 깎는 소리, 웃고 떠드는 소리들로 북적 끓었다. 다른 본대, 소대들에서도 우리의 본을 받아 전호를 새로 꾸리겠다구 나무를 찍어오거나 말뚝을 박거니 떠들썩했다.

우리 본대가 갑자기 중대적인 선망의 대상이 된것이였다.

나는 전호를 손질하다가 옆전호에서 들리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바이, 손도끼생각이 간절하지요. 그게 있으면 이런 일쯤은 식은죽먹기일텐데...》

《그따위 소릴랑 말게. 내가 처벌을 받구 내버린 거야.》

《하지만 손도끼야 뭐...》

한순간 나는 이쪽을 보는 병사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얼굴이 전호안으로 쑥 사라졌다.

나는 왜선지 마음이 착잡해지는것을 느꼈다.

그 손도끼사진이 있는 후부터 나를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에서 나와 멀어지는듯 한 어떤 야릇한것을 발견하곤 했던것이다. 그날 놈들은 아침부터 필사적인 공격을 해왔다.

술한 무리죽음을 내면서도 시체를 밟고 그냥 기어들었다. 골짜기는 련이어 다가드는 적들로 뒤덮여있었다.

그중에는 아군 방어전원 삼십여메터까지 이르러 웅덩이며 나무등걸에 의지했다가 최종돌파를 시도하는 놈들도 있었다. 고지경사면은 점차 놈들로 뒤덮이고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우리는 바위를 내리굴리기 시작했다. 고지에 흔한게 바위였다. 바위사태가 쏟아져내렸다. 그것은 탄알보다 더 무서운 벼락이었다. 숨어배겼던 놈들이 더는 견디지 못하고 내리쫓겼다.

마침내 적들은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전투는 전에없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끝났다.

나는 전호벽에 의지한채 늘어지고말았다. 운신할수도 없을 지경으로 지쳐버린것이였다. 바위를 굴리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손을 들여다볼 맥도 나지 않았다.

열전호들에서도 잠잠했다.

아마 모두 지쳐 쓰러져버린것 같았다.

중천에서 내리쬐이는 따가운 해별이 드러난 나의 얼굴을 태우고있었다.

문득 나는 흐아- 터져오르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가까스로 고개를 쳐들고 소리난 쪽을 바라보았다. 두천의 전호에 병사들이 잔뜩 몰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웬일인가 해서 무거운 몸을 일으키고 그 쪽으로 허청허청 걸어갔다.

《그러니 진작 약혼식을 해두자는겁니다. 아바이 아들은 다섯살이구 제 딸은 세살이니 안성맞춤이 아닙니까. 어서 말만 떼십시오.》

서인규가 곁에 앉은 두천에게 건네는 말이였다.

병사들은 땀과 흙먼지에 매탁질이 된 얼굴에 잔뜩 웃음을 머금고 그들을 지켜보고있었다.

《아니, 문화부중대장동진 진짜 약혼식을 하자는 겁니까?》

두천은 짐짓 눈을 크게 뜨고 놀란듯 물었다.

《정말 아니묘요. 아들이 참 잘 생겼수다. 큼직 큼직한게 장수감으로 났단 말입니다. 그리구 집대문에 <복 복> 자까지 써붙인걸 보니 지주부럽잖게 잘 살겠는데 이왕이면 이런 집에도 제 딸을 주고싶단 말입니다.》

와- 웃음이 터졌다.

나도 허거뜰 웃음을 지었다.

《허, 이거 문화부중대장동지한테 아들자랑을 좀

해보겠는데 약혼식까지 하자 할줄은...》

두천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러건말건 서인규는 그가 들고있는 사진을(제 딸의 사진인것 같았다.) 들어보이며 흥이 난 어조로 말했다.

《제 딸의 사진을 보십시오. 얼마나 곱게 생겼습니까. 선녀같지요?》

《아니, 세살밖에 안된 딸을 선녀라니 원...》

두천이가 통을 주듯 대꾸하며 뒤더수기를 썩썩 굽었다.

그통에 또다시 웃음이 터졌다.

《아바이, 어서 말을 떼시라고. 그 애들이 커서 시집장가갈거야 뻔한데...》

《아바인 줄장부네.》

《그럼 해봐? - 헌데 내 아들녀석이 나긴 더 잘났는데... 우리 집에서 밑지는게 아닐가?!...》

두천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제법 머리를 기웃거렸다.

《하하하.》

《이젠 아바이가 값을 올리는구만.》

《아바이가 정말 할줄 아는데...》

《허허허.》

병사들은 웃어대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전호안은 흥겨운 웃음소리들로 복적 뚫어번졌다.

이때 서인규가 이쪽을 띠여보고는 얼른 말을 건넸다.

《저 분대장동무가 와있었군. 이럴 땐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동무가 해주우. 성사가 되도록 말을 좀 해달란 말이요. 아바이가 재쳐서 야단이요.》

병사들이 길을 띄워주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끈에 매인듯 다가갔다.

《자, 이 사진부터 좀 보우. 아바이가 마흔살에야 봤다는 첫 아들이요.》

그것은 언젠가 내가 본 두천의 가족사진이였다.

대문에 찍힌 검은 글자가 대뜸 내 눈을 찔렀다.

나는 혐오감으로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드는것을 느꼈다.

《왜 그러오?》

서인규는 사진을 내주는 나를 의아쩍게 쳐다보며 물었다.

《전 이런 문제엔 영 감각이 돼와서... 전 잠깐...》

나는 슬며시 자리를 뜨고말았다. 이런 경우엔 할줄 모르는 너스레라도 떨어야 제격이다. 하지만 사진에서 받은 불쾌한 인상으로 해서 흥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흥성거리던 분위기가 어성버성해졌다.

나는 전호에 돌아와 마라초연기만 꾸역꾸역 피워 올렸다.

두천의 전호에서 또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혼담》이 벌어지는 모양인가. 별난 《혼담》도 다 있군. 박두천이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 봐야 저 모양이었다. 객적은 놀음은 걸어치우라고 소리치고싶었으나 문화부중대장이 섞여있으니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때 또다시 왁작 떠드는 소리  
나는 입을 항 벌리고말았다. 거기서 연이 날아 오르고있지 않는가. 이게 무슨 판국이람.  
전호안에서 한 병사가 숨씨있게 연을 날리고있었다.

나는 어리치듯 하늘만 쳐다봤다. 어쩐지 살얼음에 올라선듯 아슬아슬한 느낌마저 들었다. 혹시 전쟁이 아닌 어느 왕청갈은데 와있는듯 했다.

이때 교통호의 모퉁이를 돌아 서인규가 다가왔다.

《어째 동문 혼자 있소?》  
그는 우선우선한 어조로 물었다.  
나는 자세를 바로했다.  
《혹시 동문 이게 비전투적요소라고 생각하는게 아니요?》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  
《아마 그럴거요. 아바이한테서 구태여 손도끼를 내버리게 한것도 비전투적인 요소라고 봤기때문일거요. 안 그렇소?》

《사실 그렇습니다.》  
나는 솔직히 시인했다.  
《그렇잖아두 본대장동무와 한번 얘기해보고싶었소. 동문 아바이가 공로를 세울수 있다고 생각해본적은 없소?》

《아바이가요?》  
나는 머쓱히 웃었다.  
《어림도 없다? 어째 그렇소?》  
《문화부중대장동지도 그 사진의 집대문에 찍힌 꺼먼 글을 보셨겠지만 천생 제살림에 재미를 붙인 리기적인 아바이를 볼수 있잖습니까. 그가 살림군으로서 첫손가락에 꼽히겠지만 군인으로서야...》

《군인이 살림을 몰라야 한다는 법은 없잖소?》  
《예?》  
서인규는 특명해보이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다시 물었다.

《그가 손도끼를 버리면 군인다와질거라고 보우?》  
나는 미처 대답을 못했다. 그 물음앞에 나의 대답이 가당기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음을 느낀것이다.

한참만에야 변명하듯 뇌이였다.  
《전 다만 각성시키고싶었습니다.》  
《이보우...》

서인규는 군모를 벗고 이마의 땀을 훔쳤다. 그의 넓은 이마에 모자가녀자리가 깊게 피멍처럼 나있었다.

《병사들의 배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여받은

땅의 흙 한줌이 있는가 하면 고향집열쇠를 허리띠에 차고다니는 병사도 있소. 저기 떠있는 연은 3중대 병사가 띄운건데 전쟁이 끝난 다음 아들에게 주겠다고 만든거라오. 그도 해방전에 찌지게 못산탓에 늦장가를 들어 본 아들인데 보고싶을 때마다 저 연을 들여다보곤 했다오. 아바이의 손도끼는 그와 별개겠소?》

《...》  
나는 이번에도 대답을 못했다. 그의 말에는 부인할수 없는 진실이 있음을 느꼈던것이다.

《동문 혹시 〈영웅남아〉들만을 가지고 이 전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아니요. 〈영웅남아〉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아니요. 우리곁에 있다는것을 알아야 하오. 뿌리깊은 나무가 안넘어지는것처럼 자기한테서 빼앗지 못할 귀중한 것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병사가 아닐가?》

이때 《썩, 썩-》 포탄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저기서 폭음이 터져오르기 시작했다.  
《저 망할 놈들이 얘기할새도 안 주는군. 다시 마주 앉지요.》

서인규는 전호벽에 세워둔 기관단총을 거머쥐고 교통호를 걸어갔다.

고지는 포화속에서 신음하며 떨고있었다. 무기로 작렬하는 폭발의 섬광이 한낮의 대기를 치째고 불이 달린 나무등걸이 솟구쳐오르곤 했다.

나는 두귀를 막고 전호바닥에 엎드려있었다.  
흙먼지와 돌조각이 우박처럼 잔등에 쏟아져내리곤 했다. 왜선지 문화부중대장이 하던 말들이 그냥 귀전을 두드렸다. 두천의 손도끼가 눈앞에 육박해왔다. 그리고 퍼렇게 날을 세운 공병삽이 번갈아 안겨왔다. 그 어떤 모순된 의식이 뇌리를 스쳤다. 과연 박두천은 군인답지 못하단 말인가. ...그럼 나는 무엇인가. 《영웅남아》인가? 나는 처음으로 자신을 앞에 놓고 물어보았다. 나는 물론 한다 하는 싸움군으로 자부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물음에 확실한 대답을 찾을수 없었다. 다만 꽤 굳긴해도 물기가 마른 나무막대기같은 자기를 느낄수 있을뿐이었다. 하지만 박두철은 어수룩해보여도 좁이 넘치는 아름답리 싱싱한 나무처럼 안겨오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얼마후 적의 포사격이 멎었다.  
병사들은 먼지를 털고 일어섰다.  
포연과 흙먼지로 흐릿한 공간속에 밀려오는 적 산병선들이 보였다. 그 산병선들은 끝이 보이지 않게 잇달리고있었다.

적은 사뭇 정연한 대행을 짓고 다가오고있었다. 잡도리를 단단히 한 놈들이었다. 첫 산병선은 벌써 아군의 사격거리를 넘어서고있었다.

서로 형체를 똑똑히 알아볼수 있을 지경으로 좁아진 적아간의 공간속에는 무시무시한 적막이 깃들고있었다.

웬일인지 적들속에서 혼란이 일어나는듯 한 기미가 보였다. 어떤 놈들은 고개를 찻히고 하늘을 쳐다보고있었다. 정연한 공격대형이 흐트러지는듯 했다.

나는 의아히 하늘을 쳐다보았다. 포연과 흙먼지가 걷히는 하늘가에서 무엇인가 희미한것이 반들거리며 떠다니고있었다. 그제야 나는 아까 병사들이 띄운채 걸지 못한 연이라는것을 알아차렸다.

불시에 적아간에 팽팽히 켜기운 힘의 균형이 우리에게 쏠리는것을 록감으로 느꼈다. 놈들은 확실히 당황망조하고있었다. 혹시 불의에 습격해오는 아군비행기로 착각한 놈들도 있을지 모른다.

병사들속에서 때아닌 웃음이 터져올랐다.

《하하하.》

《재미있는걸.》

이때 사격구령소리가 메아리치듯 들려왔다.

적들은 미처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채 쓰러지고있었다. 어떤 놈들은 애당초 꿈무늬를 빼고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거대한 힘이 놈들을 짓누르는것만 같았다.

《어허허.》

《비겁한 놈들, 이거나 먹어라.》

《연에서 줄폭탄이 떨어진다.》

병사들은 웃음섞인 말들을 섞어가며 총을 쏘아댔다. 전투를 하는중에도 고지는 여느때없이 흥성거리고있었다.

옆전호에서 한 병사가 통쾌한 어조로 나에게 말을 건넸다.

《분대장동지, 저 연이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전투도 해보기 전에 놈들의 허리를 꺾어놨으니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요, 연한테 표창을 해야 할가 보오. 허허...》

나는 전선에 나온 후 처음으로 가슴후련히 웃음을 터뜨렸다....

## ×

이들날 새벽 편대는 뒤미처 당도한 아군부대들과의 연합작전으로 적의 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는 남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끝없이 이어지던 행군길이 떠오른다. 먼지가 일어번지는 황토길, 인민군대렬들. 대렬들... 각종 군용차들, 밤, 대기를 태우는 화광...

편대는 고지를 탈환한 때부터 삼일째 되는 날한 시가지에 대한 포위공격작전을 단행하였다. 적들은 시가지에 뒤몰려 발악하고있었다. 아군의 포위가 압축될수록 적들의 저항은 필사적이였다.

도시는 화염에 휩싸여있었다. 처처에서 화재의 검은 연기가 타래쳐오르고 총포성이 실재없이 터져오르고 건물들이 맥없이 무너져내렸다.

나는 3층짜리 건물을 앞에 둔 뒤자높이의 콩크리트담장뒤에 분대원들과 엮드려있었다. 앞에 있는 건물을 차지할데 대한 임무를 받은것이였다. 담장과 건물사이에는 이십미터카량의 폭을 가진 마당이 펼쳐졌는데 나무 몇대가 서있을뿐 은폐할 곳이 없었다.

놈들은 건물의 네개 창문에다 모래마대를 쌓아

화점을 만들어놓고 담장으로 기미만 보여도 불질을 퍼부어댔다.

나는 초조와 불안으로 가슴이 옥죄이는듯 했다. 건물에 돌입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가 은신할수 있는것은 이 담장밖에 없다.

전쟁전에 시인민위원회였다고 하는 이 건물은 주택구역과 동떨어져있었다. 이를테면 사방은 의지해볼만한 곳이 없는 공지였다. 다만 건물마당을 둘러친 담장 외권으로 나지막한 둔덕이 있었는데 그우에 마구간이나 창고 비슷한 길다란 초가집이 한채 있고 무슨 쌀포대인듯 한것을 잔뜩 실은 마차 한대가 보였다. 거기서부터 원컨 건물담장의 빗장을 지른 협문으로 밋밋이 뻗어내린 길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정황에서 그것이 어디에도 소용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나는 초조감을 견디다 못해 담장을 따라 달리며 자동총사격을 퍼붓군 했다. 맞받아 울리는 앙칼진 기관총소리, 머리에 휘뿌려지는 금속성, 훔날리는 콩크리트조각들... 담장은 벌둥지가 되고있었다.

도대체 이것은 어쩔수 없는 막부득한 정황이였다.

한순간 나는 담벽이 부서질 지경으로 주먹으로 쳤다. 머리에서 번개가 친듯 했다. 담벽의 금간사이로 마당 한중간을 못미친 곳에 하수도뚜껑이 놓여있는것이 확 안겨왔던것이다. 출로는 저기밖에 없다. 하수도는 건물밑으로 통해있을것인즉 반전차수류관을 몇개 처넣는다면 아래층이 꺼져내릴것이고 웃충도 주저않게 될것이다.

나는 대원들에게 결심을 알려주고나서 반전차수류관을 한데 모아놓고 세개씩 묶기 시작했다. 다른 대원들은 엄호케 하고 내가 직접 한 대원을 데리고 하수도에 뛰어들 작정이였다.

이때 박두천이가 다가와 장총을 세워잡고 앉아 말을 건넸다.

《분대장동지, 그럼 저 집이 아예 무너질게 아닙니까?》

나는 그의 천진한 물음에 맹랑하기 짝이 없었다.

《무슨 정신빠진 소리요. 집이 다 뭐요.》

두천의 눈에서 갑자기 불이 이는듯 했다.

《저 집은 인민위원회였다고 합니다. 나라의 큰 집이란 말이웨다. 술한 집이 못쓰게 된것만도 가슴터질 노릇인데 저걸 제손으로... 안될 말이웨다.》

나는 얼친 사람처럼 그를 멍하니 쳐다봤다. 그가 나한테 대들기로 나와보기는 처음이였다.

《그리구 그건 될상실지도 않은 일이지요. 집이란건 쉽게 허물어질수 있게 생기질 않았수다. 집이야 내가 잘 알지요.》

그는 숨을 헐떡거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저놈들이 멍청이가 아닌이상 하수도를 그냥 뒀을리 없수다.

지뢰를 설치했든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있을거웨다. 저길 보시우. 하수도옆에 발자국자리가 있는걸.》

나는 다시금 담벽의 금간 사이에 눈을 가져다

됐다.

아닌게 아니라 하수도뚜껑주변에 희미한 발자국자리들이 보였다. 분명 전투가 있기 전에 놈들이 하수도에 들어갔었다는것을 의미했다. 나는 급박한 정황에 물리던 나머지 무서운 후과를 가져올수 있는 경솔한 판단을 내린것이다. 그러나 두천의 끈끈이살림군다운 눈만은 속일수 없었던것이다.

나는 맥이 짝 빠지는것을 느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내뿜었다.

《아바이, 이젠 어찌면 좋습니까?》

나는 거의 애원조로 물었다. 지금껏 나는 그한테 매달리며 방책을 호소해보기는 처음이었다.

《판수가 없수다. 저놈들의 눈을 판데로 돌릴수 밖에...》

그는 어금이를 깨물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의 얼굴만 뻔히 쳐다보았다.

눈을 판데로?... 어떻게?...

《좀 기다리슈. 놈들이 판데 총질을 하면 기회를 놓치지 마우. ... 네 부락은 그거웨다.》

그는 혼연히 뇌이고는 등을 구뭇하고 담장 원컨으로 달려가더니 모퉁이로 사라졌다.

한순간 나는 두눈을 홑떴다. 윈컨 담장너머 둔덕우의 쌀포대를 잔뜩 실은 마차로 달려가는 두천을 보았던것이다. 그는 마차의 멍에채를 불안고 일어서더니 건물을 향해 밀고오기 시작했다.

그제야 나는 그가 무엇을 하자는지 알아차렸다.

그는 마차로 건물에 돌입함으로써 적의 시선을 자기한테 집중시키자는것이였다. 이 정황속에서 달리할수 없는 출로를 한몸으로 뚫기로 결심한것이다.

적의 화점들이 일시에 발작적으로 울부짖었다. 마차에 실은 포대에서 연방 흰면지가 뿜어올랐다.

한순간 두천은 앞으로 폭 꼬꾸라졌다.

《아바이-》

나는 피타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몇순간이 흘렀다...

문득 아바이가 움직이더니 멍에채를 불안고 다시 일어섰다. 평소에는 눈에 거슬리던 그 커다란 체구가 지금은 그 어떤 불사신의 거상으로 안겨왔다.

나는 분명 총소리들 속에서 무쇠를 두드리는듯한 피성을 들었다.

《이놈들... 두천이가 죽을줄 아느냐... 피...값을 내라-》

하늘땅이 흠칫 뒤떠는듯 했다.

그는 마차를 밀고 한발한발 건물로 육박하고있었다.

스러져가는 저녁노을빛이 그의 온몸을 피빛으로 물들이고있었다. 마차는 점차 경사지길에 들어서더니 빠른 속력으로 윈컨 담장문을 들이받았다.

쿵-

육중한 문이 켜 갈라지더니 산산이 부서져 날

아갔다.

안으로 쑥 들어서는 마차!...

놈들은 기절초풍을 한듯 일제히 그쪽에 총구를 돌려대고 불질을 해댔다. 우리가 그쪽으로 쳐들어올줄 안 모양이였다.

《분대, 날따라 앞으로!》

나는 벽력같이 웨치고는 담장을 홀 날아넘었다. 그리고는 마당을 곧추 질러가며 화점에 수류탄을 던졌다.

뒤따라 현관밑에도 수류탄을 뿌렸다. 시뻘건 화광과 함께 산산이 부서져나가는 문짝들...

나는 곧장 킁킁한 안쪽으로 뛰어들었다. 내뒤편 따라 혹은 창문들로 대원들이 마구 뛰어넘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것을 잊어버렸다. 박두천의 그 목소리와 불사신의 모습에서 우리는 애당초 자신을 돌아볼 권리가 없음을 느끼고있었던것이다.

따따따...

따따따-

나는 적이 얼씬거리는 안쪽에 기관단총사격을 퍼부으며 1층을 지나 2층복도를 누볐다. 적들은 우리의 비수로 찌르는듯 한 무자비한 공격에 넋을 잃고 들짐승처럼 헤덤비다가는 쓰러지곤 했다....

얼마후 총소리들이 뜸해졌다.

나는 자욱한 연기속에서 복도에 널린 시체며 깨진 문과 유리조각들을 알아보고서야 전투는 이미 끝났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전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난것 같았다.

나는 두천아바이가 생각났다. 그길로 건물에서 뛰쳐나와 마차가 서있던 곳으로 허둥지둥 달려갔다.

두천은 마차결에서 총을 앞으로 겨누채 엎드려있었다.

나는 급히 그를 둘러안았다.

《아바이.》

그는 기척이 없었다. 그의 가슴을 어루어듬던 나는 가슴이 찢눌하게 식어드는것을 느꼈다. 손에 척척히 젖은 피를 느꼈던것이다.

《아바이-》

나는 저도 모르게 목터지게 불렀다.

뒤미처 달려온 대원들도 그냥 그를 불렀다.

충천하는 검붉은 화광이 우리를 얼비치고있었다.

문득 나는 그의 가늘게 뜯은 눈빛을 보았다.

《다들... 무사했나?》

그는 간신히 물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무들도 무사하구... 집도 쓰게 됐으니... 일은 됐네.》

그는 자기를 불안고있는 나를 이윽히 쳐다보더니 숨새는듯 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분대장... 내가 꽤 속을 태웠수다. 주책이 없는 걸 용서...》

그는 맥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는 숨이 막히는것을 느꼈다.

병사들은 그를 부르며 땅을 치며 울고있었다.



하지만 나는 화석처럼 굳어진채 움직일줄 몰랐다...

이튿날 해방된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남향밭이 둔덕에 아바이를 안치했다.

서인규가 추도사를 했다.

병사들은 흐느낌을 그칠줄 몰랐다.

나는 그가 곁에 없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제서야 주위에 서린 싸늘한 빈 공간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가 우리들에게 생활의 열과 향기를 안겨주던 못 잇을 고향의 모습과도 같은 사람이었음을 사무치게 느껴졌다.

대원들이 돌아간 후에도 나는 봉분앞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했다. 그앞에 저지른 거칠고 매정한 행동들이 돌이키지면서 도저히 자신을 용서할수가 없었다.

문득 인기척이 들렸다. 뒤에 서인규가 서있었다.

그는 내가 마음껏 울수 있도록 기다려준것 같았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일이 이렇게 되고야 동무와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소. 우리가 고지에서 〈약혼식〉을 하던날 동무가 못마땅해하는게 속에 걸렸는지 저녁에 그가 나를 찾아왔소. 때문에 〈복 복〉자를 쓴 그 집은 해방전에 지주집이었다오. 면인민위원회에서는 지주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아바이에게 그 집을 주었다오. 아바이는 나라를 위해 한일도 없는 자기에게 그 고래등같은 집을 준게 너무도 송구스러워 누구한테도 말하기가 어려웠다고.》

《네?...》

나는 신음같은 소리를 내며 얼굴을 들었다. 언젠가 풀밭에 앉아 사진을 들여다보던 두천의 모습이 되밧혀졌다.

《아바이는 초가막들뿐인 동네에서 자기만 기와집을 쓰고사는게 가슴에 걸려 하루는 그 기와장을 벗기고있었다오. 새로 지은 민주선전실지붕에 씌우겠다고 말이요. 이걸 보고 세로위원장이 무슨 실성한짓이냐고 막 욕을 했다고. 해방전에 못살고 천대받던 사람을 내세워주는건 나라의 시책이고 법인데 그걸 어길테냐고 말이요. 그때부터 아바이는 쓰러져가는 마을의 집들을 손질해주는게 버릇됐다고 하오. 늘 허리에 손도끼를 차고다니면서 남의 집 울타리가 넘어진걸 보고도 그냥 지나갈수가 없었다는게요.》

서인규는 잠시 말을 끊고 손수건을 눈굽에 가져갔다.

그의 얼굴은 참기 어려운 비통함에 창백한 빛마저 어려있었다.

이윽고 그가 다시금 말을 이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마을은 하루아침에 채더미가 되고말았다오. 그는 나이가 안찬 애송이들도 군대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나라의 은덕을 누구보다 많이 받은 자기가 앉아있을수가 없었다오. 그래서 끝내 군대에 나오게 되었는데 손도끼만은 놓을수가 없었다오. 사람은 어디가나 집을 쓰고살기마련인데 놈들과 싸우면서 병사들의 집은 제손으로 지어주고싶었다는게요. 이런 아바이를 우린 너무

도 모르고있었소. 병사들의 집이 되고 고향이 되어주려고 했던 아바이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고있었다 말ियो.》

나는 털썩 무릎을 접고 섰다.

《문화부중대장동지, 전 어쩌면 좋습니까. 차라리 저를 처벌해주시시오.》

서인규는 나의 두어깨를 잡아일으켰다.

《목소리를 낮추오. 아바이가 듣겠소. 아바이는 동물 원망해본적이 없었소. 자기를 채찍질해준걸 고맙게 여겼소. 고이 잠든 아바이를 깨우지 맙시다.》

서인규는 이려고나서 어깨에 멘 전투가방에서 눈에 익은 손도끼를 꺼냈다.

《?...》

나는 눈을 홉떴다.

《동무네 분대에서 행군총화가 있는 후 풀밭에 버린걸 내가 따로 건사해두었겠소. 언젠가 동무가 제손으로 돌려주게 될줄 알았는데 이렇게... 늦을 줄 어찌 알았겠소.》

그는 또다시 손수건을 눈에 가져갔다.

《...》

나는 손도끼를 받아든 두손에 중풍을 만난듯 와들와들 떨리는것을 느꼈다.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푹 부러져나간듯 했다. 지금껏 지탱해왔던 좁고 메마른 의지가 그 어떤 둔중한 힘에 부딪치자 일시에 허물어져내린것이었다. 그러자 아바이가 사랑해온 모든것-손도끼며 가족사진, 하늘가에 떠오른 연이며 고향집, 땅, 시내물, 호호하는 공기마저도 그 어떤 생신하고도 거창한 의미를 띠고 밀물처럼 가슴속에 휩쓸어드는것이었다.

하소에 그것이 나한테는 너무도 범상하고 지어는 하찮은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바이는 그것이 없이는 살수 없는것처럼 얼마나 귀중히 여겼던가.

나의 눈앞에는 마차를 밀고 적에게 육박하던 두천의 불같은 모습이 뚜렷이 안겨왔다. 그것은 내가 알고있는 병사라는 이름만으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영웅적인 인간, 불사신의 모습이었다.

그는 사랑할줄 알았기에 싸울줄도 알았던것이다.

...

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박두천에게 돌려주지 못한 손도끼를 지금도 나는 우리 집에 간직하고있다.

나는 어디서 망치질소리라도 들려오면 그제 박두천의 손도끼질소리인듯 해서 소스라쳐 놀라며 눈물을 머금을 때가 있곤 한다. 머리에 백발을 얻은 오늘까지 그의 손도끼질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셈이다.

나는 신문기사에서 본 원썬들을 향해 애끓은 병사들이 쳐들었던 그 서슬푸른 도끼에서 박두천의 손도끼를 너무도 똑똑히 보았던것이다.

이 땅의 모든것을 그리도 소중히 여길줄 알았기에 참답게 수호할줄도 안 그 병사들의 모습에서 나는 두천의 후더운 숨결소리를 곁에서 듣는 듯싶다.

## 저 멀리 락동강 붉은 모래불

류춘선

선렬들 피젖은 발자욱 어려있는  
락동강 그 기슭 마음속에 밝아보네  
병사의 외투를 뜨겁게 새겨주는  
아 저 멀리 락동강 붉은 모래불

선렬들 그 넘원 가슴에 안고서  
자욱자욱 빛내이리 총잡은 청춘시절

병사의 멍세로 심장을 꿰게 하는  
아 저 멀리 락동강 붉은 모래불

병사의 의무를 다하기 전에는  
조국의 아들이라 부를수 없기에  
피땀은 심장을 대이고사는  
아 저 멀리 락동강 붉은 모래불

찬란한 문화, 슬기로운 인민

## 삼국시기 주택생활풍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건축이 인간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어있으므로 사람들은 예로부터 건축물을 인간생활을 위한 3대필수적요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창조와 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왔다.》**

삼국시기에 이르러 사회제도가 변하고 생산과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주택생활풍습도 적지 않게 변화발전하였다.

변화된 삼국시기의 주택생활풍습은 집짓기와 주택의 갖추새, 리용, 난방시설, 경리시설과 그 리용 등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이 시기에는 남향집을 짓고사는 풍습이 더욱 굳어지고 널리 보급되였다.

고구려의 안학궁터를 비롯한 건축지들과 고구려원왕릉, 강서큰무덤 등 많은 고구려의 무덤들이 대체로 남향을 하고있는것으로 보아 살림집도 역시 남향집이였다는것을 짐작할수 있게 한다.

남향집을 짓고사는 풍습은 조선인민이 오랜 기간 자연조건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창조적인 활동의 산물이며 그것은 후세에도 계승되였다.

삼국시기 주택생활풍습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여러 채로 구성된 주택을 짓고산것이다. 물론 이러한 집을 쓰고산 주민층은 일정한 정도의 부유한 계층이였다.

고구려풍속에 혼인을 언약하면 녀자집측에서는 큰 집뒤에 작은 집을 만드는데 이를 서옥(사위집)이라고 하였다는것이다. 이 자료에서 큰 집, 작은 집의 규모가 얼마만한것인가는 알수 없으나 서옥이라는것은 본래의 큰 집뒤에 따로 지은 집이였다는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주택구성에서 한채가 아니라 쌍채로 이루어진 집이 적지 않았다고 볼수 있다.

삼국시기 주택의 지붕형식은 배집, 우진각, 함

각기붕이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리용된 지붕재료는 기와, 새초 등이였다.

삼국시기의 주택생활풍습의 변천에서 주목되는 것은 아궁과 굴뚝이 완비되고 온돌방에서 생활하는 풍습이 개선된것이다.

이 시기의 온돌난방시설은 고구려무덤벽화들에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고구려인민들이 개선발전시킨 난방시설은 불을 지피는 부엌아궁과 온돌이 련결되고 굴뚝까지 갖춘 온돌난방시설로 되였다. 이것은 고구려사람들이 부엌아궁에서 불을 지피 그 열로 음식도 만들고 온돌을 덥혀 따뜻한 온돌방에서 앉아서 생활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삼국시기 주택생활풍습발전에서 다른 하나의 내용은 경리시설들을 충분히 갖추고산것이다.

고구려인민들은 농업을 기본생업으로 하고있었기때문에 창고는 농사에 필요한 도구들과 경리용 물건들을 넣어두는데 리용하였다.

경리시설에는 창고밖에 방아간, 마구간, 외양간, 우물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삼국시기 주택생활풍습변천에서 특이한것은 주택에 토방을 쌓는 풍습이 널리 보급된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시기의 유물자료들에는 여러가지 부엌세간들도 적지 않다. 그것을 종류별로 보면 단지, 병, 사발, 시루, 자배기, 합, 접시, 귀잔, 대야, 가마, 버치 등이다.

한마디로 삼국시기의 주택생활풍습을 종합하여 보면 몸채, 앞채, 부속건물 등 집채구성형식이 다양해진것, 온돌난방시설이 쓸모있게 개선된것, 여러가지 경리시설들과 집세간들이 갖추어진것 등은 앞선 시기의 주택생활풍습에 비하여 발전된것이였다.

이와 같이 삼국시기의 주택생활풍습은 고대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민족적주택생활풍습이 공고해지고 더욱 발전되였다.

## 전선소식 좋다!

김경석

포전머리 월참이 떠들썩하다  
방선에서 편지와 함께 온  
배나무집 막내아들 영예사진  
아서라, 그렇게 잡아채면 찢길라  
말수적은 분조장도 덤벼치며 다가오고

어느새 어깨성 절로 이룬 분조원들  
장군님 다녀가신 중대 병사라  
환희에 넘친 눈빛들이 모인 곳엔  
군복차림 림름한 청춘의 모습  
군공메달 번쩍이며 웃고있구나

아지치는 벼포기, 강냉이잎새들  
어디 보자 일렁이며 파도쳐오고  
뒤질세라 보도랑 물소리조차  
축하의 노래마냥 울리고 울리는데

높고 험한 산고지 초소살림도  
일당백 훈련모습도 보여주신 장군님  
그대어깨 두드려 축복해주신  
뜨거운 그 손길이  
금시 우리들의 어깨에도 놓이는듯

좋다, 전선소식 병사의 소식  
행군길에 번개같은 그대 걸음새  
저도 몰래 따라서는 우리 걸음엔  
제초기 밀어밀어 저 멀리 아득한 곳  
지평선 한끝이 지척인듯 가까웁고

좋다, 전선소식 병사의 소식  
목표마다 명중탄 날리던 그대 숨결  
불찌같은 폭양아래 이어갈 우리  
돌기돌기 쌀산의 메부리를 타고앉아  
통장훈 부를 날이 눈앞에 보이거니

정말이지 이 벌에도 우리 장군님  
기쁨속에 모시고 회답을 보낼  
고향의 마음들이 불타서 좋다  
고향과 초소를 하나로 잇는  
전선소식, 전선소식 참으로 좋다!

## 분대장의 어깨

서향철

땀젖은 훈련의 행군길  
아찔한 칼벼랑 어서 오르라고  
선뜻 내대는 분대장의 어깨  
뜨거웁 삼키며 딛고 오르느라면  
용맹은 나래돌쳐 하늘에 닿을듯

그 어깨 아니던가  
분대의 기관총 메고  
막내전사 나의 장구류도 덧메고  
숨가쁜 강행군길  
가시밭도 앞장에서 헤쳐온...

그 어깨 아니던가  
숙영의 밤이면  
자기의 비웃까지 내 어깨에 덧씩워주고  
내리는 찬비를 다 맞던 어깨

아 분대의 기수가 되고  
기둥이 되어  
위훈의 앞자리를 빛내이고도  
훈련에서 우 맞은 그날에는  
막내병사 내가 세운 위훈인듯  
나를 태워 목마가 되어주던 어깨여

내 어린 날  
노랑게 익은 첫살구 먼저 따라고  
나를 올려세워주던 형님의 어깨너머  
오늘은 선군시대 병사로 위훈 떨치라고  
억척같이 떠받들어주는 분대장의 어깨여

아 용맹한 싸움군의 나래를 돌쳐준  
분대장, 우리 분대장의 어깨  
그 어깨우에 병사가 있었더라  
병사의 어깨우에 조국이 있었더라

## 《용서에 대한 생각》

김성현

평범한 생활과정에 사람들은 용서라는 말을 가끔 쓰곤 한다.

사소한 잘못이나 결함을 놓고 사죄와 용서를 바라는 경우는 누구에게서나 있을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서창청년탄광의 탄부들을 만나는 과정에 나는 우리 시대 깨끗한 인간들이 지닌 용서라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느꼈다.

뜻밖의 사고로 봉락된 갱도에 여러날 갇혀있으면서도 작업을 중단함이 없이 발파구멍을 뚫러낸 서창의 탄부들.

그들을 만나러 갔을 때는 마침 회관에서 진행된 실효모임에서 주인공들이 시를 읊고있었다.

용서하시라 어머니시여  
무명천으로 통바지 해주었다고  
투정질하며 어머니의 속을 태우던  
이 아들을 용서하시라  
...

위훈에 찬 장한 일을 하고도 그들은 용서를 바라고있다.

자기들때문에 석탄생산이 여러날 지연됐다면서, 중대계획이 늦어졌다면서 송구한 맘으로 서있는 것이다.

위훈에 대한 자랑보다 먼저 조국앞에 더 큰 위훈을 세우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하여 터놓는 순결한 인간의 목소리.

그들이 부르는 용서는 결코 잘못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내 조국을 받드는 참다운 길에 한목숨 서슴없이 바칠 심장의 목소리이며 선군시대 강자들만이 터칠수 있는 신념의 맹세인것이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 나에게는 어느 유럽나라에서 읽은 이야기가 너무도 큰 대조를 이루며 떠올랐다.

그 나라 원양선단에서는 뜻밖의 사고로 두 선원이 표류하게 되었다.

며칠동안 계속된 흐린 날씨와 세찬 바람으로 하여 비행기와 쾌속정, 잠수함까지 동원되었으나 끝내 그들을 찾지 못하였다.

2일동안이나 두 선원을 《애타게》 찾은것을 두고 그 나라 신문, 방송들에서는 《참된 인권》에 대하여 대서특필했고 특별프로로 방송을 하였다.

그것은 유가족들에게 커다란 위안으로 되었고 《심심한 애도》의 표시로 되었다.

그러나 원양회사에서는 2일동안 태운 비행기,

배의 연료값과 운전자들의 수수료를 실종된 그들의 생명보험금에서 제했으며 더구나는 두 선원때문에 얻지 못한 리득을 재판소에 기소하여 《벌금》으로 떼냈다고 한다.

더욱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낸것은 뜻밖에 그들이 살아돌아오자 회사측이 취한 립장이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그들이 몇달만에 돌아오자 회사측이 준것은 사망통지서였다.

《당신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살아서 돌아온것은 우리 회사에 죄로 된다. 다시 나타나지 말라.》

회사측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두 선원은 주먹을 쥐고 절규했다.

산사람도 죽은 사람으로 되여야 하는 세상, 일터는 있어도 정을 나눌 사람이 없고 고향은 있어도 품어주는 조국이 없어 저주와 증오를 남긴 두 선원.

그러나 죽음앞에서도 신념의 노래 부르며 불굴의 노력투쟁을 벌린 영웅적탄부들.

그들을 온 나라가 따라배울 불사조, 불굴의 투사들로 내세워주는 우리 당, 우리 조국은 얼마나 위대하고 따뜻한 어머니품인가.

하기에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위훈을 세우고도 더 큰 위훈을 갈망하며 한 일보다 못한 일을 두고 가슴아파하는것이 이 나라의 소박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때문에 조국앞에 부끄럼없이 용서를 바라며 더 큰 일감을 스스로 걸머지는것이 선군조선의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들의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용서! 그것은 결코 평범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정녕 참된 애국자만이 조국앞에 터놓는 순결한 량심의 목소리이며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해갈 불사조들의 심장의 메아리이다.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이 땅위에 순결한 의리와 량심을 지닌 신념의 강자들의 메아리는 끝없이 울려가고있다.

허나 나는 그대의 아들  
내 혈전장에서 용맹하려니  
잊지 마시라  
내 최후의 돌격전에서  
기발 들고 나가다 쓰러져  
영영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해도  
조국이여  
부디 나를 잊지 마시라  
그리고 용서하시라

## 눈뜨는 장님들

최정용

그대 누구이든  
생각지 마시라  
눈을 부릅뜨고  
도쿄의 네거리를 거닌다 하여  
그들이 앞을 본다고 생각지 마시라

앞으로!  
《야스구니진자》를 향해  
줄을 지어 앞으로!  
떨쳐나선 일본의 우익정객들  
그들의 눈은  
보는 눈이 아니다.

일본을 패망시킨  
전범자들 위패앞에  
깊이 고개숙여  
참배! 참배!

그 추태 너무 놀라워  
세상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  
온 누리에 들썩해도  
막무가내로 두손 모아잡고  
참배! 참배!

군도를 뽑아들고  
《도쓰게끼》를 부르짖으며  
침략전쟁에 미쳐날뛰다가  
병졸들의 시체에 시체만을 덧쌓고  
멸망한 전세기의 왜군패망상을  
세상이 아직도 잊지 않고있는데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들에겐  
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노라  
피를 물고 날뛰다 뱉어버린 전범자들  
그 무참한 참패가

그 치욕의 망령들앞에  
《엄숙한 선서》를 다지며  
가겠단다 기어이 전세기의 그 길로  
전쟁마차를 몰아가겠단다  
참배! 참배! 가 또다시 참패가 되고  
자민당이 자멸당이 될지라도

그렇다 눈은 찢어도  
어제와 오늘을 가려 못 보고  
래일을 내다볼줄 모르는  
일본의 우익정객들은  
전쟁열에 눈먼 소경들이다

아 지켜보노라 온 세상이  
《야스구니진자》  
오늘은 살아서 찾아가지만  
래일은 죽어서 끌려가는  
사무라이들 그 해피한 물골을  
일본의 군국주의마차가 가닿을  
자멸의 종착점을

## 스스로 들썩는 불행

일본의 정치계엔  
별 피이한 말도 다 있다.  
《너자는 아이낳는 기계》라는

그렇단 말이지  
쇠를 깎는 선반기나  
닭알을 깨우는 부화기나 다름없는게  
녀성이란 그 말이지

일본의 고위정객  
그의 눈엔 사람의 피가  
기계의 기름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정을 담아 울리는 사람의 말소리가  
기계의 소음으로밖에  
달리 들리지 않는단 그 말이지

아, 아 불행이다  
애지중지 젖을 먹여 키운 자식이  
안아주고 업어주며  
품들여 키운 그 자식이  
제 엄마를 기계라 하고있으니

참으로 불행이다  
그런자에게 사람의 이름을 달아  
세상에 내놓은것이  
그것도 한 나라의 정객으로까지 내세운것이  
일본의 녀인들 세상없는 불행이다

사람과 기계도 가려볼줄 모르고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갖추지 못한  
그렇게 빼놓어진 정객들이  
점잔을 빼고있으니  
참차 일본은 어디로 가는건가?

문노니 대답하라  
일본의 정치인들  
《아이낳는 기계》에서 태어난  
그대들 또한 다름바없는  
《아이》라는 기계제품이 아닌가

그러니 그 어디나  
인간세상에서 그대들 있어야 할 곳이  
상품진렬장?  
아니면 제품창고?...

사라지라 어서 사라지라  
피비린 군국주의마차를 몰아  
최악의 재난을 인류에게 끼치기 전에  
사라지라 인간세상 그밖으로

그리고 탓하지 말라  
절대로  
그것은 그대들이  
스스로 뒤집어쓴 불행이기에...

## 《아름다운 나라》

떠들썩  
세상에 대고 말을 한다  
일본의 보수정객들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한다고

공원에 꽃을 심으며  
세상에 터놓는 리상이 아니다.  
수려한 산천경개와  
화려한 새 거리를 그려보며

인류앞에 말하는 꿈이 아니다.

《아름다운 나라》 건설이라  
어떻게?  
무엇으로?  
최대의 상상력을 발동하여도  
도저히 가늠이 가지 않는  
일본의 정치구호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뜯어고치며  
선제공격을 노리는  
고출력레이자무기  
그 생산에 열을 올리며  
되뇌입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름다운 나라》 건설한다고

아마도 전쟁열에 환장하면  
미학판도 뻘뻘해지는 모양인지?  
군국주의바람에 미쳐나면  
추한짓도 아름답게 보이는것인지?  
도저히 격에 어울리지 않는 말로  
허참, 세상사람들을 어리벉벉케 하누나

《대동아공영권》 옛꿈을 꾸는  
피발선 그 눈엔 보이는 모양이다  
핵참화에 폐허로 된 마을과 거리들이  
사람의 시체가 널린 산과 들이

그리고 그곳에 날리는 피묻은 일장기가  
둘도 없이 아름다운 화쪽으로  
그려지는 모양이다

허나 우리는 본다  
어리석은 광대극으로 세상을 웃기며  
제멋에 겨워 웨쳐대는  
그 《아름다운 나라》 건설이  
《멸망하는 나라》 건설로 끝나고말 그날을

생각되여라  
아시아의 《맹주》가 될 망상에 들든  
그 광신자들이 인간세상에서 영영 매장된다면  
오히려 일본땅이 한결 더 아름다워지리라

## 유래

## 막걸리

막걸리는 우리 나라 민족음료의 하나로서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마셔온 음료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무더운 농사철에 막걸리를 만들어놓고 농민들이 설참에 마시면서 땀을 들이는 풍습이 있었다.

옛 문헌인 《삼국지》에는 고구려, 부여, 예, 삼한에서 제천행사를 비롯하여 명절날에 술을 마셨다고 적여있다. 이것은 술뿐만아니라 일반대중이 자체로 생산하여 마시던 막걸리도 우리 나라 북부지역에서 먼저 나왔고 광범히 리용되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막걸리란 말은 맑은 술을 떠내지 않고 그대로 마구 걸러낸 술이라는 뜻이다.

막걸리에서 《막》은 《함부로 마구》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고 《걸리》는 액체속에 들어있는 찌꺼기나 건데기 등을 없애고 필요한 맑은 액체만 빠지게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 《거르다》가 명사를 만드는 뒤불이 《이》에 의해 명사로 된것이다.

(《막걸-이→막걸리》)

막걸리를 한자로 탁주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맑지 못하고 흐린 술이라는 뜻이다.

막걸리를 또한 탁배기라고도 한다. 여기서 《탁》은 흐리다는 뜻이고 《배기》는 명사에 붙는 뒤불이로서 그 명사에 관계되는것이 많이 들어있거나 짙 차있는것이란 뜻으로서 탁배기는 흐린것이 많이 들어있는 술이라는 뜻이다. 결국 막걸리, 탁주, 탁배기는 모두 같은 뜻을 나타내는 뜻같은 말로서 청주와 상반되는 말들이다.

막걸리는 소주보다 주정이 높지 않으나 시원하고 마시기 좋기때문에 가정들에서 흔히 만들어 마시었다.

막걸리(탁배기, 탁주)는 이처럼 민족적이며 향토적인 색채가 짙은 조선민속음료이다.

## 풀판처녀들

리진협

### 신입공 《담화》

오늘도 기고만장이구나  
어쩌면 좋니 저 뿔을  
《아바이염소》가 뿔치고 신 저 뿔 좀 봐  
오늘도 신입공 《담화》에서  
영아, 널 퇴방놓나봐

내앞에도 처음엔  
인정 모르는 저 뿔님들의 세계  
몇번이나 날 울게 했는지 몰라  
꼭듯이 곱다 해도 그 뿔대접  
그래도 정을 주고 맘을 졌더니  
신입공 《담화》에서 《합격》을 놓겠지

헐치 않단다 영아  
말 못하는 뿔님들이 아니니

하지만 조금이라도 색다를 뻔  
가차없이 뿔로 말도 건네거니  
그앞에 몇번이나 기겁을 당할지 몰라  
고것들 참  
떠나갈 손님인가 놀러살 주인인가도  
신통히 알아맞히질 않니

그럼! 그래!  
회초리로  
억지로 열지 못할 빗장문 아닐가  
끝없이 정을 주고 맘을 주기 전에는  
젓 한모금도 선뜻 주지 않으리라는  
그럼, 그렇단다 영아  
조국의 미래와 말을 하는 방목공  
참 헐치않은 《담화》야!

### 내 동무들아

차곡차곡 풀날가리  
우리네 그 마음도 창고마다 채웠으니  
이제는 다리쉽도 하라는가  
보렴  
때맞춤 내리는 눈  
이 새벽 청춘방목지에 눈이 오누나

단잠에 한껏 취한 동무네들아  
이젠 그만 창을 열고 눈구경하렴  
일에 묻힌 밤들에 잠도 그리웠다면  
보렴!  
날가는줄 모르게 일손도 맴던  
그 나날이 없었다면 어쩔번 했니

아카시아 싸리에 굵히운 얼굴  
그런 처녀시절이 이럴 땐 몇몇하구나  
오늘은 우리도 해당화 분통을 들고  
거울앞에 오래도록 앉아들 보자  
겨우내 염소새끼 안아낼 바쁜 손들에

오늘만은 품을 놓고 손바늘도 들자꾸나

순이야 그 동무 겨울버선 마저 지으렴  
나도야 헝이동무 손장갑에 꽃수 놓을래  
그다음엔 팔건고 또 깔깔 웃으며  
남동무들 호실에 벽지도 바르자마  
뿔하니

오늘은 우리 먼저 결싼 말로 걸자꾸나

일을 두고 오가던 정도 있겠지  
오늘은 남동무들 리발도 우리 해주자  
아껴둔 《봄향기》비누로  
땀에 뻘 작업복도 깨끗이 빨아  
그 성미들에 어울리게 다림발도 끈게 주자  
이 겨울에도 바쁘게 살 남동무들을  
온 풀판이 환해지게 내세워주자꾸나

얼마나 멋이나  
이 하루도 바쁨에 젊어 살 내 동무들아

보렴!  
산을 덮을 염소떼 흰구름을 그리여주며  
또 얼마나 바빠야 할 우리네 젊음을

눈이라도 저 하얀 눈이  
다 말해주며 내리는가를!

## 풀판의 소원

풀판 가득 우리 살림 늘어갈수록  
장군님 그리움에 불타는 마음  
오시면  
우리 풀판에도 정말 오시면  
우리 일터는 그이께 얼마만 한 기쁨이 될가

해종일 기쁨이 되어다오 풀판아  
모시면 장군님 환히 웃으시게  
우리 가꾼 염소떼 하얀 구름은  
끝작마다 덩이덩이 풍선되어 떠돌고  
산은 키돋궈 그이 기쁨 하늘에 걸렘

숲속길엔 청아한 새소리마냥  
풀판아 더 정을 쏟아 담아놓으렴  
우유차의 경적소리 가공기대의 그 동음  
장군님 그리며 우리 불러온 축원의 그 노래  
밤으로 낮으로 불타던 그 마음들을

그러면 끝없이 즐거우시여  
젖내 배인 이 손도 꼭 잡아주실  
아, 아버지! 우리 장군님!

풀갈짜기에서 젖꼭포가 내린다고  
오래도록 오래도록 환히 웃고계시리니

오시면 우리 풀판에도 오시면  
그렇게만 모시고싶어  
오시면 말쑥올려주려마 풀판아  
우리 정을 쏟아 마련한 꽃다발  
우리 곱게 엮은 꽃바구니 무엇인가를

내 나라의 어디에 서계셔도  
이 땅의 어디를 바라보셔도  
장군님기쁨  
하늘끝에 달게 하고픈 진정  
그래서 바빠만 사는 우리네 마음

풀판아! 내 마음아!  
그때문에 애태우는 너는 내 소원  
장군님 모신 행복한 날에 너는 정녕  
우리 올리는 불타는 꽃다발  
축원의 꽃바구니란다!

## 조선속담

- 검소하게 살면 백년장수한다
- 단것은 쓴것과 함께 간다
- 독이 있는 열매나무 무슨 소용있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의 삶 무슨 소용있는가
- 돌아다보며 살지 말고 내다보며 살라
- 두려워할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불명예가  
따라가는 때이다

## 유모아

## 모빠쌍의 수업

프랑스의 작가 모빠쌍은 기다란 수업을 가지  
고있었다.

어느날 한 귀부인이 거만한 투로 말하였다  
《당신의 소설은 별로 대단한것이 못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의 수업만은 멋들어져요.  
당신은 어떻게 되어 수업을 길게 길렀는가요?》

모빠쌍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적어도 문학에 문외한인 전혀 무식한 사람들  
에게 나를 칭찬할 근거라도 주어야 하겠지요.》



## 민족정통무도의 발상지는 평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평양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슬기와 재능을 자랑하는 역사의 도시입니다.》**

우리 민족이 창조한 우수한 문화유산 가운데는 조선정통무도인 택견도 있다.

택견은 평양에서 발생하였다. 평양은 택견의 발상지이며 택견은 평양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면서 점차 우리 민족의 오랜 무술력사와 문화전통, 애국심을 체현하고있는 귀중한 무술유산으로 되었다.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인 택견은 발차기를 위주로 하는 도수(맨손)무술로서 세계 그 어느 무술보다 역사가 오래고 우수하며 발전된 위력한 무도이다.

오늘 우리 민족은 국제무대에서 태권도로 민족의 기상과 존엄을 높이 떨치고있으며 세계무술발전과 인류문화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태권도의 역사적뿌리는 바로 일찌기 우리 민족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조선정통무도인 택견이며 택견은 평양, 평양과 더불어 련면히 계승되고 평양사람들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평양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는 택견과 같은 민족정통무도가 창조될수 있는 바탕으로 되었으며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한 관서지방의 택견은 오래전부터 《평양날파람》으로 불리우며 세상의 주목을 끌어왔다.

우리 민족의 무술은 이미 고조선시기부터 높은 수준에 있었다.

고조선의 무술은 고구려에 의하여 계승되어 보다 높은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고구려의 권법은 손치기와 발차기, 머리받기를 위주로 한 위력한 무술이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한 고구려의 무술은 우리 나라의 중세 전기간 그 전통이 련면히 계승되었다.

조선의 권법은 아주 위력하였다. 《고려사》는 맨주먹, 맨발로 범을 때려잡은 장수에 대하여 전하고있으며 리조시기의 력대 왕조실록과 야사들은 발길질로 범을 때려잡은 장사들에 대하여서와 8마리의 황소를 나란히 줄세워놓고 뛰어넘으면서 마지막소는 발길로 차서 척추를 부러뜨려 죽사케한 사실 등 여러 일화들을 전해오고있다.

조선의 권법은 위력하였을뿐아니라 매우 독특하고 민족성이 뚜렷한 조선고유의 뛰어난 도수무술이었다.

도수무술이란 무기나 쟁기를 가지지 않고 하는 무술이라는 말이다.

우리 나라의 권법은 달리기를 잘하고 허리, 다리가 강한 조선사람의 체질적특성과 정의감이 강하고 대담하며 완강한 민족적성격이 반영된 발차기위주의 독특한 겨루기도수무술이었다.

《평양날파람》은 고조선과 고구려에 시원을 두고있는 조선(리조)권법에서 계승발전한 택견의 집합체명칭이기도 하다.

《평양날파람》은 역사적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널리 보급성행되었다.

《평양날파람》이란 말은 무술을 숭상한 고구려사람들의 후예들이 많았던 평양지방에서 날파람있는 젊은이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조상전래의 권법과 그에 기초하여 발전된 택견을 널리 활용하는데서 유래되었다.

《평양날파람》은 위력이 대단하였고 훈련방법과 훈련체계가 독자적이고 특이하였다. 법수의 동작에는 18법이 있었다고 하며 살법(죽이는 수법)과 활법(살리는 수법)의 여러 비법(비밀법수)이 있었다고 한다.

《평양날파람》은 주먹(손)과 발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머리받기도 하는 아주 위력한 도수무술이었다.

날파람군들의 특기로서는 찌르기와 발차기 외에 머리받기가 있었다. 그들의 훈련방법에서 기본은 발차기와 뛰어오르기였다.

차력은 《평양날파람》의 훈련방법가운데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이다. 《차력》이란 말그대로 자연의 힘을 빌린다는 뜻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신을 수양하고 잡념을 없애고 온몸의 힘을 쥘그리 손과 발 한곳에 모을 때 거대한 자연의 힘이 인간의 육체로 넘어온다는것이다. 그리하여 일사불란(형클어지고 엇힌데가 하나도 없다는 뜻)의 정신통일, 무적필승의 정신력이 온몸에 넘쳐나면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온몸에 넘쳐나 막강한 위력이 약동발휘된다는것이다. 이 경우 숨(호흡)조절을 기본으로 하면서 호흡과 손, 발놀림을 잘 조절융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일종의 기합이었다.

《차력》수련을 잘 쌓은 날파람군만이 진정한 택견명수가 될수 있었다. 이러한 날파람군에게는 무서운것이 없었다.

《평양날파람》은 민족의 슬기와 용맹, 애국심이 깃든 무술이었다.

실로 《평양날파람》은 역사적으로 조국과 향토를 지키기 위한 성전에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이 바친 우리 민족의 고결한 녀과 비범한 슬기, 무비의 용감성이 깃들어있는 귀중하고 자랑스러운 민족유산이다.

지난날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영구화할 목적밑에 우리 민족의 녀이 깃들어있는 모든것을 완전히 거세말살하기 위하여 미쳐날뛰었다.

정통무술 《평양날파람》도 례외가 될수 없었다. 일제는 1908년에 석전(돌팔매싸움), 《평양날파람》을 비롯한 모든 상무적풍습을 금지시키는 한편 조상전래의 권법동작이 집대성되어있는 리조시기

의 군사관계도서 《무예도보통지》를 강탈하기 위해 각지를 돌아쳤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애국정신이 깃들어있는 조선정통무도 택견-《평양날파람》과 같은 무술을 가지고있는것은 참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자랑과 긍지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우리의 태권도는 시대와 군대,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더욱 훌륭히 계승발전될것이며 국력을 다지고 민족의 체육문화를 꽃피우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 작가일화

# 권력보다 강한 시의 힘

16세기에 활동한 녀류시인 리옥봉은 조원에게 시집간 뒤에도 여느 집 가정부인들이나 첩들처럼 집안살림에만 파묻히거나 거울알의 분첩에 매달리지 않고 시를 즐겨 지었다.

그가 지은 한편한편의 시들이 얼마나 멋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지 당시 시인의 한사람이였던 신희은 리옥봉이 쓴 시 《죽서루에서》를 읽고 《예나 지금의 시인으로 이에 따라설만 한자가 없다.》고 찬양하였다.

리옥봉에게는 주옥같은 시가 많은데 그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많은 찬사를 받아온것은 《이웃집 녀인을 위하여》이다. 그 까닭은 시가 재치있게 잘된데만 있지 않다. 다름아닌 그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여주는 일화가 전해지기때문이다.

리옥봉이 살던 집 이웃에는 가난하고 무던한 부부가 살고있었다. 하루는 얼굴이 먹장구름처럼된 그 집 녀인이 옥봉을 찾아왔다. 옥봉이 항상 살뜰한 인정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주곤 하였으므로 마을녀인들까지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그를 찾아와 하소연하곤 하였다. 이날 울면서 찾아온 이웃집녀인은 옥봉이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남편은 원래 어질고 순박하오. 그런데 관가에서 남편이 남의 소를 훔쳤다고 하면서 잡아갔으니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소. 소원이니 이 천만부당한 루명을 벗을수 있도록 진실을 밝힌 글을 써주옵소서.》

듣고보니 사연이 기가 막혔고 녀인의 처지가 불쌍하였다. 그의 남편은 또 지금 관가에서 무슨 고초를 치르고있을것인가...

녀인의 하소연을 주의깊게 들은 옥봉은 곧 붓

을 꺼내들었다. 그는 먼저 서두에 이웃집녀인의 남편이 억울한 혐의를 받고있음을 밝히고 그뒤에 시 한수를 써넣었다.

거울이 없어  
소랭이물에 얼굴 비쳐보고  
기름이 없어  
물을 발라 머리를 빗습니다

나같은 촌녀자가  
무슨 직녀이기에  
저의 남편이  
견우이겠습니까

시는 이웃집녀인이 하는 말로 되어있는데 나는 농촌의 가난한 녀자이지 하늘의 직녀성이 되지 못하는데 내 남편이 어찌 견우성 즉 소를 끌어오는 사람일수 있겠느냐는 뜻이다. 견우성이 소를 끄는 별이라는데로부터 그것을 소도적과 련결시킨것이다.

옥봉은 시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지언정 거울같이 깨끗한 마음씨를 고이 간직하고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보여주면서 견우와 직녀의 전설을 리용하여 옥에 갇힌 남편을 걱정하는 녀인의 심정과 남편의 억울함을 재치있게 보여주었다.

옥봉이 써준 글과 시를 본 관가에서는 어찌는 수없이 녀인의 남편을 돌려보냈다. 진리의 목소리, 진실한 시의 힘은 이렇듯 무지막지한 권력의 힘보다 큰것이였다.

허종구

## 리명수

리명수는 원래 지명 이름이 아니라 소백산 동남기슭에서 시작하여 삼지연을 지나 삼포마을을 거쳐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큰 내천의 이름이었다.

리명수로동자구에 옛날에도 작은 마을이 있었다.

어느해 여름 이 마을의 어린이들속에서 배앓이병이 돌았다.

처음에 마을에서 한두 어린애가 배앓이로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에는 모두 심상치 여기었다. 일반적으로 무더운 여름철에 음식과 잠자리를 잘 돌보아주지 않으면 어린애들이 배앓이를 하는 것이 일췌이다.

그런데 하루이틀이 지나 여러날이 흐르자 그병이 전염되어 온 마을의 아이들이 자리에 눕게 되었고 한둘씩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부모들은 그제야 깜짝 놀라 산지사방으로 의원을 찾아다니였고 좋다는 약초를 캐다가 어린 아이들에게 달여먹이느라 들볶아대었으나 어느 한의원도 병을 고치지 못하였고 온갖 약초도 효험이 없었다. 그러다나니 집집마다에서는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안타까와 터뜨리는 울음소리만이 처량하게 들리었다.

이러한 집들가운데 어린아이를 놓고 눈물만 삼키고있는 젊은 부부도 있었다.

이들도 방도가 없기에 온종일 앓는 아이곁에 앉아 한숨만 짓고 흐느끼기만 하였다.

하루해가 저물어갈 때였다.

《여보!》

안해가 입술을 깨물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왜?》

《내가 처녀때 찾아가보았던 의원을 만나보고 와야 할것 같애요.》

《어디기에?》

《우리 본가집에서도 퍼그나 먼 곳에 있어요.》

《그럼 내가 갔다 오지.》

《한번 갔던 사람도 찾아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날도 저물어가는데 래일 아침에 떠나오.》

《아이가 이처럼 급한데 어떻게 한시간이라도 그냥 앉아있겠어요.》

안해는 더 말없이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곧 떠났다.

날이 밝기 전에는 돌아오게 될것이라고 떠난 안해는 그 이튿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은 더 앉아 기다릴수 없었다. 아이의 숨소리가 더 가빠지고 몸이 불덩이같아지기때문만이 아니라 안해가 밤길에 혹시 어디

에 쓰러져있지나 않는가 하는 위구심으로 마음이 초조해졌던것이였다.

남편은 아이를 포탄에 감싸안고 집을 나섰다. 그는 안해의 본가집으로 향한 산길을 따라 가면서 좌우숲을 살피기도 하고 벼랑길에 들 때면 벼랑아래를 살살이 내려다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한 벼랑길을 지날 때 아래를 내려다보니 벼랑을 감도는 내가곁에 쓰러져있는 한 녀인이 눈에 띄었다.

(아니 혹 저 녀인이?)

쓰러져있는 녀인의 옷차림이 안해인듯싶어 벼랑아래로 내려가보니 그가 분명하였다.

《아니 여보! 이게 웬 일이요?》

남편은 안해를 붙들고 흔들며 불렀으나 안해에게는 아무 기맥도 없었다. 머리말의 풀밭은 선지피로 물들여져있었고 손에는 약봉지가 꼭 쥐여져있었다.

아무리 흔들어도 대답이 없자 남편은 곡성을 터뜨리었다.

《여보, 앓는 아이를 두고 당신이 가면 난 어떤단 말이요.》

남편은 너무 억이 막혀 안해를 부둥켜안고 흔들기도 하고 아이를 품에 안겨주기도 하며 목놓아 흐느꼈다. 어머니품에 안긴 아이는 젖을 빨며 울었다. 이미 이 세상사람이 아닌 안해의 몸에서 젖이 나올리 없었다. 이 광경을 보는 남편의 가슴은 더 미여지는듯 하였다.

남편은 아이를 그 품에서 떼어 가슴에 안고 얼리였으나 아이는 마른 입술을 빨며 계속 울어대었다. 앓는 아이에게 젖도 먹이지 못하게 된 아픔에 남편은 온몸이 바질바질 타 재로 내려앉는듯 하였다.

남편이 하는수없이 시내물이라도 먹이려고 내가에 다가가니 물속에 검스레한 산천어들이 옥실거리고있는것이 보였다. 순간 그에게는 맹물보다 산천어의 피를 아이에게 먹이는것이 더 나을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피뚱 들었다. 하여 그는 시내물에 뛰어들어 몇마리 산천어를 잡아서 피를 내어 아이의 마른 입술에 한방울 두방울 떨어뜨려 먹이였다. 그제서야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거의 한종기나 될만큼 피를 먹고나서 혼곤히 잠들었다.

잠든 아이를 풀속에 눕히고난 다음 안해의 몸을 거둘수 있었다.

이날 안해는 세상을 떠났으나 아이는 이상하게도 언제 앓았던가싶게 이튿날부터 병을 털고 일어나 놀기까지 하였다.

안해의 사망을 두고 위로하러 왔던 이웃사람들은 뜻밖에 기여다니며 노는 아이를 보고 어찌된

## 경구, 격언

일인가고 물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단지 산천어피를 먹인 것 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난 마을사람들은 모두 떨쳐나서 앞내가에서 산천어를 잡아 그 피를 내어 앓는 아이들에게 먹이였더니 며칠사이에 모두 병을 털고 일어나 뛰어놀기까지 하였다.

이 소문을 듣고 여직 병을 고치지 못해 속을 태우던 의원들이 찾아왔다.

아이들의 목숨을 살려낸것이 산천어의 피였다는것을 알게 된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감탄하였다.

하기야 백두산천지물을 마시며 자란 이 산천어가 어찌 명약이 되지 않을수 있겠는가.

이로부터 이곳의 산천어는 목숨을 살리는 물고기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한자로 잉어 리자와 목숨 명자, 고기 어자를 써서 리명어라고 불려왔다.

그후에 리명어가 사는 내천을 《리명천》, 《리명수》로 불려왔다. 그러다가 리명수가에 일떠선 마을도 리명수라고 불려오게 되었다고 한다.

- 《근본문제는 작가가 혁명가로 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무슨 사건을 묘사하든 어떤 자료를 취급하든 모두 혁명문학으로 될것이다. 샘터에서 나오는것은 모두가 물이며 혈관으로부터 나오는것은 모두가 피이기때문이다》
- 《우리에게 요구되는것은 작품뒤에 덧붙은 구호나 조잡한 군더더기가 아니라 작품속에 반영된 진실한 생활이며 생동한 투쟁이며 고동치는 맥박이며 사상이며 정열인것이다》
- 《당성과 계급성을 떠난 제3의 문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 《옳은 사상을 가지지 않고서는 생활의 이러저러한 현상을 당적인 안목으로 정확히 투시할수 없으며 계급의 리익을 반영한 문학을 창조할수 없다》